www.whimoonob.net

# 큰사람 徽文校友會報

Whimoon High School Alumni Bulletin
2011. Spring | Summer | Volume No. 65

· 제호 | 서예가 53회 녹담 유호선 ( 鹿潭 柳滸宣 ) 작품


| | |
|---|---|
| 인사말 | 제 9대 / 제 10대 교우회장 • 2 |
| 좌담회 | 제 9대 교우회 지난 4년간 발자취를 돌아보며… • 4 |
| 사업보고 | 2010년도 결산보고 / 2011년도 사업계획 • 10 |
| 교우회 뉴스 | 신년하례회 외 • 12 |
| 제18회 체육대회 | 박수와 웃음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멋진 축제 • 15 |
| 야구후원회 | 첫 야구후원회의 밤 열어… • 18 |
| | 후원금약정서 • 23 |
| 휘문 스포츠 | 2011년 고교야구 주말리그에 대하여… • 25 |
| | 인터뷰 … 야구부 이명섭 신임감독 • 28 |
| | 농구부여 비상하라 • 30 |
| | 봅슬레이, 스켈레톤팀 • 32 |
| 휘문인 뉴스 | 임영웅 교우(46회) 외 • 34 |
| 언론속의 휘문인 | 전형필 교우(18회) 외 • 37 |
| 아름다운 휘문인 | 원종린 교우(34회) 외 • 40 |
| 기고문 | 인휘용문(유호선, 53회) • 43 |
| | 중년남성이 건강하게 사는 법(김현수, 72회) • 44 |
| 특별 회계보고 | 휘문장학회 Report • 46 |
| | 개교 100주년 기금 Report • 48 |
| 동호회 | 특집_휘마동, 탄생부터 지금까지 • 50 |
| | 백선회 외 직능별 동호회 • 57 |
| 지역교우회 | 지역별 교우회 / 해외교우회 • 62 |
| 모교소식 | 고등학교 / 재단 • 66 |
| 동기회 특집 _ 65회 | 회장 인사말 / 휘봉회 / 육오회 • 70 |
| 휘문인광장 | 동기회별 소식 • 76 |
| 연회비 납부현황 | • 93 |
| 편집후기 | • 96 |


다함께 徽文 더가까이

· 표지 제목 열린시간 Oil on Canvas



**강창열** | 6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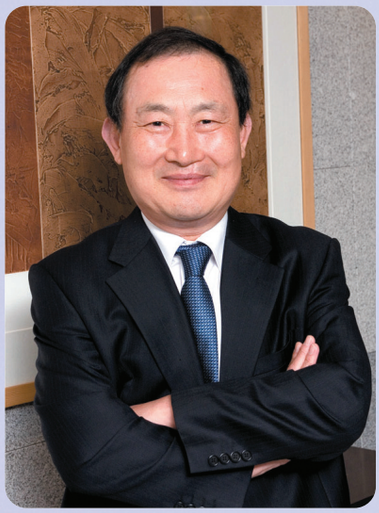


- 미국 New York Space Womb. / 미국 LA _ FT.ART Gallery.
- 프랑스 파리_ Frederic Moisan Gallery.
- 독일 칼스루헤 아트페어.
- 이스탄불 아트페어 건템퍼러리 .
- 말레이시아국제아트엑스포.
- 제2회 북경비엔날레.
- 제8회 북경국제엑스포 금상 수상.
- S.T 그룹전.
- 한국미술협회 서양화분과위원장, 국제분과위원장엮임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운영위원 엮임.
- 국어 국정교과서 표지 _ 창작과 비평
- 음악과미술의 만남 3회 – 예술의전당, 세라믹아트홀, 비발디홀

· 발행처 | 휘문교우회 T. 02-3486-6735~6, F. 02- 3486-6737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55-8 중앙로얄오피스텔 702호 · 발행일 | 2011년 4월 5일 봄 · 여름호 (통권 제 65호)
· 발행인 | 신흥우 · 편집인 | 이상진 · 편집/기획 | I&K커뮤니케이션 02-458-3192 · 편집/디자인 | 디자인하우스 예원 02-2253-4630 · 인쇄 | (주)서경문화 02-2272-7003(서울 묵정동)
· 〈큰사람–휘문교우회보〉는 휘문교우회 회원들을 위하여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본지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휘문교우회가 갖고 있으며, 본지의 기사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전제 또는 발췌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는 휘문교우들의 회비와 광고비로 제작 · 발송됩니다.

## 교우회장을 마치면서

# 지난 4년, 부족했지만 보람찬 시간들…



지난 4년간 휘문사랑을 실천하는 후배들과 함께 "다함께 더 가까이" 라는 표어로 제 9대 교우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저는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기를 마무리하고 떠나려 하니 참으로 流水와 같은 세월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부산에서 상경하여 인척 어른인 박일필 선생님의 권유로 휘문에 지원, 입학하여 6년간 줄곧 선생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급우들의 우정이 어우러진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사회인이 된 후에는 59회 동기회 – 희중회– 휘산회 – 100주년기념사업단을 거쳐 제 9대 교우회장으로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온통 휘문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아끼는 어느 후배 曰 "형님은 재학시절부터 휘문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했으니 남은 여생동안 휘문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며 사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얘기가 가슴 깊이 요동을 칩니다. 제 능력에 부치는 '휘문교우회장' 직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9대 운영위원 후배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부족한 점 투성입니다.

사랑하는 휘문교우님들!

부디 휘문사랑으로 관용해주시기 바라오며, 훌륭하신 명예회장님, 선배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더 휘문사랑을 진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를 도우며 휘문사랑을 실천해 온 운영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또 다른 출발선에서 새롭게 휘문 발전의 짐을 지고 나아갈 제 10대 문규영 회장에게 큰 기대와 함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7일

제 9대 교우회장 신 흥 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으로 교우회의 발전을…

존경하는 휘문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大 휘문의 제 10대 교우회장으로 추대된 62회 졸업생 문규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효시라는 긍지와 자랑스런 사학의 전통을 백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사학의 최고 명문 휘문고등학교의 교우회장으로 추대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명문 휘문의 위상이 있기까지 숭고한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전임 회장님들과 여러 선후배 교우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선배들께서 열정으로 지켜오신 일백 년의 전통을 겸허히 받들어 세대를 아우르는 교우들의 화합과 교우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 교우 여러분의 조력자로서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교우회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나아가 모교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늘 겸허히 섬기는 마음으로 힘차게 교우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아낌 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또한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7일

제 62회 문 규 영



## profile

**문규영** 文奎榮 Moon, Kyu Youn 1951년생

학 력

휘문고등학교/고려대학교 졸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명예박사

경 력

現 아주그룹 회장
現 (사)한일경제협회 상임이사
現 (사)한국마케팅클럽 회장
現 한국능률협회 경영자교육위원회 위원장

상 훈

2007. 4 한국능률협회
· 제39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2008. 5 한국품질경영학회
· 2008년 한국품질경영인 대상 수상
2008.12 한국표준협회
· 제3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 수훈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09 페이지 4



# 제 9대 교우회의 지난 4년간 발자취를 뒤돌아 보며…



장 소 **교우회 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9일** AM 10:00 ~
사 회 **장용이 사무국장 대행** 56회
토론자 **박상호 재정위원장** 64회, **김응구 기획위원장** 67회, **이상진 편집위원장** 67회, **정인권 조직위원장** 68회
촬 영 **장원근** 71회
정 리 **안태준** 80회

**사회(장용이)**

제 9대 휘문교우회가 출범했던 지난 2007년은 휘문 최대의 축제인 개교 100주년 행사가 막 끝난 후였습니다. 큰 일 뒤의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양한 기획으로 많은 행사와 모임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했다고 봅니다.

주축 위원으로서 수고해 온 네 분의 위원장들이 본, 제 9대 교우회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 보고자 합니다.

좌담은 제 9대 신흥우 교우회장의 취임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100주년 기념사업의 마무리에 대하여 기획위원장이 말씀해 주세요.

## 100주년 기념 사업의 마무리

**김응구** 100주년 기념사업은 제 8대 교우회의 주요 사업이었는데 각종 사업중 기념물 · 기념품 제작, 편찬사업, 기념행사 등은 원만히 마무리됐으나, 핵심이라고 할 기념관 건립이 학교재단과의 견해차로 실행되지 못하고 표류됨에 따라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마무리를 못하고 제 9대로 과제가 이월된 셈이지요. 이에 우리 제 9대 신흥우 교우회장단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하고자 다짐했으나 열정과 능력이 부족했는지 별 진전 없이 다시 제 10대 교우회로 그 숙제를 넘겨야 할 형편입니다.



제1회 OB예술제(2008년 6월)

**정인권** 100주년 기념사업의 중요 의의는 기념관 건립에 있는 것이기에 학교 내 · 외 어디에든지 꼭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보성, 양정, 중동, 숙명, 배재 등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재단의 협조로 학교 내에 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협조로 학교 내에 건립하든지 불가능하면 학교 밖에 준비하는 것으로 그 목표 설정을 하고 재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한 모든 학교들은 학교 내에 기념관을 건립했으며 비싼 부지 가격 때문에 학교재단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재단과의 문제는 항상 예민한 사항이기에 교우회가 희망하는 대로 갈 수 없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제 10대 교우회에서는 현명하게 실현 가능한 실천적인 목표를 설립하도록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 회** 공감하지만 모든 학교들이 학교 내에 기념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본 좌담의 발언 내용들이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되어 관심이 제고되기를 바랍니다.

**박상호** 제 9대 교우회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폭소)
(※ 제10대 교우회에서 계속 중요 부회장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박상호 위원장이기에…)
어느 선배님 말씀이 "왜 10억대의 기금을 단순히 은행에 예금하고 있느냐?"고 하시기에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김응구** 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요즘이기에 단순 예금 보다는 환금성과 투자가치가 있는 강남 역세권의 오피스 매입을 목표로 정하고 미납된 기수들을 적극 독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교우회 사무국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수익을 득하면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때 특히 주의할 점은 부동산 매입의 특성상 이사회, 총회 등의 공식 의사 결정 기구를 통한 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신축적,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특별소위원회 교우회장 포함 를 구성하여 실행해야 신뢰와 실익을 동시에 함께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때가 지난 기념관 건립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아예 장래의 사업으로 미루고, 100주년 기금을 자율형 사립고가 된 모교를 위해 일반 문과,이과 및 예체능 측면에서 전국 최우수 중학생을 유치하는 장학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는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사 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는 부득이 제 10대 교우회에 숙제로 이월해야 하겠군요.
다음 장학기금 확충에 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 장학재단 기금 확충

**정인권** 제 9대 교우회가 출범한 이듬해 불어 닥친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장학기금 확충이 쉽지 않은 현실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사진 구성 시 재원 확충을 위한 발탁 인사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구요,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전임 교우회장이 이임 후 1년간 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면 신임 교우회장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좋은 전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행되었으나 오히려 교우회장과 장학재단 이사장간의 이원화된 조직이 되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됩니다.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09 페이지 6



**사 회** 현재 이사진 중에서도 양치종 31회 선배님의 자제분 양구하 이사 과 이춘섭 교우 50회 등은 지속적으로 추가 기금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향후 기금 출연 이사진 등용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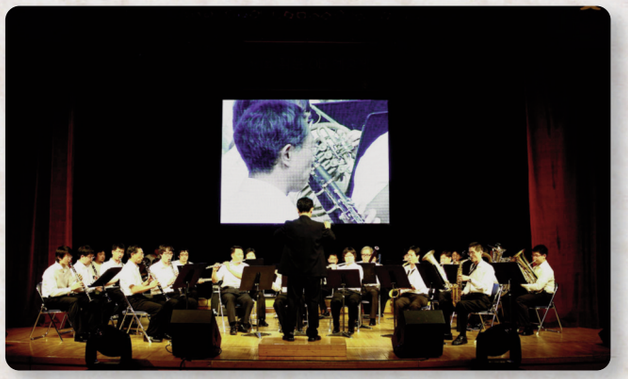
**김응구** 어려운 시기였지만 새로운 장학기금 확충이 됐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요. 知 공부 장학금과 별도로 体 운동 장학금으로 야구후원회에 약 2억5천만원이 조성되어 2억원은 장학재단 기금으로 확충되었으니까요. 이 문제는 뒤에 언급될 모교 체육부 관련 후원 시 다시 얘기 나누시지요.

**사 회** 우리 교우회의 재정은 소수의 교우들만이 연회비를 납부하는 실정이기에 항상 수입이 과부족하여 교우 회장 개인의 특별회비 등으로 충당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온 재정위원장이 먼저 말씀하시지요.

## 교우회의 재정자립

**박상호** 수입 계정은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 와 기별 분담금 150만원, 51회~80회, 회장단 특별회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300~400명에 불과한 연회비 납부인원 증대가 선결과제이며 기별분담금 또한 70회 후반 동기회의 경우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미납 기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기별 회장, 총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며 젊은 기수들의 동기회 활성화가 매우 아쉬운 실정입니다.
교우회의 특성상 명분이 있을 때 충분히 기금 조성을 하여 필요할 때 일반 재정으로 편입해 사용함이 적절하기도 한데 예컨대, 작년 체육대회 시 특별회비를 약 8,000만 원 정도 모금하여 3,000여만원을 일반 재정으로 편입해서 집행했었던 경우지요.

**정인권** 제 9대에서는 연회비 징수 방법을 다양하게 구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로입금제, 신용카드결제, 폰뱅킹, 영수증 교부 등. 하지만 역시 관심 부족으로 실적이 호전되진 않더군요.



제1회 OB예술제(2008년 6월)

**이상진** 연회비 지로용지를 삽지한 교우회보 발송 부수가 약 7,000부 정도인데 평생회비, 연회비 납부자가 7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로 용지를 받을 때에라도 회비 납부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김응구** 박상호 선배님 말씀 중 기본에 해당되는 연회비, 기별회비가 연간 소요예산 약 3억 의 20% 정도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저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다양한 모금방법, 회보 업그레이드 등 여러 방법을 해 봤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은 결국 교우회에 대한 일반 교우들의 관심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동기회에만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체육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교우회를 인식하게 되고 휘산회, 휘건회 등의 동호회와 홈페이지, 교우회보 등을 통해서 선후배 동정을 알게 되면서 소속감, 자부심 등을 느껴 교우회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회보 발행 배부를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구독료를 신설하고 기별 집행부에 배부권한을 위임하여 기별분담금과 함께 일괄 징수한다면 기별 집행부의 역량이 강화됨은 물론 교우회에 대한 관심제고로 회비징수가 활발해지므로 재정자립에 크게 도움이 되고 더 충실한 교우회보 발행과 교우회 활성화에 선순환적인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진** 김응구 위원장의 의견 외에 개인별 구독료를 신설하여, 교우회보에 회비 지로 용지를 넣을 때 구독료 예를 들어, 연 2만원 지로 용지를 추가로 삽입하여, 징

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10대 교우회를 시작하는 초기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결정되어 재정 확충에 유용한 수단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 회** 김응구 기획위원장이 총무단 회의 시 이 문제를 제기했었지요. 실제로 동문회보를 발행하는 타 학교들 모두가 회보 구독료를 일반 회비와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 나누시지요.

## 교우회 조직의 활성화

**정일권** 제 9대 1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과거 부회장단과 달리 명성 위주가 아닌 실제 활동 참여교우 위주로 부회장단을 구성하여 등산, 골프, 조찬세미나 등 활발히 활동했었는데 점차 기력이 상실되어 2기에는 활동이 부진해 졌습니다. 역시 젊은 70~80대 기수들의 적극 참여를 위한 육성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조직위원장으로서 모든 행사, 모임, 회의 등을 매뉴얼화한 점은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역부족으로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박상호** 우리 제 9대 교우회가 잘 한 일도 훨씬 많은데 왜 자꾸 반성들만 하는 겁니까? 폭소
아무래도 2기 부회장단이 부진했던 것은 위촉장 수여조차 생략한 채 특별회비만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포럼 등의 활동이 부진했던 것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10대 교우회의 경우 기별, 지역, 직능회장들을 모두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하여 이사 직책과 겸하게 하고 특별회비를 50만원으로 낮추어 책정한다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구** 향후 우리 교우회의 걱정거리는 첫째 제 10대 문규영 교우회장님 62회 의 이전 기수인 61회 이상 선배 교우님들이 기금 납부, 활성화, 건강한 체력 등을 감안할 때 휘문의 주력 계층인데 이제는 모두 원로급, 자문단으로 대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70회 후반 기수 이후는 1~2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활성화, 비조직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문제에 대한 대안은 61회 이전 선배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물심양면 휘문사랑에 참여하시는 방법이구요,
둘째 문제 해법으로 지난 휘문 OB예술제를 휘문 OB축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행사를 볼 때 가을의 정기 체육대회는 각 기별 중심 모임이지만 이번에는 동호회, 학창시절 써클 중심의 모임으로 봄에 OB축제를 개최한다면 젊은 후배들의 활성화에 결정적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졸업 후 동호회 구성을 보면 휘산회, 휘건회, IT, 지역 동·서·남·북·대전 등의 경우 40회대~90회대까지이며 재학시절 써클을 보면 합창반, 밴드반, 문예반, 영어반, 도서반, 화학반, 산악반, 유도반 등 60회~100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봄날 하루 모교 운동장에서 선후배가 함께 모여 어우러진다면 단체간 선의의 경쟁 속에서 소속감, 자부심, 휘문 사랑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 10대 교우회에서 수고할 몫이 되겠군요. 웃음

**사 회**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보강화에 관한 말씀인데 이상진 편집위원장의 소관인 것 같군요.

## 홍보위원회 보강

**이상진** 휘문 홈페이지를 평가한다면 항상 실시간으로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매우 흥미롭고 선후배간 소통의 장이 원활하게 열리는 곳으로서, 교우회 활성화에 지대하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우회 홈피가 아닌 외부에 링크된 홈피들에서 비공개 부분이 너무 많아 불편한데 주소록이나 비밀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기사 취재나 홍보나 조직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웃음
교우회보는 제 9대 편집위원장 자격으로 제10대 교우회에 조언 드린다면 대학 입학 성적 우수, 야구 우승 등 국내 최우수 명문사학을 지향하는 모교의 미래지향적 현상과 청사진을 고려할 때 현 상태 수준 이상 유지·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미래의 교우회원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09 페이지 8





제18회 체육대회(2010년 10월)

이 될 고3 졸업생들에게도 배포함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기수를 영입하고 활성화 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응구** 제 9대 출범 후 초기 1년 동안 교우회 활동이 실제로 가장 활발한 시기였는데 홈페이지 운영이 잘 안되고 회보 발행도 부진하여 주요 홍보수단이 취약하였기에 안타까운 시기가 있었지요. 홈페이지와 교우 회보가 교우회 홍보의 유력한 두 가지 주축 수단인데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으니 앞으로는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모교 체육부 지원에 대하여는 박상호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이 먼저 말씀하시지요.

## 침체된 모교 체육부 지원 강화

**박상호** 모두 아시는바대로 교우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초대 야구후원회 회장인 문규영 회장께서 출연하신 2억원을 근간으로 태동되어 45명 의 부회장들과 일반 교우 후원자 100여명의 참여로 휘문 야구후원회가 결성되어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제 9대 교우회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자부합니다.

**정인권** 특히 여러 선후배님들께서 농구부 걱정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문규영 후원회장께서 향후 농구를 포함한 전체 운동부 후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봅슬레이, 스켈레톤 팀에도 해당되겠지요? 기대합니다.

**김응구** 저는 40년 동안 휘문 야구 응원을 해오는 광팬(?)인데 제 9대 2기 초기에 야구후원회 발족을 준비하던 중 대통령배 야구 우승을 할 때 야구후원회의 성공적 결성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 회** 지난해 모교의 큰 변화가 있었지요. 자율형 사립고에 관해서 이상진 위원장이 언급해주시지요.

## 모교의 변화

**이상진** 모교 발전에 큰 전기가 될지도 모를 자율형 사립고 결정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아마도 3년 후에는 소위 명문 대학의 입학생이 현재의 2~3배가 될 것으로 김선창 교장선생님께서 예상하시더군요.
예컨대 입학생들의 중학교 내신 50%이상이 예년에는 45% 정도였는데 2011학년도에는 92%라고 하니 우수한 후배들이 대거 입학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의 현명한 결정과 학교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김응구** 진정 솔선수범 하시는 신흥우 회장님 이하, 9대 교우회 운영위원들인 상호형, 상진, 인권, 두묵, 윤식, 동화, 태준, 이실장, 용이형- 참 휘문을 사랑하는 분들이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며, 10대에서 계속 수고하실 박상호 부회장님께 짐을 놓고 가려고 하니 미안한 마음입니다. 특히 병상에 계시는 영규형의 쾌차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제 10대 문규영 교우회장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시다.

**사 회** 저도 제 6~7대 교우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활약상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해보니 정말 대단한 휘문의 역군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휘문사랑을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지난 4년 동안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 제 9대 교우회 임기를 마치면서…



**박상호** 휘문 역대 교우회장님들 모두 잘 하셨지만 모든 면에서 앞장서신 신흥우 회장을 모시고 우리 9대 교우회가 수많은 노력 봉사를 한 결과 한 단계 발전했다고 자부하면서, 외람되지만 "다함께 더 가까이"를 외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김응구** 제 개인적으로는 동기회장 10년, 교우회 부회장 12년, 교우회 운영 참여 7년, 참 세월무상을 느낍니다. 제 스스로 좋아서 휘문사랑을 했기에 보람도 많았고 아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상진** 저는 OB예술제 기획위원을 포함하여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 교우들을 섬길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만 각종 회의 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하게 되는데 봉사하는 교우들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효율적 회의 진행이 절실히 필요하더군요. 준비된 업무매뉴얼을 활용하여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논하고 결정하면서 회의 시간을 가급적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권** 제 9대 교우회 출범 후 벌써 4년이 흘렀다니, 참 세월이 빠르군요. 수많은 회의와 행사들을 치르면서 사무국 업무를 매뉴얼화 하여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자부합니다. 제 9대의 부족했던 점들은 제 10대에서 보완 ·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9대 교우회 운영위원 및 사무국 교우

#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제 9대 교우회 임원진

| | | | | |
|---|---|---|---|---|
| **회 장** | 신흥우(59회) | | | |
| **부회장단** | 남선현(59회) | 변동철(59회) | 김관근(61회) | 김홍일(61회) |
| | 민병직(61회) | 백정기(61회) | 이승권(61회) | 문규영(62회) |
| | 이원근(63회) | 제진주(63회) | 조성식(63회) | 최창순(63회) |
| | 박상호(64회) | 이용주(65회) | 이충희(65회) | 신현종(66회) |
| | 김응구(67회) | 이광호(67회) | 양종희(68회) | 이남진(68회) |
| | 정인권(68회) | 김신철(69회) | 강명수(70회) | 송병목(70회) |
| | 임두묵(70회) | 정재호(70회) | 양희봉(71회) | 김운오(72회) |
| | 김현수(72회) | 윤철한(72회) | 유동화(73회) | 이상용(73회) |
| | 이재황(73회) | 양한수(74회) | 오세중(75회) | 최상원(78회) |
| | 박성식(79회) | | | |
| **운영위원** | 박상호(재무위원장 64회), | | 김응구(기획위원장 67회), | |
| | 이상진(회보편집위원장 67회), | | 정인권(조직위원장 68회), | |
| | 임두묵(홍보위원장 70회), | | 유동화(73회), | |
| **감사** | 임창호(67회), 백영기(73회) | | | |
| **사무국** | 안영규(63회), 신윤식(72회), 안태준(80회), 장원근(71회) | | | |

# 2010년도 결산 보고

(단위 : 원)

| 수입 지부 | | 지출 지부 | |
|---|---|---|---|
| 적 요 | 금 액 | 적 요 | 금 액 |
| 전기이월금 | 11,344,470 | 1. 일반관리비 | (74,619,550) |
| 1. 회비수입 | (104,224,066) | 급 여 | 46,200,000 |
| 기별회비 | 29,500,000 | 중식보조비 | 3,300,000 |
| 특별회비 | 56,867,100 | 사무용품비 | 2,572,030 |
| 년회비(평생회비포함) | 38,446,966 | 통 신 비 | 2,760,030 |
| 회의 참가비 | 8,310,000 | 경 조 비 | 3,750,000 |
| 배너광고비 | 1,100,000 | 도서인쇄비 | 1,600,000 |
| 2. 체육대회 수입 | 79,822,000 | 사무실 관리비 | 4,480,620 |
| 3. 기타수입 | (42,476,095) | 제세공과금및복리후생비 | 8,240,320 |
| 졸업생 입회비 | 9,340,000 | 잡비 | 1,550,600 |
| 수입이자 | 6,095 | 지급수수료 | 165,950 |
| 회보광고수입 | 21,550,000 | 2. 회무관리비 | (24,505,370) |
| 기타수입 | 6,000,000 | 회 의 비 | 13,701,960 |
| 벨트판매대금外 | 580,000 | 조직관리비 | 4,121,610 |
| | | 홈페이지유지보수료外 | 6,681,800 |
| | | 3. 체육대회 경비 | 49,462,000 |
| | | 4. 모교지원금 | (14,090,000) |
| | | 모교체육지원금 | 9,340,000 |
| | | 장기근속교직원격려금 | 4,750,000 |
| | | 5. 회보제작/발송 | 52,148,170 |
| | | 6. 기 타 | 3,449,200 |
| | | 7. 미지급금 처리 | 25,000,000 |
| | | 8. 차기이월금 | 19,592,341 |
| 합 계 | 262,866,631 | 합 계 262,866,631 | 262,866,631 |

다함께 더가까이 激文

## 2010년도 감사 보고서

본인등은 휘문교우회 감사로서 본회 2010년도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보고 합니다.

■ 회계감사 의견 :

2010년도 결산서와 동 부속명세서 및 관련 제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과 지출이 결산서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 업무감사 의견 :

사무국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회비 징수에 임하길 바랍니다.

2011. 3.

휘문교우회 감사 (67) 임 창 호 : 임창호

(73) 백 영 기 : 백영기

# 2011년도 사업계획

| 날 짜 | 행 사 명 | 주요 논의 사항 | 비 고 |
|---|---|---|---|
| 01. 18 (화) | 신년하례회 | | 1월 3주 (화) |
| 02. 09 (수) | 모교 졸업식(고등학교) | | |
| 02. 10 (목) | 모교 졸업식(중학교) | | |
| 02. 23 (수) | 1차 총무단 회의 | 정기총회 준비 | 2월 4주 (수) |
| 03. 09 (수) | 1차 정기 이사회 | 정기총회 준비 | 3월 2주 (수) |
| 04. 07 (목) | 정기총회 | 모교강당 | 4월 1주 (목) |
| 05. 01 (일) | 개교기념일 | 휘문고교 | 5월 1주 (일) |
| 06. 04 (토) | 진로의 날 | 휘문고교 | 6월 1주 (토) |
| 09. 02 (금) | 2차 총무단 회의 | 체육대회 준비 | 9월 1주 (금) |
| 09. 16 (금) | 2차 정기 이사회 | 체육대회 준비 | 9월 3주 (금) |
| 10. 08 (토) | 제19회 한마음 체육대회 | 73회 주관 | 10월 2주 (토) |
| 10월 중 | '한티축제' | 휘문고교 | |
| 11. 11 (금) | 3차 총무단 회의 | 송년모임 및 결산 | 11월 2주 (금) |
| | 휘문 장학회 | 년 2회 | |
| 11. 30(수) | 야구후원의 밤 | | 모교강당 |
| 6월, 9월, 12월 | 부회장단 회의 | 홀수 아침회의 | 짝수 저녁회의 |
| | | 홀수달 1주 (화) | 짝수달 1주 (월) |
| 매월 4주 (월) | 운영위원회 회의 | | 매월 4주 (월) 교우회사무실 |

# 2011년도 예산 보고

(단위 : 원)

| 수입 지부 | | 지출 지부 | |
|---|---|---|---|
| 적 요 | 금 액 | 적 요 | 금 액 |
| **전기 이월금** | 19,592,341 | **1. 회무관리비** | **30,500,000** |
| **1. 기별회비** | 30,000,000 | 회의비 | 20,000,000 |
| **2. 특별회비** | 45,000,000 | 회무관리비 | 3,500,000 |
| **3. 년회비(평생회비 포함)** | 35,000,000 |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 7,000,000 |
| **4. 신입 입회비** | 9,000,000 | **2. 회보제작/발송비** | **50,000,000** |
| **5. 체육대회 찬조금** | 80,000,000 | **3. 체육대회 경비** | **60,000,000** |
| **6. 회의참가비** | 10,000,000 | **4. 모교지원금** | **15,000,000** |
| **7. 광고 수입비** | 30,000,000 | **5. 일반관리비** | **73,770,000** |
| **8. 기 타** | 3,000,000 | 급 여 | 50,820,000 |
| **합 계** | 261,592,341 | 중식보조비 | 3,600,000 |
| | | 경 조 비 | 3,000,000 |
| | | 통 신 비 | 3,000,000 |
| | | 사무용품비 | 2,500,000 |
| | | 사무실 관리비 | 4,500,000 |
| | | 도서인쇄비 | 500,000 |
| | | 집기,비품 | 100,000 |
| | | 사무실잡비 | 650,000 |
| | | 제세공과금및 복리후생비 | 5,000,000 |
| | | 지급수수료 | 100,000 |
| | | **6. 차기이월금** | **32,322,341** |
| **합 계** | 261,592,341 | **합 계** | 261,592,341 |

※ 장학재단 특별회계와 야구후원회 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함.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0 페이지 12



##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참여하는 신년하례회

### 1월 20일 포에버리더스 역삼점에서 성대히 개최




교우회 신년하례회가 지난 1월 20일(수) 신흥우 교우회장, 신좌성 고문단장, 채희병 명예회장, 민인기 재단이사장, 김선창 모교 교장을 비롯, 120여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포에버 리더스 역삼점에서 개최되었다.

신흥우 교우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해 모교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과 교우회의 야구후원회 발족 및 품격이 높아진 교우회보 "큰사람" 의 발행 등으로 이룩한 대단한 도전과 변화에 더하여 새로운 제 10대 교우회 출범을 맞게 되는 2011년에 교우들에게 지난 해보다 더욱 더 뜨거운 열정으로 "다 함께 더 가까이" "도전과 변화"에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특별히 이번 신년하례회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Los Angeles, College of Chiropractic 임상교수 및 원광대학교 한의대 외국인교수로 재직 중이며, 김천대학 한방보건복지학과 전임교수로 있는 62회 이주강 교우의 건강 관련 강의를 시행하여 교우들에게 커다란 웃음과 희망을 듬뿍 선사하였다.

## 문규영(62회) 교우 제 10대 교우회장직 수락

### 2010년 결산과 2011년 예산심의

지난 3월 9일(수)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2011년 정기 이사회가 40여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을 심의하고, 차기 교우회 회장으로 문규영 교우(62회, 아주그룹 회장)를 추대하였다. 차기회장 추대위원 중 1인인 권혁홍 교우(53회)는 문규영 교우가 차기 회장직을 수락함으로써 제 10대 교우회가 출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정식으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았다.

한편 이번 정기 이사회에서는 시작에 앞서 모교의 신



18회 체육대회 공로패를 수여받은 72회 회장단과 함께

# NEWS



10대 교우회장을 추대하는 권혁홍 명예회장



야구부 전망에 대해 설명하는 이명섭 감독

임 야구부 감독인 이명섭 교우(75회)를 초대하여 그간의 대만 전지훈련을 포함한 동계훈련의 성과와 금년도 예상 전력 및 신임 감독으로서의 포부에 대하여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고교야구 주말 리그제와 전국대회의 참여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며 교우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교우들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제 103회 졸업식에서 교우회 장학금 수여



모교 제 103회 졸업식이 2월 9일(수) 모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신흥우 교우회장은 축사에서 졸업 후 20대에 풍부한 경험을 쌓을 것을 권유하고, 세계인으로서의 글로벌 마인드와 준 사회인으로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적인 자세를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 장학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신 회장은 7개 부문 6명의 우수 졸업생에게 교우회 장학금을 수여하며 큰 꿈을 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후배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한편 신회장은 다음 날 10일(목) 거행된 중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여 꿈나무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다.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0 페이지 14



# NEWS

## 교우회 발전위해 힘쓰던 안영규 사무국장 쓰러져

### 치료비등 교우들의 후원과 협조 절실한 상황



그동안 교우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면서 교우들의 길흉사에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며 몸을 아끼지 않던 안영규 사무국장(63회)이 불행하게도 작년 2010년 9월 22일(수) 한가위 명절날에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 외출 후 돌아 온 동료에 의해 발견되었다.

가까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응급 수술로 가까스로 생명은 구하였으나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한 달 정도 경과 후 간신히 일반 병실로 이송되었었다. 병원 사정에 의해 현재는 장위동 소재 온누리 병원에 입원 중인데 아직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음식도 입으로는 섭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병인의 손에 이끌려 매일 가벼운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병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일반인이 거의 느끼기 어려울 만큼 약간씩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전문가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료비와 간병비가 본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투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교우 여러분들의 후원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후원금 계좌 : 하나은행(휘문교우회) 291-910005-92405**

그 이후부터 9대 교우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임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교우회 자문단 간사장을 맡고 있는 장용이 교우(56회)가 사무국장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지원하였다.

## 총무단 모임과 운영위원회 회의 열려

### 올해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난해 노고치하

그동안 뜸했던 총무단 모임이 교우회 앞 화로여행에서 2010년11월15일(월) 과 2011년 2월 23일(수) 교우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1월에는 10월 9일 거행된 체육대회에서의 노고를 위로하였고, 12월의 야구후원의 밤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으며, 2월 모임에서는 기별회비 및 연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65호 교우회보에 게재할 기별 동기회, 지역별 교우회 및 직능별 동호회의 소식 제출과 광고 신탁을 안내하였고, 2011년도 정기이사회(3월 9일) 및 정기총회(4월 7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참석을 독려하였다.

한편 교우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이며 살림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월 2회에 걸쳐 교우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교우회장을 비롯하여 7명의 운영위원, 사무국 직원 및 그때 그때 필요한 교우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사안별로 토론하는 열린 회의의 형식을 갖추어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박수와 웃음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멋진 축제

**오랜만에 모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동안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넓고 쾌적한 잔디구장을 찾아 대치동 유수지 테마체육공원과 개포동 한전 부설운동장에서 거행했던 체육대회를 이번에는 교우들의 열망에 부응코자 모교 운동장에서 시행하였다.**



작년 10월 9일(토), 유난히도 하늘은 푸르고 대기는 청량하였다. **제 18회 휘문체육대회**에 참가하고자 오랜만에 찾아 온 모교의 기운이 맑고 좋은 날씨와 어우러져 교우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마당은 아직도 여전히 흙바닥이었고, 운동장은 야구 연습 시설과 농구장 설치로 전보다 훨씬 좁고 불편하였으나 교우들과 가족들을 만나 어울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직하였다.

참석한 1,000여명의 교우들과 가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테마 이벤트, 게임, 명랑운동회, 족구시합, 장기자랑 및 행운권 추첨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겼고, 점심과 간식도 충분히 준비하여 하루를 즐기면서 그동안 못 다 했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간간이 청백팀을 나누어 응원도 하고, 가족들의 림보 게임에 웃기도 하고, 뛰어 나가 족구 시합에 참여도 하고, 아름답고 멋진 음악과 댄스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면서… 우리 휘문인들만의 아름답고 멋진 한 마당의 축제가 아니었던가!!

교우회를 도와 주관하는 72회 동기회는 2개월간의 준비도 부족한 듯 당일에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였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62회와 82회 동기회도 이에 뒤질세라 적극적으로 돕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처리해 주었다.

2011년 제 19회 체육대회에서 또 다른 새로운 홈커밍 축제를 기대하며서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다. 협조해 주신 재단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족구시합


골프게임


네일아트


맥주마시기시합


페이스페인팅


풍선불어 기둥세우기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0 페이지 16



# 제 18회 체육대회 수입/지출 현황

(단위 : 원)

| 수입 지부 | | 지출 지부 | |
|---|---|---|---|
| 적 요 | 금 액 | 적 요 | 금 액 |
| ※기별분담금 | 18,000,000 | 이벤트 비용 | 21,717,000 |
| 찬조금 | 42,550,000 | 기념품 | 14,460,000 |
| 참가비(행운권포함) | 13,960,000 | 도시락 대금(조식포함) | 5,842,800 |
| 기별 도시락 주문 | 4,812,000 | 참가다수 기수상 | 500,000 |
| 09년도기별분담금-75회 | 500,000 | VIP제공음식및주류대 | 2,120,000 |
| | | 비닐봉투,행운권제작비 | 1,070,000 |
| | | 초청장(9,000부) | 1,400,000 |
| | | 사진촬영 | 300,000 |
| | | 쓰레기통,주차라인 | 237,000 |
| | | 화장지,쓰레기봉투 | 154,200 |
| | | 기타잡비 | 129,000 |
| | | 이월금 | 30,360,000 |
| | | 제17회 체 · 대 잡비 | 1,532,000 |
| 합 계 | 79,822,000 | 합 계 | 79,822,000 |

※주관기수(72회) 6,000,000원, 51~58회 각 500,000원

# 제 18회 체육대회 협찬상품

(단위 : 원)

| 기수 | 성 명 | 물 품 | 수 량 | 금 액(시가) |
|---|---|---|---|---|
| 61 | 정원조 | 축구공 | 30 | 1,000,000 |
| 61 | 이재백 | 포도씨유 | 70세트 | 1,000,000 |
| 62 | 최상택 | 3부 다이몬드반지 | | 2,000,000 |
| 64 | 박상호 | 캠코더 | 1개 | 1,000,000 |
| 66 | 설유성 | Pierre Cardin 양복 | 1매 | 700,000 |
| 67 | 이광호 | 2부 재즈댄스공연 | 30분 | 2,000,000 |
| 68 | 조태원 | 프린터 | 3대 | 450,000 |
| 68 | 김세호 | 김영주골프웨어 | 20 | 2,000,000 |
| 71 | 이상봉 | 썬글라스 | 6개 | 2,160,000 |
| 72 | 72회일동 | 진행물품찬조 | 치약, 비누, 한방차, 문화상품권 | 1,000,000 |
| 72 | 조남권 | 시계 | 50개 | 2,500,000 |
| 73 | 양동흡 | 숙취해소제 | 180개 | 400,000 |
| 73 | 송 표 | 힐밤(각질제거) | 140개 | 1,680,000 |
| 82 | 최승호 | 참치회(머리) | 1마리 | 1,000,000 |
| | 휘문골프회 | 행사시상품外 | | 3,284,000 |
| | | 합 계 | | 22,174,000 |

# 제 18회 체육대회 후원금 명단

(단위 : 원)

| 기 수 | 이 름 | 금 액 | 기 수 | 이 름 | 금 액 |
|---|---|---|---|---|---|
| 교우회장 | 신흥우(59) | 5,000,000 | 60 | 육동수 | 500,000 |
| 휘문의숙 | 민인기 이사장 | 3,000,000 | 61 | 이승권 | 500,000 |
| 휘문고 | 김선창 교장 | 300,000 | 61 | 백정기 | 300,000 |
| 휘문중 | 박문규 교장 | 300,000 | 61 | 김홍일 | 500,000 |
| 명예회장 | 장충식(44) | 500,000 | 62 | 동기회 | 2,000,000 |
| 명예회장 | 김병희(43) | 3,000,000 | 63 | 이원근 | 300,000 |
| 명예회장 | 권혁홍(53) | 3,000,000 | 65 | 유상현 | 300,000 |
| 야후회 회장 | 문규영(62) | 3,000,000 | 66 | 홍승표 | 300,000 |
| 43 | 홍순하 | 100,000 | 66 | 김진용 | 300,000 |
| 49 | 김철영 | 100,000 | 66 | 윤영진 | 300,000 |
| 49 | 공진식 | 500,000 | 67 | 김연수 | 500,000 |
| 49 | 김정원 | 200,000 | 67 | 김응구 | 500,000 |
| 49 | 김택준 | 100,000 | 67 | 윤석남 | 300,000 |
| 49 | 신언필 | 100,000 | 68 | 정인권 | 500,000 |
| 49 | 박용이 | 100,000 | 68 | 이남진 | 300,000 |
| 49 | 차기원 | 100,000 | 70 | 정재호 | 500,000 |
| 49 | 이현택 | 100,000 | 70 | 임두묵 | 500,000 |
| 49 | 강덕영 | 100,000 | 70 | 임경섭 | 300,000 |
| 49 | 유재근 | 100,000 | 71 | 위성운 | 300,000 |
| 49 | 하낙순 | 100,000 | 71 | 양희봉 | 1,000,000 |
| 49 | 이승구 | 50,000 | 71 | 장원근 | 500,000 |
| 49 | 김정회 | 50,000 | 72 | 김운오 | 500,000 |
| 49 | 윤창배 | 50,000 | 73 | 이재황 | 500,000 |
| 50 | 김정만 | 100,000 | 73 | 이상용 | 500,000 |
| 51 | 안명근 | 200,000 | 73 | 유동화 | 500,000 |
| 52 | 김현수 | 200,000 | 73 | 민철규 | 200,000 |
| 53 | 성정헌 | 500,000 | 76 | 최병현 | 300,000 |
| 53 | 신호철 | 100,000 | 77 | 조민식 | 300,000 |
| 53 | 정성호 | 200,000 | | 경기중부 | 300,000 |
| 53 | 이강우 | 200,000 | | 휘언회 | 500,000 |
| 54 | 이사회 | 200,000 | | 경기남부 | 500,000 |
| 54 | 산악회 | 100,000 | | 경기북부 | 300,000 |
| 54 | 이진강 | 200,000 | | 휘문IT회 | 300,000 |
| 55 | 장호성 | 300,000 | | 휘정회 | 300,000 |
| 56 | 조기웅 | 200,000 | | 휘법회 | 300,000 |
| 56 | 장용이 | 100,000 | | 희중회 | 1,000,000 |
| 58 | 박형재 | 300,000 | | 휘건회 | 500,000 |
| 58 | 조현행 | 300,000 | | 휘영회 | 300,000 |
| 58 | 최희유 | 300,000 | | 휘산회 | 500,000 |
| 59 | 변동철 | 500,000 | | 휘문골프회 | 500,000 |
| | ( 소 계 ) | 23,950,000 | | ( 소 계 ) | 18,600,000 |
| | | | | 합 계 | 42,550,000 |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후원금을 납부해 주시고, 상품협찬을 해 주신 단체와 교우님들께 더욱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 첫 야구후원의 밤 열어 100년 묵은 숙원 풀다!

100년 묵은 숙원이었던 휘문야구후원회(휘야후) 결성을 해결한 휘문인들의 발걸음은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후원회장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배 야구대회 우승의 결실을 거둔 후 후원금 약정, 부회장단 결성 및 후원금 입금의 빠른 행보를 하더니 계획대로 야구후원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시즌 후의 마무리 훈련 일정까지 감안하여 2011년 새해를 며칠 앞둔 12월 27일(월) 저녁 350여명의 휘문 교우와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대강당에서 역사적인 "제1회 휘문 야구후원의 밤" 이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후원금 전달– 휘야후 문규영 회장, 김선창 교장




**건배 – 휘문 야구 우승을 위하여** 김선창 교장, 민인기 재단이사장, 신흥우 교우회장, 문규영 회야후 회장, 권혁홍 명예 회장, 이명섭 감독

축하 공연–걸스데이





축하 공연–난타

전문 MC 정지원의 사회로 막을 올린 후에 휘야후는 대통령배 우승 영상 및 각계 각층 유명인들의 축하 메세지와 연예인들의 공연을 통해 모교 선수들과 모교 출신 프로야구 선수들을 위로하였으며, 박용택, 김선우 등 스타급 선수들은 갈고 닦은 노래 솜씨로 화답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무르익은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 문규영 휘야후 회장은 모교 김선창 교장에게 전력 상승의 핵심 과제인 대만 동계훈련을 지원코자 3천만원의 야구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감독과 모든 모교 선수들은 우승을 향한 힘찬 파이팅으로 화답하였다.

인당 10만원의 유료 입장과 프로 선수 싸인 볼, 프로 선수 싸인 야구 배트 등의 구입을 통해 또 다른 후원을 한 교우들은 캠코더, 한약 및 보석 등을 상품으로 내 건 행운권 추첨을 끝까지 기다리고 즐기면서 한 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는 기쁨을 만끽하였다. 내년에는 더 좋은 모교 야구부의 성적과 더 풍성하고, 더 기쁜 후원의 밤이 있게 되기를 마음껏 기대하며…….



선수들과 교우들의 합창–씩씩하다 우리는 휘문의 건아



화답의 노래 – 김선우 교우



휘야후 임원진. 수고하셨어요!



화답의 노래–박용택 교우



구호! 시~작!
응원단장 나병웅 교우와 함께

## 다함께 煽文 더까까이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0 페이지 20



# 2010년도 야구후원회 특별회계

(단위 : 원)

| 수입 지부 | | 지출 지부 | |
|---|---|---|---|
| 적 요 | 금 액 | 적 요 | 금 액 |
| 문규영 야구후원회장 | 200,000,000 | 휘문장학회기금 출연 | 200,000,000 |
| 민인기 재단이사장 | 10,000,000 | 우승 격려금 | ※20,000,000 |
| 신흥우 교우회장 | 10,000,000 | 출범식 행사 비용 | 1,200,000 |
| 문규영 회장 우승격려금 | 10,000,000 | 후원회 약정서 인쇄비 | 330,000 |
| 홍순하(43회) 外 후원금 – 2010년 | 14,150,000 | 회보용 CD제작비용 | 2,950,000 |
| 부회장 곽병헌(62회) 外 – 2010년 | 41,000,000 | 동영상 편집비용 | 1,500,000 |
| 휘야후의밤 참가비 | 26,850,000 | 운동용품 후원(야구부) | ※1,500,000 |
| 야구용품 수익금 | 5,210,000 | 부회장단 회의비 | 206,500 |
| 수입이자 | 8,074 | 사무용품 및 잡비 | 800,000 |
| | | 교우회 행정보조비 | 6,000,000 |
| | | 휘야후의밤 무대장치비 | 10,000,000 |
| | | 식음료대 | 10,000,000 |
| | | 초대가수 출연료 | 3,000,000 |
| | | MC및 매직쇼 출연료 | 800,000 |
| | | 주유대 | 800,000 |
| | | 주차 및 청소 수고비 | 300,000 |
| | | 팜플렛인쇄및로고제작비 | 4,000,000 |
| | | 점퍼제작및용품구입비 | 3,873,000 |
| | | 야구후원금 | ※30,000,000 |
| | | 소 계 | 297,259,500 |
| | | 차기이월 | 19,958,574 |
| 합 계 | 317,218,074 | 합 계 | 317,218,074 |

※야구후원금 51,500,000원

행사를 위해 협찬하고 찬조해 주신 모든 교우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학교 관계자들과 교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휘문교우회보 큰사람 65호의 발행을 축하 드립니다 67회 동기회

**연회비(5만원), 평생회비(백만원) 입금 계좌**

**국민은행** 470301-01-054235 **김연수** (휘문 67 동기회)

**소그룹 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휘공회** 등산 회장 이종신 총무 오세헌
- ■**광화문 포럼** 회장 함영준 간사 전영옥
- ■**휘공당** 당구 회장 김동식, 간사 김기국
- ■**대전지회** 간사 김홍수
- ■**67골프회** 회장 장도형 총무 김석현
- ■**바둑동호회** 간사 김기국
- ■**여의도시대** 회장 김양수, 이상진 총무 박두원, 오홍조

# 야구후원회 약정 및 입금 현황 2010. 12. 31현재

(단위 : 원)

| 기수 | 성명 | 약정금액 | 입금확인 |
|---|---|---|---|
| 62 | 문규영 | 200,000,000 | 200,000,000 |
| 53 | 권혁홍 | 10,000,000 | |
| 59 | 신흥우 | 10,000,000 | |
| 민인기이사장 | | 10,000,000 | 10,000,000 |
| 43 | 홍순하 | 1,000,000 | 100,000 |
| 47 | 곽창선 | 100,000 | 100,000 |
| 49 | 김재헌 | 100,000 | 100,000 |
| 49 | 김철영 | 500,000 | 100,000 |
| 49 | 라종호 | | 500,000 |
| 49 | 허 동 | | 100,000 |
| 51 | 동기회 | | 1,000,000 |
| 51 | 한기성 | 100,000 | 100,000 |
| 52 | 오세갑 | 300,000 | |
| 53 | 윤석구 | 1,000,000 | 100,000 |
| 54 | 민병소 | 1,000,000 | 100,000 |
| 54 | 윤정의 | 500,000 | 300,000 |
| 54 | 윤형규 | 100,000 | 100,000 |
| 54 | 조복연 | 600,000 | 400,000 |
| 54 | 오덕복 | 50,000 | |
| 54 | 이종해 | 200,000 | 200,000 |
| 54 | 이재일 | | 100,000 |
| 55 | 김홍규 | 100,000 | 100,000 |
| 55 | 차인태 | | 1,000,000 |
| 56 | 김세웅 | 100,000 | |
| 56 | 서갑수 | 120,000 | |
| 56 | 이상균 | | 100,000 |
| 56 | 장용이 | 1,000,000 | 1,000,000 |
| 56 | 황경연 | 120,000 | |
| 57 | 안효섭 | 1,000,000 | 1,000,000 |
| 58 | 이경순 | 500,000 | 500,000 |
| 58 | 조현행 | | 100,000 |
| 59 | 김동선 | | 1,000,000 |
| 59 | 김장수 | | 1,000,000 |
| 59 | 남해복 | | 300,000 |
| 59 | 박성환 | 30,000 | 30,000 |
| 59 | 안덕환 | 1,000,000 | 250,000 |
| 59 | 임종식 | | 300,000 |
| 59 | 홍석래 | | 500,000 |
| 60 | 김익원 | 100,000 | |
| 60 | 라병웅 | 100,000 | |
| 61 | 이광섭 | 1,000,000 | 200,000 |
| 61 | 이승열 | 1,100,000 | 100,000 |
| 62 | 곽병헌 | 1,000,000 | 1,000,000 |
| 62 | 오세현 | 100,000 | |
| 62 | 이승도 | 100,000 | |
| 62 | 김재철 | 1,000,000 | 500,000 |
| 62 | 김태형 | 100,000 | 20,000 |
| 62 | 백철기 | 500,000 | 100,000 |

| 기수 | 성명 | 약정금액 | 입금확인 |
|---|---|---|---|
| 62 | 한기선 | | 1,000,000 |
| 62 | 허 은 | | 1,000,000 |
| 63 | 김효재 | | 1,000,000 |
| 63 | 김현수 | 500,000 | |
| 63 | 오창관 | | 1,000,000 |
| 63 | 이원근 | 1,000,000 | 1,000,000 |
| 64 | 김중헌 | 1,100,000 | 1,100,000 |
| 64 | 이창수 | | 1,000,000 |
| 64 | 박상호 | 1,100,000 | 1,100,000 |
| 64 | 박종한 | 100,000 | |
| 64 | 박상원 | 100,000 | |
| 64 | 김종서 | 50,000 | 50,000 |
| 64 | 문운학 | 50,000 | |
| 64 | 장기선 | 100,000 | |
| 64 | 황정렬 | 100,000 | 100,000 |
| 64 | 정문용 | 100,000 | |
| 64 | 박수익 | 100,000 | 100,000 |
| 64 | 한규승 | 50,000 | |
| 64 | 민태홍 | 100,000 | 100,000 |
| 64 | 임성세 | 100,000 | |
| 64 | 이종식 | 100,000 | 100,000 |
| 64 | 이상칠 | 100,000 | |
| 64 | 손병락 | 100,000 | |
| 64 | 이훈용 | 100,000 | |
| 64 | 조영래 | 100,000 | |
| 64 | 최진환 | 100,000 | |
| 64 | 허형호 | 100,000 | |
| 64 | 권수영 | 100,000 | |
| 65 | 박찬보 | 300,000 | |
| 65 | 이용주 | 100,000 | 100,000 |
| 65 | 이충희 | | 3,000,000 |
| 66 | 강 원 | | 1,000,000 |
| 66 | 김진용 | | 1,000,000 |
| 66 | 신우식 | 50,000 | |
| 66 | 홍성호 | | 1,000,000 |
| 67 | 김응구 | | 500,000 |
| 67 | 김양진 | | 1,000,000 |
| 67 | 김연수 | | 1,000,000 |
| 67 | 김홍수 | 240,000 | 240,000 |
| 67 | 이상진 | 50,000 | |
| 67 | 주승빈 | 50,000 | |
| 67 | 윤석남 | 300,000 | 300,000 |
| 67 | 이광호 | | 1,000,000 |
| 67 | 임창호 | 500,000 | 100,000 |
| 67 | 장원식 | 100,000 | 100,000 |
| 67 | 전영옥 | 200,000 | |
| 68 | 신승열 | | 1,000,000 |
| 68 | 이남진 | | 1,000,000 |

| 기수 | 성명 | 약정금액 | 입금확인 |
|---|---|---|---|
| 68 | 이호성 | | 100,000 |
| 68 | 조태원 | | 1,000,000 |
| 69 | 우종환 | | 1,000,000 |
| 70 | 박대호 | | 1,000,000 |
| 70 | 박병준 | 300,000 | |
| 70 | 임두묵 | | 1,000,000 |
| 71 | 신동범 | 50,000 | |
| 71 | 신성수 | 100,000 | 100,000 |
| 71 | 윤진환 | | 1,000,000 |
| 71 | 이상봉 | | 1,000,000 |
| 71 | 장원근 | | 1,000,000 |
| 71 | 장영민 | | 1,000,000 |
| 72 | 김태조 | | 1,000,000 |
| 72 | 최영호 | | 200,000 |
| 72 | 고치우 | | 1,000,000 |
| 72 | 김은수 | | 100,000 |
| 72 | 김현수 | | 1,000,000 |
| 73 | 노준호 | | 1,000,000 |
| 73 | 유동화 | 200,000 | 200,000 |
| 73 | 이상용 | 500,000 | 1,000,000 |
| 73 | 이재황 | | 1,000,000 |
| 73 | 정성문 | 200,000 | |
| 74 | 곽승열 | | 1,000,000 |
| 74 | 이상욱 | 200,000 | |
| 74 | 양한수 | | 1,000,000 |
| 75 | 이기석 | | 1,000,000 |
| 80 | 강민석 | 50,000 | |
| 80 | 김민석 | | 1,000,000 |
| 80 | 김진혁 | 50,000 | |
| 80 | 민성욱 | 10,000 | |
| 80 | 백승환 | 50,000 | |
| 80 | 이상민 | 50,000 | |
| 80 | 조성욱 | 30,000 | |
| 80 | 최준석 | 50,000 | |
| 80 | 현동열 | 100,000 | |
| 80 | 홍성민 | 30,000 | |
| 81 | 임희연 | | 1,000,000 |
| 81 | 최홍섭 | 10,000 | 10,000 |
| 82 | 한태호 | 100,000 | 100,000 |
| 82 | 허 민 | 100,000 | 1,000,000 |
| 83 | 김재명 | | 1,000,000 |
| 96 | 조준모 | 100,000 | |
| ? | | | 50,000 |
| | TOTAL | 254,240,000 | 265,350,000 |

※문규영 회장 우승격려금 ₩10,000,000 별도

※신흥우 회장 우승격려금 ₩10,000,000 별도

※₩265,350,000에서 ₩200,000은 부가세포함됨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0 페이지 22



## 휘야후 2011년도 사업계획

# 야구 열정 담긴 후원금 지원

휘야후는 출범 첫해인 작년에 이어 2011년에도 의욕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 45명이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교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모금을 할 계획이다. 물론 일반 교우들에 대한 전반적인 야구후원의 저변확대를 위해 후원금 약정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연간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모교 야구부에는 작년 지원액 51,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날 짜 | 행 사 | 내 용 | 주관 | 비 고 |
|---|---|---|---|---|
| 1월 | 평가회 | 야구후원의 밤 | 홍성호 간사 | |
| 2월 16일 | 부회장단 저녁 모임 | | 홍성호 간사 | 3째주 수요일 |
| 3월 16일 | 골프 모임 | 안성Q | 이광호 회장 | |
| 4월 16일 | 산행 모임 | | 이남진 회장 | |
| 5월 18일 | 부회장단 저녁 모임 | | 홍성호 간사 | 3째주 수요일 |
| 6월 15일 | 골프 모임 | 안성Q | 이광호 회장 | |
| 7월 16~17일 | 산행 모임 | 지리산 둘레길 | 이남진 회장 | |
| 8월 | 휴가철 | | | |
| 9월 21일 | 부회장단 저녁모임 | | 홍성호 간사 | 3째주 수요일 |
| 10월 19일 | 골프 모임 | 안성Q | 이광호 회장 | |
| 11월 30일 | 후원의 밤 및 송년회 | 모교 강당 | 문규영 회장 | |

- 휘야후골프회 : 회장 이광호(67), 총무 노준호(73), 부총무 김민석(80)
- 휘야후산악회 : 회장 이남진(68), 총무 이재황(73), 부총무 허 민(82)

한편 휘야후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회장 4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재정적인 면뿐아니라 야구 후원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고조시키는 일까지 거의 중요한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는 휘야후 부회장단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홍성호 교우(66회)와 사무국의 신윤식 교우(72회), 정성문 교우(73회), 안태준 교우(80회)의 수고를 잊지 않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WBS
WHIMOON BASEBALL SPONSORS
휘문 야구후원회

## 휘야후 부회장단 명단

| 이 름 | 기수 | 비 고 |
|---|---|---|
| 한기선 | 62회 | 두산 인프라코어 COO |
| 허 은 | 62회 | 성형외과 원장 |
| 곽병현 | 62회 | 사업 |
| 김효재 | 63회 | 국회의원 |
| 오창관 | 63회 | POSCO 부사장 |
| 이원근 | 63회 | (주)선원동출 대표이사 |
| 박상호 | 64회 | (주)미토 대표이사 |
| 이창수 | 64회 | 광성실업(주) 대표이사 |
| 김중헌 | 64회 | (주)이라이컴 회장 |
| 이충희 | 65회 | ETRO 회장 |
| 김진용 | 66회 | 삼성출판사 대표 |
| 홍성호 | 66회 | 큐햄튼 대표, 휘야후 간사 |
| 강 원 | 66회 | 우리은행 부행장 |
| 이광호 | 67회 | PMC 대표 |
| 김양진 | 67회 | 우리은행 부행장 |
| 이남진 | 68회 | 변호사 |
| 조태원 | 68회 | 일야하이텍 대표 |
| 신승열 | 68회 | 태극 Horse Park 대표이사 |
| 우종환 | 69회 | 회계사 |
| 박대호 | 70회 | 스포츠토토 대표이사 |
| 임두묵 | 70회 | 한국코아사 대표 |
| 윤진환 | 71회 | 골프장 대표 |
| 장영민 | 71회 | 요식업 |
| 이상봉 | 71회 | (주)다리인터네셔날 대표이사 |
| 장원근 | 71회 | (주)세원화학 대표이사 |
| 김태조 | 72회 | (주)남양마르스 대표이사 |
| 김현수 | 72회 | 김현수한의원 원장 |
| 윤철한 | 72회 | (주)하성씨엔아이 대표이사 |
| 고치우 | 72회 | 코스모스출장부페 대표이사 |
| 노준호 | 73회 | (주)씨앤에스 대표 |
| 이재황 | 73회 | 프라임치과 원장 |
| 이상용 | 73회 | 변호사 |
| 석호영 | 73회 | |
| 김장수 | 74회 | GnB교육그룹 회장 |
| 양한수 | 74회 | (주)삼인 대표이사 |
| 곽승열 | 74회 | 요식업 |
| 이기석 | 75회 | 스카이랜드 대표 |
| 최세학 | 76회 | 변호사 |
| 노근래 | 76회 | (주)장강 대표이사 |
| 하 령 | 79회 | 변호사 |
| 김민석 | 80회 | 아나운서(주) 대표이사 |
| 안태준 | 80회 | (주)씨디캠프 전략경영실장, 사무차장 |
| 임희연 | 81회 | 임성축산물공판장 |
| 허 민 | 82회 | (주)엘로스톤 대표이사 |
| 김재명 | 83회 | 합동고분자(주) 대표이사 |

**사무차장** 신윤식(72회), 정성문(73회), 안태준(80회)

(절취선)

## 휘문고등학교 야구후원회

# 후원금 약정서(후원회 제출용)

본인은 휘문고등학교 야구부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 약 정 액 : 일금 _____ 원정 [총액]
- 약정 구좌수 및 기간(1구좌 : 연간 10,000원)

  (　　)구좌 (　　)년간 [　　년~　　년]
- 약정인

· 성 명 : _____ (서명/인) · 졸업 회수 : ____회

· 전화 · 핸드폰 : _____

- 제출 방법 : 우편 발송 또는 FAX 02-3486-6737
- 납부 방법

· 은행 계좌 납부 : 하나은행 224-910040-92204

계좌명 : 휘문교우회 야구후원회

20　　年　　月　　日

**徽文高等學校 野球後援會 會長 貴下**

**〈기 제출 교우는 증액 등의 사유로 수정할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절취선)

## 휘문고등학교 야구후원회

# 후원금 약정서(후원자 보관용)

본인은 휘문고등학교 야구부 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 약 정 액 : 일금 _____ 원정 [총액]
- 약정 구좌수 및 기간(1구좌 : 연간 10,000원)

  (　　)구좌 (　　)년간 [　　년~　　년]
- 약정인

· 성 명 : _____ (서명/인) · 졸업 회수 : ____회

· 전화 · 핸드폰 : _____

- 제출 방법 : 우편 발송 또는 FAX 02-3486-6737
- 납부 방법

· 은행 계좌 납부 : 하나은행 224-910040-92204

계좌명 : 휘문교우회 야구후원회

20　　年　　月　　日

**徽文高等學校 野球後援會 會長 貴下**

**〈기 제출 교우는 증액 등의 사유로 수정할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존경하는 4만여 휘문교우님께!

교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작년 정기총회에서 제가 야구후원회 회장으로 추대 받자마자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5월에 모교 야구부가 대통령배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야구후원회가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후원회의 소식만 갖고도 우승을 한 모교 야구부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통의 강호 휘문 야구의 명성을 세상에 드높이는 한편, 야구후원회의 운영진을 자극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참으로 기뻤습니다.

휘야후에서는 이에 부응하고자 우승 축하연을 열어 모교에 축하금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 휘야후의 밤에서는 대만 전지 훈련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1백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한 45명의 부회장들과 적은 금액이나마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납부해 주신 많은 교우님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가능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휘야후는 금년에도 변함없이 모교 야구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후원 약정을 계속해서 받고자 합니다. 작년에 약정해 주신 교우님들께서는 금년에도 후원금을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약정을 하지 않은 교우님들께서는 본 "후원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우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모교 야구부는 전력이 작년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이 부임한 이명섭 감독의 지략과 리더쉽에 더하여 휘야후의 지원과 교우님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충분히 우승권에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년에도 또 다시 야구장에서 우승의 축배를 드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교우님들과 함께 껴안고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휘문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1. 4. 7

휘문야구후원회 회장 문규영(62회)



(절취선)




## 존경하는 4만여 휘문교우님께!

교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작년 정기총회에서 제가 야구후원회 회장으로 추대 받자마자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5월에 모교 야구부가 대통령배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야구후원회가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후원회의 소식만 갖고도 우승을 한 모교 야구부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통의 강호 휘문 야구의 명성을 세상에 드높이는 한편, 야구후원회의 운영진을 자극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참으로 기뻤습니다.

휘야후에서는 이에 부응하고자 우승 축하연을 열어 모교에 축하금 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 휘야후의 밤에서는 대만 전지 훈련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1백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납부한 45명의 부회장들과 적은 금액이나마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납부해 주신 많은 교우님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가능했음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휘야후는 금년에도 변함없이 모교 야구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후원 약정을 계속해서 받고자 합니다. 작년에 약정해 주신 교우님들께서는 금년에도 후원금을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약정을 하지 않은 교우님들께서는 본 "후원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우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모교 야구부는 전력이 작년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이 부임한 이명섭 감독의 지략과 리더쉽에 더하여 휘야후의 지원과 교우님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충분히 우승권에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년에도 또 다시 야구장에서 우승의 축배를 드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교우님들과 함께 껴안고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그날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휘문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1. 4. 7

휘문야구후원회 회장 문규영(62회)

www.whimoonob.net


(절취선)

# 2011년 고교야구 주말리그에 대하여…



2011년 한국의 고교야구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학기 중에 수업에 관계없이 훈련과 시합을 하던 방식 에서 주중 수업, 수업 후 훈련 및 주말과 방학 중 시합이라는 주말리그제로 완벽한 탈바꿈을 하게 된다.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전반기에는 동일한 지역 내의 팀들끼리만 시합을 하고, 하반기에는 다른 지역의 팀들과 교차해서 시합을 하게 된다.

당초 작년까지 기본틀이었던 중앙 4개 대회 황금사자기, 대통령배, 청룡기, 봉황대기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는데, 일정을 보니 전반기 왕중왕전이라는 이름으로 황금사자기를, 하반기 왕중왕전이라는 이름으로 청룡기를 개최하고, 모든 주말리그 일정이 끝난 후에 기존방식대로 1주일에 걸쳐 대통령배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통령배가 예외적으로 주말리그를 벗어나는 것은 학생들의 여름방학 중이라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몇 년간 수원구장에서 열렸던 봉황대기, 그리고 지방대회들 대붕기, 화랑기, 무등기, 미추홀기이 폐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주말리그의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우리나라 아마야구도 그렇게 가야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다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때 나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초중고에서 줄곧 야구를 한 학생이 야구로 대학진학을 못할 때 남들과 같이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며, 이런 부분은 평일에 학교수업에 참여시키고 주말에만 야구를 하게끔 제도를 변경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또한 전반기에 동일권역을 나눠놓았는데, 각 리그의 평준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해 왕중왕전과 전국대회를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가가 생각해야 할 숙제이며, 주말에만 고교야구를 한다면 TV중계가 더 없어지면서 오히려 더 무관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 2011년도 고교야구대회 일정 요약

01 **2011년도 고교야구 전반기 주말리그(동일권)** 2011. 3. 26 ~ 2011. 4. 24
서울권 같은 A조 소속팀간의 경기 | 목동 · 신월 · 구의 야구장 | A조 7팀 중 1~4위 전반기 왕중왕전에 진출

02 **제6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전반기 왕중왕전** 주말에만 경기
2011. 5. 14 ~ 2011. 6. 6 전국 권역별 진출팀 29개 학교 출전, 목동 야구장

03 **2011년도 고교야구 하반기 주말리그(광역권)** 2011.6.11 ~ 2011. 7. 25
다른 B조와의 경기 | 목동 · 신월 · 구의 야구장 | A조 7팀 중 1~4위 하반기 왕중왕전에 진출

04 **제66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하반기 왕중왕전** 방학 중 매일 경기
2011. 7. 30 ~ 2011. 8. 6 전국 권역별 진출팀 29개 학교 출전, 목동 야구장

05 **제45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방학 중 매일 경기
2011. 8. 22 ~ 2011. 8. 27 목동야구장, 전국 모든 학교 참가 가능, 과거 봉황대기 성격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1 페이지 26



# 휘문고의 경기는 어떻게?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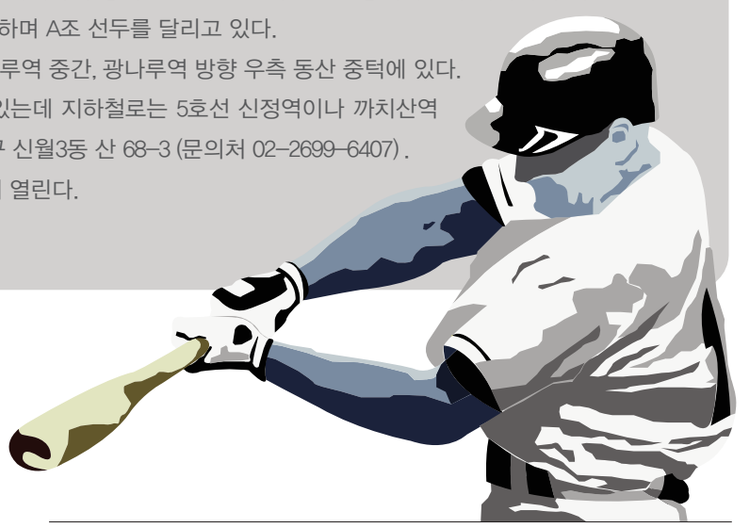
서울권 A조에 속하여 전반기에 같은 조의 신일, 충암, 경기, 선린, 중앙, 배재를 대상으로 6경기를 하게 된다. 4위까지 주어지는 왕중왕전 진출을 무난히 획득하려면 4승을 거두어야 한다.
언론에서는 3강 2중 2약이라 하여 충암, 신일, 경기를 3강, 휘문, 배재를 2중, 선린, 중앙을 2약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찬규, 박성민이 졸업한 마운드를 우완 박남진과 사이드 암 박상남이 얼마나 메워줄 수 있느냐가 숙제다.
박민우, 박일우, 강양규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이 어느 팀에 못지 않으며, 특히 수비와 기동력이 좋고 야구에 대한 센스가 있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낼 다크호스로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4번 타자 유격수 박민우의 활약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작년 대통령배 우승 시 1학년으로서 결승타를 친 영웅, 최윤혁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해 볼 수 있겠다. 대만과 부산의 전지훈련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덕장인 이명섭 감독의 지도력과 실력 있는 코치진들의 컴퓨터 같은 작전 지시 및 우승팀의 일원이라는 선수들의 의욕과 자부심 그리고 맞춤 동계훈련으로 부쩍 향상된 실력과 작전 수행 능력에 기대를 걸어 본다.

02

하반기에는 주말리그 광역권 경기로 B조와 경기를 하게 된다. B조에는 서울, 장충, 덕수, 배명, 성남, 청원, 경동 등 7개 팀이 소속되어 있다. B조도 3강(서울, 장충, 덕수), 2중(배명, 성남), 2약(청원, 경동)으로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3강으로 분류되는 팀의 전력은 역시 훨씬 뛰어 나다고 평가되고 있다.
장충고는 지난해 황금사자기에서 준우승을 했고, 덕수고는 지난해 황금사자기대회 우승과 대통령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서울고 역시 단골 우승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2009 서울 추계리그 준우승을 포함하여 지난 해에도 전국대회 4강 문턱에서 주저 앉았던 기억을 안고 만만치 않게 도전하고 있다.

03

휘문은 3월 26일(토) 11시에 구의야구장에서 배재와의 경기를 11:1 콜드게임으로 승리하면서 화려하게 시즌을 열었다. 4월 2일에는 신일에 2:1로 승리하며 A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구의야구장은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과 광나루역 중간, 광나루역 방향 우측 동산 중턱에 있다.
신월야구장은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부근에 있는데 지하철로는 5호선 신정역이나 까치산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며, 주소는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산 68-3 (문의처 02-2699-6407).
또한 왕중왕전과 전국대회는 목동야구장에서 열린다.



# 2011년도 고교야구대회 세부일정

※ 서울권 A : 휘문고, 배재고, 신일고, 중앙고, 충암고, 선린인터넷고, 경기고
※ 서울권 B : 장충고, 배명고, 성남고, 경동고, 서울고, 청원고, 덕수고
※ 경기장 : 목동야구장, 신월야구장, 구의야구장

| 권 역 | 일자 | | 10:00 | 12:30 | 15:00 | 구장 |
|---|---|---|---|---|---|---|
| 동일권 | 3월 | 26 | **휘문** : 배재 | 충암 : 선린인터넷 | 신일 : 중앙 | 구의 |
| | | 27 | 장충 : 배명 | 서울 : 청원 | 성남 : 경동 | 구의 |
| | 4월 | 2 | 신일 : **휘문** | 중앙 : 배재 | 경기 : 충암 | 구의 |
| | | 3 | 성남 : 장충 | 경동 : 배명 | 덕수 : 서울 | 구의 |
| | | 9 | 선린인터넷 : 경기 | **휘문** : 중앙 | 배재 : 신일 | 신월 |
| | | | 청원 : 덕수 | 장충 : 경동 | 배명 : 성남 | 구의 |
| | | 10 | 선린인터넷 : 배재 | 경기 : 신일 | 충암 : **휘문** | 구의 |
| | | | 청원 : 배명 | 덕수 : 성남 | 서울 : 장충 | 신월 |
| | | 16 | 중앙 : 경기 | 배재 : 충암 | **휘문** : 선린인터넷 | 신월 |
| | | | 경동 : 덕수 | 배명 : 서울 | 장충 : 청원 | 구의 |
| | | 17 | 충암 : 신일 | 경기 : **휘문** | 선린인터넷 : 중앙 | 구의 |
| | | | 서울 : 성남 | 덕수 : 장충 | 청원 : 경동 | 신월 |
| | | 23 | 중앙 : 충암 | 신일 : 선린인터넷 | 배재 : 경기 | 신월 |
| | | 24 | 경동 : 서울 | 성남 : 청원 | 배명 : 덕수 | 신월 |
| 5. 14 ~ 6. 6 (주말&공휴일) | | | **제6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 | | 목동야구장 |
| 광역권 | 6월 | 11 | **휘문** : 장충 | 배재 : 배명 | 신일 : 성남 | 구의 |
| | | 12 | 경동 : 중앙 | 충암 : 서울 | 선린인터넷 : 청원 | 구의 |
| | | 18 | 경기 : 덕수 | 배재 : 성남 | **휘문** : 배명 | 구의 |
| | | 19 | 충암 : 청원 | 경동 : 신일 | 서울 : 중앙 | 구의 |
| | | 25 | **휘문** : 성남 | 선린인터넷 : 덕수 | 장충 : 경기 | 신월 |
| | | 26 | 서울 : 신일 | 청원 : 중앙 | 경동 : 배재 | 신월 |
| | 7월 | 2 | 장충 : 선린인터넷 | 배명 : 경기 | 충암 : 덕수 | 신월 |
| | | 3 | 서울 : 배재 | 경동 : **휘문** | 청원 : 신일 | 신월 |
| | | 9 | 덕수 : 중앙 | 장충 : 충암 | 배명 : 선린인터넷 | 목동 |
| | | 10 | 성남 : 경기 | 서울 : **휘문** | 청원 : 배재 | 목동 |
| | | 16 | 배명 : 충암 | 덕수 : 신일 | 중앙 : 장충 | 목동 |
| | | 17 | 성남 : 선린인터넷 | 청원 : **휘문** | 경기 : 경동 | 목동 |
| | | 21 | 덕수 : 배재 | 신일 : 장충 | 중앙 : 배명 | 신월 |
| | | 22 | 선린인터넷 : 경동 | 성남 : 충암 | 경기 : 서울 | 목동 |
| | | 23 | 신일 : 배명 | 배재 : 장충 | 덕수 : **휘문** | 목동 |
| | | 24 | 충암 : 경동 | 중앙 : 성남 | 선린인터넷 : 서울 | 목동 |
| | | 25 | 경기 : 청원 | | | 목동 |
| 7. 30 ~ 8. 6 (방학중) | | | **제66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 | | 목동야구장 |

※ 제45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 8월 22일 ~ 8월 27일(목동야구장)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1 페이지 28



# 전문가들은 7팀 중 중위권 평가…
# 감독 속내는 **파란 일으켜 우승트로피**

**이명섭(75회)교우가 모교 야구팀 새사령탑에 올랐다.**
지난 겨울 갑작스런 전임 전형도 감독의 자리 이동으로 고등학교 감독 직의 결원이 생겼을 때만 해도
교우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재단과 선수 학부형회 그리고 야구후원회의 지지를 통한 이명섭 감독의 선임은
휘문 야구부의 현명한 선택으로서 새롭게 맞이하는 2011년 고등학교 야구 시즌의 전망을 밝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96년, 모교팀을 이끌고 대통령배와 청룡기 2개대회 우승까지 일궈낸 경력이 있어 올시즌 전망을 더욱 밝게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새로 부임하게 된 이명섭 감독을 만나 금년도 모교 야구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았다.
지난 1월을 대만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단 담금질에 전념한 이 감독의 구릿빛 얼굴에서 알찬 훈련결과가 엿보였다.



**이상진 편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새로 감독이 되시고 야구 시즌이 가까이 와서 바쁠 텐데 어려운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 부임과 더불어 코치 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섭 감독** 우선 투수를 조련하는 투수 코치로는 박만채 코치를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박 코치는 워낙 투수 조련에 정평이 나있고 성실해서 투수 코치 직을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또한 수비와 타격 코치는 경남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출신인 김진곤 코치를 모셔왔는데 고등학교 학생들과 대학 선수들을 지도한 다채로운 재능을 갖고 있는 유능한 코치입니다. 또한 뛰는 야구를 위해 휘문 출신인 오태근 코치를 추가로 주루 코치로 임명했습니다. 코치진들의 실질적인 지도가 금년도 성적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담 주루 코치를 영입하고 집중적인 주루 훈련을 통하여 달라진 휘문 야구를 선 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진 편집위원장** 대만 전지훈련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이명섭 감독** 모교의 좁은 운동장 사정과 중학교와 훈련을 같이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추운 겨울 날씨를 고려해 매년 따뜻한 곳을 찾아 전지훈련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 1월의 전지훈련 때에는 전력 급상승을 위해 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열성적인 코치 진들의 지도와 선수들의 자발적인 훈련으로 인해 상당한 전력 상승의 성과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돌아 온 후 국내 적응을 위해 실시한 9박 10일의 부산 전지 훈련 시에는 많은 대학 팀 및 타 고등학교 팀과 연습 게임을 했는데 대학 팀을 이기기도 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30일간의 해외 전지훈련이 조금 짧아서 내년부터는 40일 정도로 훈련 기간이 늘어 났으면 합니다.

**이상진 편집위원장** 대만 전지훈련을 통하여 전력이 나아졌다고 말씀하시니 안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의 야구부의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명섭 감독** 작년보다는 투수력이 열세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뛰는 야구와 작전 야구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야구는 변수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준비할수록 강자의 면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지훈련에서 전통적인 투수와 타격 능력 외에도 주루, 도루와 수비 및 작전 수행 부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팀과 붙어도 싸워 볼만한 전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더라도 쉽게 지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정신으로 상대를 많이 괴롭힐 생각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역전승을 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이상진 편집위원장** 금년부터는 고등학교 야구에 주말 리그제가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되고 주말 리그제에 임하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으신지?

**이명섭 감독** 저희 리그는 3월 26일(토) 11시 구의 야구장에서의 첫 게임을 시작으로 저희를 포함한 7개 팀이 각 6게임을 펼쳐 순위를 결정합니다. 서울권 A조에는 휘문, 신일, 충암, 경기, 선린, 중앙, 배재고 등이 소속되어 있는데 리그전을 통해 4위까지의 팀이 전국 29개 팀이 참가하는 전반기 왕중왕 전(황금사자기 대회 겸함)에 출전하게 됩니다. 적어도 4승정도는 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주말 리그제가 정착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훈련시켜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독으로서 작전 야구와 뛰는 야구를 펼쳐 우리 선수들의 자율적 판단 능력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경기를 하겠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진 편집위원장** 끝으로 향후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섭 감독** 물론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우승하겠습니다!" 이지요. 하하하!!! 그래서 3년 내에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생 선수들까지도 유심히 보고 스카우트를 잘 해서 장기적으로도 튼튼한 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의 프로 입단과 대학 진학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많은 교우님들께서도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재단 및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과 신흥우 교우회장님, 문규영 야구후원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우님들과 야구후원회 회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리 73회 정성문〉



## profile

**이명섭 감독**(휘문고 75회)은 경남대 대학원 수료 후 서울시 야구협회 심판을 역임하였고
춘천고등학교 감독(92~95), 휘문고등학교 감독(95~97), 강릉고등학교 감독(01~03)을 역임하였다.
이교우는 휘문고 감독으로 재임 중에 96년도 대통령배대회 우승과 청룡기대회 우승등 2관왕의 업적을 통해
그 탁월한 지도력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선수로 활약했던 박만채(전 LG, 현 휘문고 투수 코치), 오태근(LG, 현 휘문고 주루 코치), 손지환(전 LG, 기아, 한화),
이재우(두산, 투수), 정재훈(두산, 투수), 채상병(삼성, 포수), 박용택(LG, 4번타자, 1루수) 교우들과 함께 이룬 빛나는 업적은
휘문 야구사에 영원히 남을 살아 있는 역사가 되고 있다.

# 휘문 농구부여 비상하라

휘문 농구부는 1925년 창단되었다(86년 경력). 그 해 7월에 개최된 우리나라 최초의 농구경기인 전조선 농구대회에 출전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어 1928년에 전조선 중등학교 농구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 1931년 농구협회연맹전에서 우승, 1936년 전조선 종합경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일제의 강제 병합 속에서도 휘문 농구부는 조선인의 의기(義氣)와 민족혼(民族魂)을 일깨워 주었다.

광복 후, 전국체전과 전국남녀 종별선수권대회, 쌍룡기 전국고교농구대회 등에서 발군의 실력과 기량을 발휘한 본교 농구부는, 1960년대 아시아 농구를 장악하던 한국 농구의 전설적 인물 신동파(55회) 교우로부터 이병국(55회) 교우, 최희암(66회), 이민현(71회, 조선대 감독), 임달식(75회, 신한은행 감독), 김영주(80회, KDB생명 감독), 정인교(81회, 신세계 감독) 교우 등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하여 한국 농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국보급 선수 서장훈(85회), 현주엽(86회) 2000년대 방성윤(SK), 오용준(동양), 송창용(모비스), 2010년 청소년대표 김준일(연세대진학) 교우들의 활약으로 창단 100년 가까운 한국 농구의 명실상부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우승 실적이 없이 다소 침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많은 교우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11 대회일정

| 월 | 대회 | 비고 |
|---|---|---|
| 2월 | 춘계연맹전 | 학생체육관 |
| 4월 | 서울시장기 | 학생체육관 |
| 5월 | 협회장기 | 원주 |
| 6월 | 대통령기 | 학생체육관 |
| 7월 | 고대총장기 | 고대체육관 |







농구부는 작년 2010년 여름에 침체기를 극복하고자 프로 선수 출신인 석주일 감독(84회)를 맞이하여 명가 재건에 힘을 쏟고 있으며, 3년 안에 부활의 날개를 펼치고자 오늘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 야구후원회처럼 농구부후원회도 하루 빨리 결성되어 농구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현재 농구부에는 석주일 감독과 진상원 코치(93회) 아래 12명의 선수가 있는데 3학년 5명, 2학년 3명, 1학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학년이 다수일 때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 무리일까? 특히 3학년의 성기빈(포드), 양희수(포드 겸 센터) 선수와 주전 가드인 2학년의 이진욱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도 교우들의 응원소리를 듣고 싶다. 사랑하는 어린 후배에게 들려 주는 열광적인 어른들의 목소리 "W.H.I.M.O.O.N .휘문 휘문 빅토리 ,야!!" 〈정리 – 농구부장 김진웅〉

## 2011 농구부원 명단

| 순번 | 성 명 | 학년 | 배번 | 위치 | 신장 |
|---|---|---|---|---|---|
| 1 | 성기빈 | 3 | 4 | F | 187 |
| 2 | 안민기 | 3 | 12 | G | 185 |
| 3 | 박종범 | 3 | 11 | G | 184 |
| 4 | 양희수 | 3 | 9 | F,C | 198 |
| 5 | 이규범 | 3 | 7 | G | 176 |
| 6 | 이진욱 | 2 | 31 | G | 180 |
| 7 | 이원준 | 2 | 14 | G | 184 |
| 8 | 김진환 | 2 | 10 | F | 189 |
| 9 | 문영진 | 1 | 15 | C | 193 |
| 10 | 이현수 | 1 | 6 | F,C | 197 |
| 11 | 박성진 | 1 | 8 | F | 180 |
| 12 | 이찬희 | 1 | 5 | G | 174 |



왼쪽부터 **석주일 감독, 민인기 재단 이사장, 진상원 코치**

## profile

**석주일 감독 (84회)**

스포츠해설가, 농구코치

출생 1973년 4월 17일 신체 190cm, 85kg 혈액형 B형
소속 MBC스포츠 플러스 (농구 해설자)
가족 슬하 1남 취미 낚시 특기 피아노 연주
학력 연세대학교, 휘문고등학교
경력 2008.10~ MBC스포츠 플러스 농구 해설자,
2005 연세대학교 농구부 감독대행
2003 연세대학교 농구부 코치
2003 프로 은퇴
1999. 09 SK나이츠 입단
1996. 대우증권 입단

**진상원 코치(93회)**

출생 1982년 12월 23일 신체 196cm, 96kg 혈액형 A형
가족 1남 1녀 중 장남
학력 연세대학교, 휘문고등학교, 휘문중학교
경력 2005. 전주 KCC 입단
2008. 전주 KCC 퇴단, 프로 은퇴

# 봅슬레이, 스켈레톤
## 새로운 휘문 체육사를 써내려간다.

모교에는 세 살배기 봅슬레이 · 스켈레톤 팀이 있다.
'봅슬레이 · 스켈레톤' 이란 용어도 낯설지만 더욱이 휘문에 이런 종목의 팀이 있다는 것조차 교우들에겐 낯설다.
봅슬레이는 2인승과 4인승 게임이 있으며 1,200m–1,300m 길이의 코스를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 순위를 정하는 스릴 만점의 스피드게임.
스켈레톤은 1인승 썰매로 머리를 앞으로 해서 코스를 달리는 경기. 코스는 봅슬레이와 같다.

봅슬레이 · 스켈레톤팀은 2009년 10월 창단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민경호 담당 교사와 이용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다. 선수로는 고교 3학년인 박경민 봅슬레이 · 스켈레톤, 2학년인 최민서 봅슬레이, 1학년인 김반석 스켈레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된 안준형 봅슬레이 · 스켈레톤 이 팀을 만들고 있다.

아직은 야구와 농구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주니어대표이지만 국가대표선수가 2명 박경민, 최민서 이나 보유하고 있다.

박경민은 2010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아메리카컵대회에 태극기를 달고 참가해 전체 15명 중 14위를 차지했다.

표면적으론 나쁜 성적으로 보이지만 참가자 대부분이 어른들이었고, 이 종목을 시작한지 3년만의 기록으로선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다. 차세대 유망주로, 동계올림픽 썰매부문에서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휘문 봅슬레이 · 스켈레톤 팀은 큰 목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짧게는 2012년 IOC 올림픽위원회 가 주최하는 제1회 유스동계올림픽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에 출전, 썰매종목의 첫 국제대회 메달을 목에 거는 일이다. 길게는 한국 첫 동계올림픽 썰매부문 금메달로 한국체육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김은 물론 그 속에 휘문인이 주인공이었다는 자랑스런 역사도 함께 남기는 것이다.

봅슬레이 · 스켈레톤 팀은 '공부하는 운동인' 이 되기 위한 운용으로 학생스포츠의 귀감이 되고 있다. 평상시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기초체력 훈련과 기록을 단축하는 키가 되는 스타트 훈련에 집중한다. 토요 휴업일이 낀 주와 여름방학 때는 강원도로 건너가 훈련을 계속한다. 횡계 알펜시아에는 2010년 완성된 스타트훈련장이 있어 기량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겨울방학 땐 동계훈련에 나선다. 국가대표선수들과 함께 미국, 캐나다 등지로 나가 우리나라에선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을 훈련한다.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기간이다.

봅슬레이 · 스켈레톤 팀은 민인기 이사장이 큰 꿈을 안고 만들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며칠 뒤. 출근 길에 우연히 수영 400m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의 모교 교문 앞에 붙은 축하 현수막이 눈에 확 들어왔다.

부러움이 앞서면서 "우리 학교도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이 있었으면…"이라는 바람을 가지게 됐다.



이 바람은 민이사장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김광배 감독을 만나면서 휘문 봅슬레이 · 스켈레톤팀 창단에 불을 붙이게 된다.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학구파로도 유명한 김광배 감독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썰매 종목이다. 또한 다른 종목과 달리 적은 노력으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을 듣고 민 이사장은 무릎을 탁 쳤다.

한국 동계 스포츠는 2010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종합 5위에 오르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하지만 썰매종목에서는 입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 19개국 30팀이 참가한 올림픽에서 예선을 통과하고 19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냈다. 더욱이 21위를 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가 됐다.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내 동계올림픽 금메달에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때문에 민 이사장의 희망과 맞물려 '휘문 봅슬레이 · 스켈레톤팀' 창단은 수월하게 진행됐다.

사실 휘문체육사는 한국체육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건국 후 첫 올림픽 메달은 휘문인이 만들었다. 김성집 29회-1948년 런던올림픽,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역도 동메달 옹이 그 주인공.

또한 야구팀은 우리나라 팀으로선 처음으로 일본 갑자원대회



오른쪽이 이용 감독

를 밟는 등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농구 역시 한국농구를 이끌어 왔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3년이 지나 '갓난아기'에서 벗어난 봅슬레이 · 스켈레톤팀은 휘문 체육사에 쓰여 있는 선배들의 발자취에 또 하나의 새롭고 크나 큰 업적을 더하려 땀 흘리고 있다.

나아가서 한국 동계올림픽 썰매종목의 첫 금메달을 향하여 새로운 한국체육사도 함께 써 가고 있다. 이제 민이사장의 바람대로 모교 정문에 올림픽 메달 획득 축하 현수막이 펄럭이는 상상을 마음껏 해 보기로 한다.

〈취재, 정리 68회 김헌영〉

일간스포츠칼럼

## 썰매 유망주 박경민, 대학 진학 앞두고 비인기 설움

한국 썰매종목 유망주 박경민(18 · 휘문고)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대학 진학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썰매선수로 뛰고 있다는 것이 걱정으로 다가올 지 몰랐다. 한국 유일의 썰매종목 청소년대표 출신이지만 대학 진학이 힘들 수도 있다. 동계종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각급 대학교에 동계관련 학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박경민은 지난 2009년 휘문고 봅슬레이부 창단멤버로 썰매를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스켈레톤 아메리카컵대회 주니어국가대표로 출전, 전체 15명 중 14위를 기록했다. 15위가 실격선수여서 기록만 보면 꼴찌다. 하지만 국내 경기장이 없는 열악한 현실에서 제대로된 훈련을 하지도 못하고 출전한 경기를 완주했다는 점만으로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썰매종목 특성상 코스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가운데 최연소 출전선수로 완주했다는 점만으로 성공적인 데뷔전이었다. 한국 썰매 관계자들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박경민이 국가대표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 한국을 대표할 가능성은 높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대부분 대학들이 체육특기생 모집에 국내대회와 국제대회 성적을 반영한다. 하지만 썰매종목은 국내대회가 없다. 또 국제대회 조건은 20대 이후 성적을 내는 썰매 종목 현실을 볼 때 10대 청소년에게 요구조건을 맞추라는 것은 동계종목에 대한 무지다. 민경호 봅슬레이부 부장의 주도 아래 휘문고측은 올 1월부터 서울 지역 각 대학에 '봅슬레이 · 스켈레톤 평창동계올림픽 유망주 학생선수 대학 입학제안서'를 보내며 현실을 알리고, 가능성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직 각 대학측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박경민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썰매선수로 활약한 선례가 없는 점도 난관이다. 한국 썰매대표선수들은 이미 다른 종목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 썰매종목으로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썰매 개척자 강광배 대표팀 감독도 오스트리아 유학 당시 20대 나이에 썰매를 시작했다. 이용 휘문고 봅슬레이부 감독은 "객관적으로 생각하자. 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또래에서 가장 썰매를 잘 탄다는 거고 국내 최고라는 의미 아닌가"라고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칼자루는 대학측이 쥐고 있다. 아마종목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대학의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부가 앞장서 평창올림픽 유치에 전국민의 의지를 모으고 있고, 동계종목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계종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들도 예외가 아니다.

일간스포츠 허진우 기자 [zzzmaster@joongang.co.kr] 2011. 3. 13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1 페이지 34



## 임영웅 교우(46회)



산울림 극단 대표인 임영웅(46회) 교우는 지난 2011년 2월 10일 열린 모교 제 103회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고교 졸업식을 의미 있고 품위 있게 거행하고자 졸업생이 학창 시절에 듣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의미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명사 초청 특강의 첫 번째 강사로 나서게 되었다.

임 교우는 대한민국 학술원회원이며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자랑스러운 휘문인 46인 중의 한 명이다.

## 최복규 교우(56회)



국립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이며 사단법인 강원 고고학 연구소장을 지낸 최복규 교우가 2011년 2월 26일 춘천 베어스 관광호텔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정년퇴임을 맞아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 남선현 교우(59회)



전 KBS미디어 대표인 남선현 교우는 2010년 9월 6일 중앙미디어네트워크(JMnet) 방송담당 사장으로 영입됐다. JMnet는 중앙일보 · 중앙M&B · 중앙방송 등 26개 매체를 가진 미디어 그룹.

남 교우는 현재 교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 노시춘 교우(60회)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인 노시춘 교우는 2011년 1월 24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러 열린 (사)클린사이버네트워크 창립기념 포럼 및 서울지방경찰청 누리캅스 신년 간담회에서 “스마트시대와 정보보호 침해사고 ”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사)클린사이버네트워크는 깨끗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고자 서울청 누리캅스 회원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 한기선 교우(62회)



한기선 두산인프라코어 사장(공작기계사업담당)은 두산그룹이 작년 2010년 9월부터 지난달 2011년(2월)까지 △경쟁력 공유 △재무지원 △해외시장 동반진출 △커뮤니케이션 등 4개 항목에 대해 계열사별로 실적을 평가한 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우수 회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그 결과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 4명에게 기본 스톡옵션 외에 주는 40%의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었다.한 교우는 두산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겨 COO(최고운영책임자)직을 맡게 되었다.

## 오창관 교우(63회)



2011년 2월 25일 POSCO 주주총회에서 신임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오 교우는 포스코에서 스테인리스사업부문장(부사장)을 담당하면서,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클럽 회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양대 금속학과를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포스코에 입사 후 생산기획실장을 거쳐 PI실장과 마케팅담당 상무, 포항제철소장(전무), 마케팅부문장(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권진봉 교우(63회)



2011년 1월 4일 한국감정원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신임 권 원장은 “공정한 사회구현과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권 교우는 국토해양부 건설자원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다.

## 조준래 교우(64회)



왕십리 민자역사 비트플렉스 회장인 조준래 교우가 지난 2월 11일 (사)한국철도민자역사협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철도민자역사협회는 민자역사를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인18개 업체들이 참여하는 사단법인이다.

신임 조준래 회장은 민자역사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왕십리민자역사를 성공시킨 장본인. 2010년 12월 경인TV “경제스페셜–실패는 없다” 에 창조경영의 대표 경영자로 소개된 바도 있다.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1 페이지 35

# whimoon news

## 신현석 교우(64회)



외교관으로서 최근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역임했던 신현석 교우가 2010.8월 요르단 대사에 임명되어 부임했다.

## 강원 교우(66회)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 단장인 강원 교우가 2010년 12월 10일 중소기업고객본부 부행장으로 영전했다.

## 송승환 교우(67회)



PMC프로덕션 대표이며 성신여대 융합예술대학장인 송승환 교우가 2011년 1월 26일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1년. 송 이사장은 비언어극 "난타",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금발이 너무해" 의 제작자 겸 배우로 유명하다. 또한 자랑스러운 휘문인 46인 중의 한 명이다.

## 안형준 교우(67회)



안형준 교우가 2010년 8월 대전 소재 O2저축은행(전 대성저축은행)의 은행장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안 교우는 고려대 경영학과, 한양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금융(보험)감독원, 재무부 보험국, 한국 보증보험을 거쳐 서울 보증보험 상무를 역임했다.

## 전영옥 교우(67회)



행안부 출신 공무원인 전영옥 교우는 1년간의 고위공무원 연수 과정 수료 후에 2011년 1월 28일 소방방재청 법무감사담당관으로 영전했다.

## 전병헌 교우(68회) 출판기념회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전병헌 교우(68회)는 지난 4월 1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비타민 정치' 세번째 시리즈인 전병헌의 '비타민 복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 이남석 교우(69회)



이코노믹 리뷰 편집국장인 이남석 교우가 2010년 9월 3일자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코노믹 리뷰는 석간 일간지인 아시아경제신문의 주간 경제지.

## 전흥윤 교우(70회), 이상빈 교우(78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에 몸담고 있는 두 교우가 승진했다.

2011년 2월 1일 전흥윤 교우는 대구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으로, 이상빈 교우는 경북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부장으로 영전되었다.



**바로 잡습니다**

### 권호근 교우(64회)

지난 64호에 권호근 교우의 사진이 잘못 게재되어 사과드리며 올바른 사진을 올립니다.

권 교우는 현재 연세대 치과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 홍환훈 교우, 배영창 교우(70회)

2010년 12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소속인 홍완훈 교우는 부사장으로, 배영창 교우는 전무로 승진되었다 .

## 정흥순 교우(71회)



2010년 10월 29일 영화사사무실을 오픈했다. 정흥순 교우는 영화 현상수배, 가문의 영광, 조폭마누라2 등을 감독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영화감독.

## 김용석 교우, 임범석 교우(73회)





임범석 교우가 안양지원장에, 김용석 교우는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되었다.
김 교우(사진)는 2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고유의 판결업무는 물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기획법무담당관을 겸임해 법조와 행정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 교우는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과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 이종훈 교우(73회)



73회 동기회 전임 회장인 이종훈 교우가 2010년 8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 임달식 교우( 75회)



신한은행 여자농구단 감독인 임달식 교우는 2010~2011년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소속팀 신한은행을 우승으로 이끌며 정규리그 5년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또한 임교우가 이끄는 신한은행은 지난 4월 1일 통합챔피언 결정전에서 김영주 감독(80회)의 Kdb생명에 3연승을 거두고, 프로스포츠 사상 첫 5연패의 위업을 달성, 한국 프로스포츠역사를 새로썼다.

## 최상원 교우(78회)



2010년 10월 13일 한국MDRT협회 한국지회의 9대 협회장으로 선임되었다.
ING 생명의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상원 교우는 “MDRT는 뜨거운 열정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꿈을 이루게 하는 조언자를 꿈꾸고 비전을 공유하는 모임”이라며 "국내의 MDRT가 더욱 활성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MDRT란 MILLION DOLLAR ROUND TABLE(백만 달러 원탁회의)의 약자로, 생명보험 판매 분야에서는 명예의 전당이라 할 수 있다. 보험판매에 따른 수익금만으로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고객의 불만이 한 건이라도 있을 때는 각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MDRT 회원에서 제명시킬 정도로 선발규정이 엄격하다.
MDRT협회는 1927년 미국에서 시작된 보험재정상담사들의 모임으로 현재 전 세계 76개국, 약 476개 생명보험사의 35,000여 명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전완식 교우(78회)



**10일 간 전시회 전문가들 호평 쏟아져**

2011년 2월 11일~ 20일까지 강남 코엑스에 위치한 조선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랑인 조선화랑에서 개관 40주년 기념전의 첫 행사에 선정된 금번 전시회에는 최근 3년간의 작업 결과물 중 엄선된 작품 39점이 전시되어 관람자들과 전문가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장영준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 작가 중 한명' 이라고 평을 했을 정도. 화풍이 독특하고 철학적이며 진취적이다.
전완식 교우는 한성대학교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Kai Jun이라는 이름으로 화가로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해 오고 있다.

# 언론속에 비춰진 휘문인

**간송 전형필 교우 18회**

## 간송미술관 새로 지어 세계 자랑거리 만들어야



10월의 마지막 휴일이던 지난주 일요일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 다녀왔다.

춥지 않고 맑은 날씨에 가을 특별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로 고색창연한 미술관 건물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날로 끝나는 전시가 꽃과 풀, 새와 짐승을 담은 그림을 모았기 때문인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 관람객이 유난히 많았다. 1층과 2층의 넓지 않은 전시실에는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명품들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려는 인파가 길게 줄지어 있었다.일제시대 우리 문화재의 수호자였던 간송(澗松) 전형필(全鎣弼 · 1906~1962) 선생의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는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미술 박물관이다.

훈민정음 초간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혜원전신첩(蕙園傳神帖) 등 국보 12점과 보물 10점을 비롯해서 수천 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고서화와 도자기가 중심이며 정선, 김정희, 장승업 등 조선후기 대가들의 그림은 100점 넘게 소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보아야 할 민족예술의 전당으로 꼽힌다.간송미술관은 다른 미술관 · 박물관과는 달리 상설전시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5월과 10월에 각각 보름씩 특별전시를 마련해 100점 남짓한 소장품을 일반에 공개한다.

그래서 봄과 가을이면 간송미술관 가는 길은 인파로 북적인다. 신윤복의 '미인도' 등 조선시대 서화(書畵)의 걸작을 추려 내놓았던 2008년 가을 특별전시 때는 20만 명이 넘게 몰리는 바람에 관람객들이 빗속에 몇 시간씩 마당에서 줄지어 기다려야 했다. 간송미술관은 '연구 중심'을 표방한다.

1971년 가을 첫 특별전시 이래 전시회에 맞춰 간행되는 해설 · 논문집 '간송문화(澗松文華)'와 각종 자료집들은 한국문화사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최완수 연구실장과 그 제자들로 이루어진 '간송학파'는 조선후기 문화를 집중조명해서 '진경(眞景)시대'라는 새 이름을 붙였다. 이처럼 간송미술관은 1966년 설립 이래 빛나는 연구업적을 내놓았다. 그러나 간송미술관의 소중한 문화재들을 보다 많은 사람이 언제라도 마음껏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일찍부터 강력하게 제기돼 왔다.간송미술관이 엄청난 소장품을 규모 있게 상설전시할 건물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1938년 지어진 현재의 미술관 건물 '보화각(保華閣)'은 당시에는 최신식이었지만 이제는 좁고 낡아 불편하기 짝이 없다.



간송미술관의 새 건물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짓는 것은 어떨까.

국가나 서울시가 적당한 곳에 새 건물을 짓고, 간송미술관은 소장품을 대여하는 것이다.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미술관 운영과 소장품 관리에 관한 관련자들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간송 선생이 일제 강점기에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던졌던 정신과 간송미술관의 위상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내년이면 간송미술관이 특별전시를 시작한 지 45년이고, 2016년이면 개관 50주년을 맞는다. 그 사이에 우리 민족문화의 보배들로 꽉 채워진 상설전시실을 가진 새 간송미술관이 모습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박물관을 하나 갖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이선민 문화부장 2010. 11. 6〉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1 페이지 38



## 손보기 교우 32회



### 고고학계의 큰 별, 구석기시대 발견과 인쇄술 연구로 한평생

한반도 구석기 시대를 처음 증명한 원로 고고학자 손보기 전 연세대 교수가 2010년 10월 31일 용인 효자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8세.

고인은 국내 구석기 고고학의 선구자로 꼽힌다.

1964년 충남 공주 석장리에서 찍개, 긁개 등 구석기를 최초로 발굴해 이 땅의 구석기 시대를 먼저 입증했다. 앞서 일본학계는 '일본보다 이른 시기에 한반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내용의 식민사관을 내세워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를 부인했다. 하지만 손 교우는 체계적인 발굴로 이를 뒤집었다.

그 뒤에도 손 교우는 충북 제천 점말동굴 등 다른 구석기 유적들을 계속 조사하면서 한국 고고학의 지평을 넓혔다.

1922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거쳐 서울대 사학과 · 대학원을 마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4~1987년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일했으며, 퇴임 뒤 연세대 용재석좌교수, 단국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옛 인쇄술 연구에도 관심이 남달라 세계 최고인 고려 금속활자의 구체적 제작 시기 · 방식을 밝히는데도 기여했다.

저서로는 〈한국 구석기학 연구 길잡이〉, 〈석장리 선사유적〉 〈한국의 고활자〉등이 있으며, 외솔상 학술상(1976)과 옥관문화훈장(1990) 등을 받았다. 손보기 교우는 자랑스러운 휘문인 46인 중의 한 명이다.

## 김응현 교우 39회



### 20세기 한국 최고의 서예가

여초(如初) 김응현(金膺顯 · 1927~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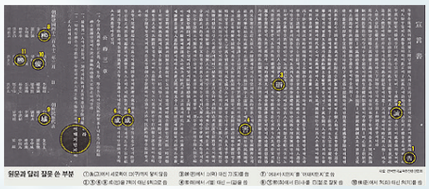
'20세기 최고의 한국 서예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형인 일중 김충현, 백아 김창현 씨와 함께 형제 서예가 집안으로도 유명하다. 해서, 행서, 초서, 예서, 전서 같은 모든 서체들을 연습해 그 정화(精華)를 흡수한 뒤 마음과 손의 조화를 이룬 작품세계를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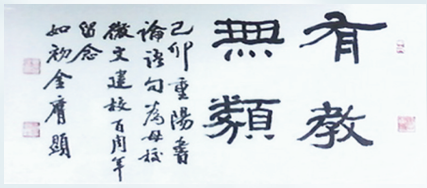
1994년 출간한 10권 분량의 서예 교본 '동방서범(東方書範)'에서 동양 서법의 대표적인 문헌 · 금석문 중 글자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을 골라 직접 글씨를 썼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건립중인 "여초 김응현 서예기념관"은 강원도에서 땅과 건립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건립하고 있다. 위치는 "만해 한용운 기념관" 바로 옆에 있으며 2011년 올해 6월경이면 완공된다고 한다.

하루빨리 완공되어 역사의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모든 이들의 바램이다.



탑골공원의 대형 독립선언서 석판의 글씨



2006년 작고 전에 여초 선생께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우회에 희사한 작품

有教無類 – 사람은 가르치면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다 훌륭해 진다는 뜻

**원문과 다르고 오, 탈자 많아 통곡할 독립선언서**

탑골공원 대형 석판 바꾸며 원글씨 대신 컴퓨터 활자 써 문제가 불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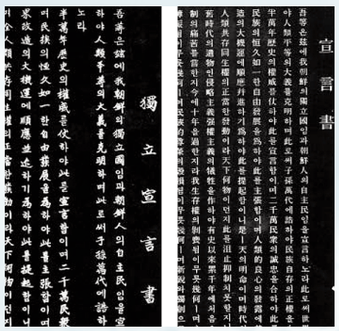
3 · 1 독립선언 현장인 탑골공원(서울 종로구 종로 2가)의 대형 독립선언서 석판(石板)의 글씨를 지난달 9일 '독립선언서 원문 글씨에 가깝게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교체했으나 원문과는 차이가 크고 오 · 탈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해 1월 '서예 글씨로 쓰인 석판의 많은 글자가 독립선언서 원문과 다르다'는 한 시민의 이의신청을 받고 독립기념관 자문과 종로구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만원을 들여 석판을 교체했다. 옛 석판 위에 새 석판을 붙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 석판은 독립선언서 원문과 다른 컴퓨터 활자체로 쓰였으며 곳곳에 오 · 탈자가 있다. 석판을 검토한 진태하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사장은 "뒷부분 공약삼장(公約三章) 등 모두 11곳 이상에 원문과는 다른 잘못 쓴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새 석판에는 공약삼장의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야금 어대 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는 부분에서 '(까 발음)'자가 빠진 '…어대지던지'로 돼있다.

1967년부터 탑골공원 독립선언서 석판(石板)에 새겨졌던 여초




김응현 선생의 해서체 글씨(왼쪽)와 종로구가 지난 달 9일 새로 교체한 석판의 활자체 글씨(오른쪽). 새로 교체한 글씨는 독립선언서 원문과도 다른 정체불명의 컴퓨터 활자라고 서예가들 은 지적한다. 또한 새 석판은 원문에 '징판(懲辦 · 죄를 벌함)'으로 적힌 곳의 '판'에서 '힘 력(力)'이 아닌 '칼 도(刀)'를 썼다. '성충(誠忠)'의 '성'과 '이해상반(利害相反)'의 '해', '손병희(孫秉熙)'의 '희'에서도 잘못된 획을 넣었다. 진 이사장은 "서예가 아닌 활자체에서는 쓸 수 없는 잘못된 글자들"이라며 "3 · 1 독립선언서에 이런 엉터리 글을 붙여서는 안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 석판은 1967년에 처음 건립됐다가 1980년 지금과 같은 높이 2.25m, 폭 5m의 크기로 다시 세워졌다. 석판의 글씨는 '20세기 한국 최고의 서예가'로 불리는 김응현 선생의 작품이었다. 독립선언문을 활자체로 재현하지 않고 당대 대가의 서예 작품으로 했던 것이다.

이 독립선언서 글씨는 여초의 화갑기념 서집인 1987년의 '여초 쇄금'에도 실려 있는 대표작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해서체(楷書體 · 정자로 또렷이 쓰는 글자체)로 쓰인 이 글씨가 여초의 필력이 가장 왕성하던 시절에 나온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여초 작품은 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문화재 지정 대상은 아니다.

서예계 관계자들은 "새 석판에 오류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여초의 작품을 교체한 것도 문화적 무지의 결과"라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원구 동방연서회장은 "여초의 글씨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체자(異體字)를 쓴 작품으로 이는 활자체와는 달리 서예에서 허용된다"며 "그걸 바꾼다면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금석문(금속이나 비석에 새긴 문자)을 교체하자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탑골공원을 찾은 시민 조공훈(58)씨는 "그전 글씨는 힘과 정성이 깃든 달필이었는데 왜 이걸 굳이 지금 같은 활자체로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44년동안 3 · 1 독립선언의 현장에 서 있었던 여초의 석판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적 가치와 예술성을 지닌 문화유산"이라며 "이것을 정체불명의 오자투성이 활자체로 바꾼 것은 문화 말살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요즘 사람들이 누가 서예 글씨를 알아보겠느냐"며 "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어 문화적 가치도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1. 03. 01〉

## 김기택 교우 67회

### 30년간 접혀있던 척추 펴는데 성공 환자는 똑바로 걷는 기적을 경험



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김기택 교수팀은 강직성 척추염 후유증으로 척추가 반으로 접힌 채 굳어 버려 30년 동안 몸이 폴더형 휴대폰처럼 반으로 접혀 있던 김춘광씨(50세)를 정상화하는 수술을 성공하였다.

김 교수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포기하려 했던 환자는 총 10시간에 걸친 수술과 재활치료로 작년 9월, 30년 만에 허리를 세우고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김 교우는 강직성 척추염 교정 수술 400여회를 실시한 국내 최고, 최다의 수술 전문가로서 2010년 1월 EBS 선정 한국의 명의 130명과 포브스지(誌) 선정 한국의 100대 명의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또한 2011년 8월 아시아태평양 척추 최소침습학회(Pacific-Asian Society of Minimally Invasive Spinal Surgery) 11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척추최소침습학회는 아태지역 척추 외과의 분과영역인 최소침습 수술법을 연구하는 전문학회다.

〈조선일보에서〉

## 조현제 교우 71회

### 큰 나랏일 제2회 T20 관광장관회의 잘 치러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인 조현제 교우가 큰일을 해냈다.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2010년 10월 11일~13일까지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2회 T20 관광장관회의를 주관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2010년 1월 발족된 후, 그 두 번째로 열린 회의.

세계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세계적 고용 증대와 빈곤 퇴치, 녹색 관광과 친환경 관광 개발 연대, 공정여행의 확산 등을 제안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범세계적으로 합의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의장국이 되었고, 2011년에는 UNWTO 총회 유치에도 성공한 바 있다.

〈문화일보에서〉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1 페이지 40



#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휘문인

교우회보 안에 "아름다운 휘문인"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많은 교우들의 발간 저서나 사진, 미술전시회 및 음악회 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꼭지의 취지와 걸맞고 소개할 교우가 있으면 교우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서의 경우 작품 소개 및 책 표지와 인물 사진을 동시에 게재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휘문인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

## **원종린** 元鍾麟 교우 34회

## "혼자 달린 競走"






1923년생(현재 89세)으로 1942년 휘문중학교 5년제를 졸업한 원종린 교우는 작년 2010년 11월 20일 米壽(88세)기념 수필문학선집을 출간하였다. 1965년 공주교대 교수이던 43세에 뒤늦게 등단한 원 교우는 45년간 수필가로 활동을 하였고, 최근까지 노구에도 불구하고 한국문인협회와 한국 수필가 협회회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동안 발행한 10개의 수필집에서 발취한 글과 최근에 쓴 글을 합하여 발행한 마지막 수필집을 통하여 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문단 활동을 접으며 그동안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다.

(발행처 : 서울 도서출판 학문사, 정가 12,000원)

## **윤관호** 교우 59회

## 출판기념회 "누이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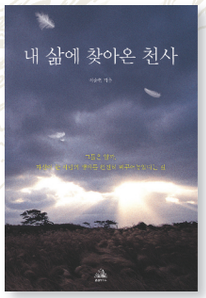
3월 3일 윤 관호 교우의 시집 "누이이야기" 출판기념회가 뉴욕 대동연회장에서 있었다. 뉴욕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특히 휘문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여 시 낭송과 음악(성악과 악기연주), 축사로 이어지는 자리를 아름답게 빛내 주었다.

(발행처 : 창조문학사)

**연락처** 전화 718-614-7003
이메일 garyyun@msn.com
주소 254-11 39th Avenue, Little Neck, NY 11363, U.S.A.

**이승현** 교우 67회

## "내 삶에 찾아 온 천사"






포항 선린대학교 교목으로 재직 중인 이승현 교우가 자전적 수필집을 출간하였다.
기억하는 한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의 궤적을 따뜻한 마음으로 그려 놓아 동시대를 함께 살아온 많은 교우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교우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후 기독교 신학 과정을 밟아 목회자가 되었으며 평광교회, 남대문교회의 부목사를 거치고, 인천 경인여대 교목을 역임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외 다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발행처 서울 랜덤하우스, 정가 12,000원

---

**최영철** 교우 67회

제25회 정기연주회

## 카메라타 서울 앙상블






실내악 오케스트라 카메라타 서울 앙상블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인 최영철 교우는 원래 첼리스트이다. 카메라타 서울 앙상블은 연 4회 정기 공연을 갖는데, 2011년 봄 공연 겸 제 25회 정기 연주회가 4월 4일(월) 8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에서는 새롭게 해석하고 편곡된 J. Piazzolla, J Bock, V Cosma의 작품들과 아일랜드 전통음악이 연주되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걸맞는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연주회로 꾸며 졌었다.

전화 02-586-0945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이덕상** 교우 71회

출판기념회

## 아무도 모를 님의 마음을



이덕상 교우는 2011년 1월 14일 시집출판회를 열었다.

그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님의 얼굴 그린다.

하늘같은 눈
바다 같은 마음
꽃 같은 웃음 그린다.

구름같은 눈썹
파도 같은 입
열매 같은 입술 그린다.

그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님의 얼굴 그린다.

하늘 같은 마음으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또다시 님의 얼굴 그려야 한다.
아무도 모를 님의 마음을.

– 이덕상

**신성수** 교우 71회

출판기념회

## 목련, 낮은곳으로 오다






의정부문인협회 사무국장으로 제6회, 제7회 천상병 백일장, 제16회, 제17회 통일예술제 백일장, 제11회, 제12회 의정부문학 공모전 기획, 진행. 2010 제12회 의정부문학 공모전 학생부 대상 경기도교육감상 신설, 의정부문학 18, 19집 기획, 출판.

**인물평**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인 이끌림 님은 신성수 시인의 시를 평하여…**

목련을 통해 깨닫는 자성과 정화의 순간
시인의 시선은 삶의 무게중심을 낮은 곳에 두고 있다.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닌 아래를 향해 가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마음을 천명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한 순명을 목련을 통해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에 천착하며 스스로 자신을 비워내는 정화작용에 비유할 수 있다.

**김준** 교우 76회 | **전완식** 교우 78회

미술전시회

## 화랑미술제





김준 교우(76회)와 전완식 교우(78회)가 코엑스에서 열린 화랑미술제에서 많은 관람객에게 호평을 받았다.

전완식 교우는 이와 별도로 '조선화랑 40주년 기념 Kai Jun 기획전'을 코엑스 조선화랑에서 1달간 가졌다. 또한 3월 한 달 간 뉴욕에서 'Korean Art Show 2011', '한국 문화원 전시' 'ARTexpo New York 2011'의 3회에 걸친 전시를 가졌다.



**김준 | 디지털 문신 |** 디지털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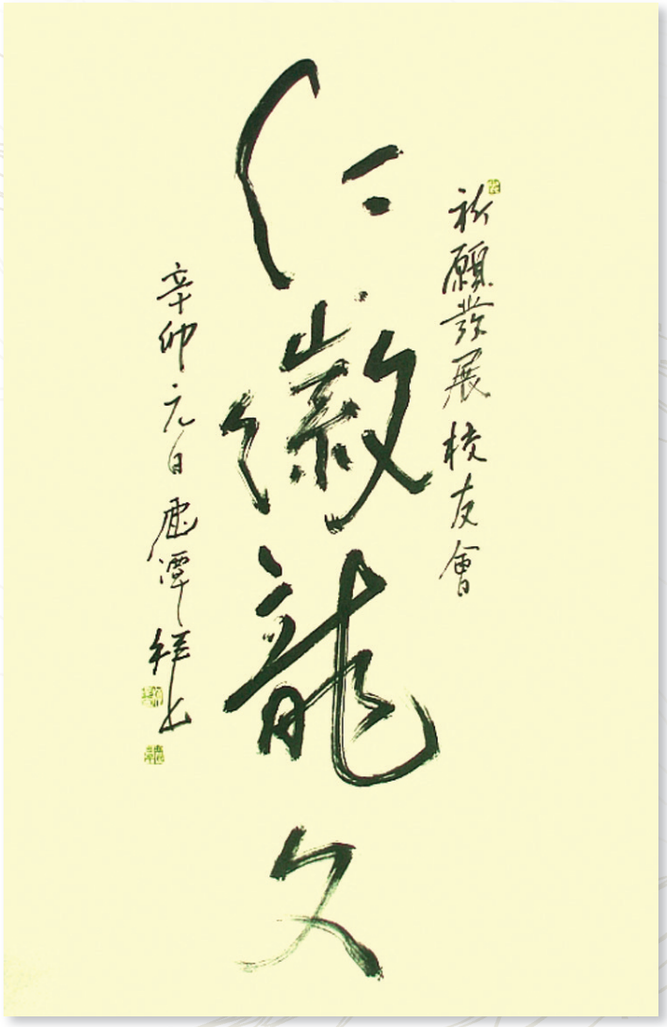
**전완식 Kai Jun | 아름다움은 강렬한 확산이다.No.1 |** 유화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43



# 仁徽龍文

## 어질고 뛰어난 그대들이여!






록담 **유호선**(53회)

校友會 發展과 校友님들의 康寧을 빕니다
辛卯年 元日 鹿潭 柳滈宣 拜上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44



# "알아봅시다!" 중년남성이 건강하게 사는법을 알아보자!

**요사이 TV를 보면 출연자들의 나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 50대가 틀림없는데 주름살 하나 없 는 30대의 외모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또,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요사이 60대는 과거의 40대와 맞먹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여서 회갑연을 하는 것도 쑥스러운 일이 되었다. 인생은 60 부터라고 하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김현수** 72회, 김현수한의원 원장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9년에 태어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5년으로, 10년 전보다 약 5년이 늘어났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09년에 태어난 남자는 77세, 여자는 83.8세까지 살 것으로 전망됐다.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6.8년 더 긴 것인데, 남녀간의 기대수명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 2009년 출생아가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사망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녀 모두 40% 이상이었고, 특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28.1%, 여자는 16.7%로 크게 늘었다.

또,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40, 50대 여성의 사망률은 각각 1.7%, 4.7%였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의 남성은 각각 6%, 13.7%로 3배에 이른다. 이렇듯 중년 남성의 사망률이 많은 원인은 대사증후군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다.

중년 가장을 괴롭히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대개 흡연, 음주, 운동부족, 불규칙한 식사 등 평소의 잘못된 생활습관이다. 2009년 하반기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결과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3.1%로 여성 3.9%보다 10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소주 7잔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도 남성이 29%로 여성 9%의 3배에 이른다. 이렇게 평균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건강에 위해가 되는 습관으로 건강수명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중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론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휘문고등학교 졸업(72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전문수련의 과정 수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전) 강남구 한의사회 회장, 전)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전) 휘문고등학교 동기동창회 회장
전) 강남구 보건인단체연합회 회장, 현) 김현수 한의원 원장, 현) 의성 허준 기념사업회 이사
현)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현) 교우회 부회장, 휘야후 부회장
현) 강남구 한의사회 명예회장, 현) 대한 침구학회 부회장, 현) 한방 척추관절학회 회장
– 저서 전침치료의 이론과 임상 외
– 논문 약침용 단삼추출액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외

## 평균수명 길어지면서 인생은 60세부터, 건강 해치는 습관으로 건강수명은 제자리…

### 첫째, 건전한 정서생활과 규칙적인 생활이다.

중년이후 부터는 특히 정신상태가 건강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명랑하고 유쾌한 기분으로 생활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 식사를 제 때 하도록 노력하며, 과중한 업무를 피하고, 잠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한다.

### 둘째, 바른 식생활을 하도록 한다.

건강을 유지하자면 일정한 영양이 필요한데 중년부터는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육류와 함께 채식을 하는 식습관이 필요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녁식사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소화가 다 된 이후에 잠자리에 든다.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알고 가려 먹는 것이 좋다. 너무 자극성이 강하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폭식이나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도록 한다.

### 셋째,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운동능력은 건강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나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전신의 척추와 관절을 정상적인 가동범위까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움직일 때 아프거나 부으면 모두 이상이 있는 것이다. 걷거나 뛰는데에 아프거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운동을 적당히 하면 근골격계를 강화시켜 뼈와 인대, 근육을 강하게 하며 심장과 호흡기를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예방하며,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큰 부상을 미연에 막을 수 있게 한다.

### 넷째, 과음은 피하도록 한다.

잦은 과음은 간염, 간경변, 췌장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술은 도수가 높을수록, 음주량이 많을수록 건강에 해롭다. 술은 간에서 분해되므로 많이 마시면 간기능에 장애를 주고 나아가서는 지방간 또는 알콜중독성 간경변을 일으킬 수가 있다. 또한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위를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다섯째, 금연한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각종 질환의 위험 요인이다. 지금까지 흡연을 하고 있다면 늦었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결심해야 한다. 더 이상 폐와 기관지를 암 유발인자로 부터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 여섯째, 표준체중을 유지한다.

표준체중은 (신장 – 100)×0.9로 계산하며, 여기에서 상하 10% 범위가 정상체중이다. 만약 그 이상이나 이하인 경우부터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쉬운 단계이며, 특히 표준체중의 20% 이상을 초과하면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비만이다, 비만은 운동능력을 떨어뜨리고,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표준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

### 일곱째, 의료인의 적절한 조언을 받는다.

몸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다고 느껴질 때 검사를 하거나 진단을 받는 것을 두려워 하여 초기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한의서에는 병이 난 다음에 치료하면 명의라고 할 수 있으나, 진정한 의사는 병이 나기 전에, 병이 생길 조짐이 있을 때에 치료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 조짐을 그래도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의사나 한의사이므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자주 상의하는 것이 좋다.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46



# 수혜학생, 성적 쑥쑥올라 알찬 결실

"재단법인 휘문장학회" 는 2007년 1월 31일 교육과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교우들의 귀한 성금 5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휘문장학회"는 모교와 중학교의 우수 학생 및 체육부를 대상으로 2007년 15,000,000원, 2008년 20,000,000원, 2009년 2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10년에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장학금 지급 학생의 대학 입학 성적이 뛰어나 그 결실이 충실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2010년에 발족된 "휘문야구후원회"도 "휘문장학회"를 통하여 장학금 지급 형식으로 야구부 후원금 30,000,000원을 전달하여 금년 1월 시행된 야구부 대만전지훈련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배 야구 우승 축하금 20,000,000원과 야구용품 지원금 1,500,000원을 합할 경우 "휘문교우회"의 2010년 모교에 대한 후원금 지급 총액은 76,500,000원에 이르게 되며, 교우들의 야구후원금 약정 및 납부에 따라 장학금 총액 지급 규모는 향후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은 2009년까지 5억원이었고, 2010년에 야구후원회장인 문규영 교우(62회)가 납부한 야구부후원금 2억원이 추가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2010년 말 현재 기본 재산은 7억원으로 증액된 상태이다.

장학재단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12명과 감사 2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이사 중에서 2010년 12월에 구준모(55회), 최준호(61회) 교우는 사임을 하고, 이종성(56회), 최상택(62회) 교우가 새로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 2010년 말 임원 현황

**이사장 신흥우(59회, 9대 교우회장)**

**이사 양구하(현오학술재단 이사장), 김선창(휘문고 교장), 이춘섭(50회), 장호성(55회, 전 희중회장), 이종성(신임, 56회, 동기회장),변동철(59회, 동기회장), 문규영(62회, 10대 신임 교우회장), 최상택(신임, 62회, 동기회장), 이원근(63회, 동기회장), 이충희(65회, 전 동기회장), 송승환( 67회, 공연기획자), / 감사 이남진(68회, 변호사), 우종환(69회, 공인회계사).**

## 연도별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항목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합계 |
|---|---|---|---|---|---|---|
| 고등학교 | 성적 우수 | 8,000 | 13,000 | 18,000 | 18,000 | 57,000 |
| | 명예 선양 | 3,000 | 3,000 | 3,000 | 3,000 | 12,000 |
| | 체육부 지원 | | | | 30,000 | 30,000 |
| | (고등학교 소계) | 11,000 | 16,000 | 21,000 | 51,000 | 99,000 |
| 중학교 | 성적 우수 | 1,000 | 1,000 | 1,000 | 1,000 | 4,000 |
| | 체육부 지원 | 3,000 | 3,000 | 3,000 | 3,000 | 12,000 |
| | (중학교소계) | 4,000 | 4,000 | 4,000 | 4,000 | 16,000 |
| **장학금 총계** | | **15,000** | **20,000** | **25,000** | **55,000** | **115,000** |



# 2010년도 장학기금 특별회계

(단위 : 원)

| 수입 지부 | | 지출 지부 | |
|---|---|---|---|
| 적 요 | 금 액 | 적 요 | 금 액 |
| **전기이월금** | **557,502,770** | 1. 장학금 지급 ※ 장학금지급일 : 2011. 1. 14 | **25,000,000** |
| 1. 수입이자 | 21,838,433 | – 2학년 수석 진급 | 2,000,000 |
| 2. 장학기금(62회 문규영) | 200,000,000 | – 2학년 진급 진보상 | 1,000,000 |
| 3. 통장이월 | 7,123 | – 3학년 문과 수석 진급 | 2,000,000 |
| (소계) | **221,845,556** | – 3학년 이과 수석 진급 | 2,000,000 |
| | | – 3학년 진급 진보상 | 1,000,000 |
| | | – 3학년 우수졸업(4人) | 4,000,000 |
| | | – 3학년 수석졸업(2人) | 6,000,000 |
| | | – 학교명예선양(3人) | 3,000,000 |
| | | – 중학교 수석졸업 | 1,000,000 |
| | | – 중학교 체육부 지원금 | 3,000,000 |
| | | 2. 차기이월금 | **779,348,326** |
| | | 1) 기업은행 (정기예금) | 700,000,000 |
| | | 2) 기업은행 (MMF) | 79,341,203 |
| | | 3) 기업은행(보통예금) | 7,123 |
| **합 계** | 779,348,326 | **합 계** | **779,348,326** |

# 2010년도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 원)

| 고등학교 | | | | |
|---|---|---|---|---|
| 대 상 | | 대상자 | 금 액 | 비 고 |
| 2학년 | | 1명 | 1,000,000 | 2011년도 개교기념일 예정 |
| 3학년 | | 1명 | 1,000,000 | 2011년도 개교기념일 예정 |
| 2학년 | | 전형철 | 2,000,000 | 휘문교우회 장학금 |
| 3학년 | | 김휘영 | 2,000,000 | 휘문교우회 장학금 |
| 3학년 | | 이상구 | 2,000,000 | 휘문교우회 장학금 |
| 졸업생('10년도 3학년) | 문과 우수 졸업(2위) | 이동준 | 1,000,000 | 2011년도 2월졸업식 |
| | 이과 우수 졸업(2위) | 이민강 | 1,000,000 | 2011년도 2월졸업식 |
| | 문과 우수 졸업(3위) | 이승준 | 1,000,000 | 2011년도 2월졸업식 |
| | 이과 우수 졸업(3위) | 윤한경 | 1,000,000 | 2011년도 2월졸업식 |
| 졸업생('10년도 3학년) | 문과 수석 졸업 | 김동준 | 3,000,000 | 2011년도 2월졸업식 |
| | 이과 수석 졸업 | 최우석 | 3,000,000 | 2011년도 2월졸업식 |
| 명예선양 | 3학년 | 3명 | 3,000,000 | 2011년도 개교기념일 예정 |
| **고등학교 소계** | | | **21,000,000** | |
| **중학교** | | | | |
| 3학년 | 수석졸업 | 정의엽 | 1,000,000 | |
| 체육부 지원금 | | | 3,000,000 | |
| **중학교 소계** | | | **4,000,000** | |
| **합 계** | | | **25,000,000** | |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48



# 100주년기금 특별회계 2004~2010년도

(단위 : 원)

| 수입 지부 | | 지출 지부 | |
|---|---|---|---|
| 적 요 | 금 액 | 적 요 | 금 액 |
| **'04년도** | **336,931,823** | **'04년도** | |
| 1) 일반기금(기별분담금) | 115,680,000 | | |
| 2) 특별기금 | 221,170,000 | | |
| 3) 수입이자 | 81,823 | | |
| **'05년도** | 642,621,340 | **'05년도** | 134,583,925 |
| 1) 일반기금(기별분담금) | 420,000,000 | 1. 공로패, 감사패 (기금출연자) | 4,398,000 |
| 2) 특별기금 | 222,057,429 | 2. 100주년 회의비 | 2,511,700 |
| 3) 수입이자 | 363,911 | 3. 부회장단 선임패 | 1,196,000 |
| 4) 기타 | 200,000 | 4. 100주년 회무관리비 | 5,076,800 |
| | | 5. 100주년 체.대전출금 | 51,123,300 |
| | | 6. 회보발행, 발송비 | 24,278,125 |
| | | 7. 100주년 골프대회 지원금 | 1,000,000 |
| | | 8. 100주년 영상물 제작비 中 일부선급 | 15,000,000 |
| | | 9. 홈페이지 제작비 中 선금 | 30,000,000 |
| **'06년도** | 701,660,403 | **'06년도** | 620,647,930 |
| 1. 금년도 수입금 | **(521,435,613)** | 1.100주년 큰잔치 | 288,259,330 |
| – 일반기금 | 309,170,000 | 2. 걷기대회 비용 | 17,025,000 |
| – 특별기금 | 206,939,896 | 3. 산사랑운동비용 | 9,760,100 |
| – 수입이자 | 5,325,717 | 4. 100주년영상물(2차~5차) | 51,000,000 |
| | | 5.학교발전기금 | 150,000,000 |
| 2. 행사 수입금 | **(172,954,790)** | 6. 벨트제작비 | 45,000,000 |
| – 100주년큰잔치 | 169,644,790 | 7. 교통카드제작/충전 | 13,950,000 |
| – 걷기대회 참가비 | 3,310,000 | 8. 홈페이지제작:잔금 | 10,000,000 |
| | | 9. 회보발행/발송비 | 16,000,000 |
| 3. 기타 | (7,270,000) | 10. 회의/회무관리비 | 8,003,500 |
| – 동래정씨갈곡문중종친 | 1,000,000 | 11. 100주년 뺏지제작 | 2,000,000 |
| – T셔츠/교통카드판매 | 5,270,000 | 12. 감사패/공로패 | 7,450,000 |
| – DVD판매대금外 | 1,000,000 | 13.DVD제작(100주년 큰잔치) | 2,200,000 |
| **수입 합계('04~'06)** | 1,681,213,566 | **지출 합계('04~'06)** | **755,231,855** |
| | | 차기이월금 | 925,981,711 |
| | | 1)농협:휘문교우회(369-01-019040) | 18,231,829 |
| | | 2)국민:휘문교우회(781401-04-012626) | 103,759,950 |
| | | 3)기업:휘문교우회(129-037847-01-016) | 279,531,790 |
| | | 4)정기:정기예금(129-037847-25-002) | 523,413,791 |
| | | 5)프리패스카드:국(781401-04-043086) | 1,044,351 |
| | | 소계(보유금액) | 925,981,711 |
| **'07년도** | | **'07년도** | |
| 전기이월금 | 925,981,711 | | |
| 1. 금년도 수입금 | **102,364,113** | 1.감사패 | 5,958,000 |
| – 일반기금 | 80,790,000 | 2. 토지매수금/등록세.취득세 | 32,756,870 |
| – 특별기금 | 3,400,000 | 3. 벽화제작비 | 7,000,000 |
| – 수입이자 | 18,174,113 | 4. 교우회보발생/발송비(58호) | 14,000,000 |
| | | 5. 회무관리비 | 190,000 |
| **수입 합계('07)** | **102,364,113** | **지출 합계('07)** | **59,904,870** |
| | | **차기이월금** | **968,440,954** |
| | | 6. 예산자금 | |
| | | 1) 기업은행(양도성예금)(129-037847-12-002) | 541,461,255 |
| | | 2) 기업은행(MMF)(129-037847-96-001) | 426,971,282 |
| | | 3) 국민은행(781401-04-012626) | 8,417 |
| | | 소계(보유 금액) | **968,440,954** |

| 수입 지부 | | 지출 지부 | |
|---|---|---|---|
| 적 요 | 금 액 | 적 요 | 금 액 |
| **'08년도** | | **'08년도** | |
| 전기이월금 | 968,440,954 | | |
| 1. 금년도 수입금 | **39,730,299** | 1. 홈페이지 제작비 | 15,000,000 |
| – 수입이자 | 39,730,299 | | |
| **수입 합계('08)** | **39,730,299** | **지출 합계('08)** | **15,000,000** |
| | | **차기이월금** | **993,171,253** |
| | | 예산자금 | |
| | | 1) 기업은행(양도성예금)(129–037847–12–002) | 552,621,325 |
| | | 2) 기업은행(MMF)(129–037847–96–001) | 440,549,928 |
| | | 소계(보유 금액) | 993,171,253 |
| **'09년도** | | **'09년도** | |
| 전기이월금 | 993,171,253 | | |
| 1. 금년도 수입금 | **59,150,530** | | |
| – 일반기금(71회) | 7,371,542 | | |
| – 수입이자 | 51,778,988 | | |
| **수입 합계('09)** | **59,150,530** | **지출 합계('09)** | **0** |
| | | **차기이월금** | **1,052,321,783** |
| | | 예산자금 | |
| | | 1) 기업은행(양도성예금)(129–037847–12–002) | 599,000,000 |
| | | 2) 기업은행(MMF) (129–037847–96–001) | 453,321,196 |
| | | 3) 보통예금통장 | 587 |
| | | 소계(보유 금액) | 1,052,321,783 |
| **'10년도** | | **'10년도** | |
| 전기이월금 | 1,052,321,783 | | |
| 1. 금년도 수입금 | **31,807,040** | | |
| – 수입이자 | 31,807,040 | | |
| **수입 합계('10)** | **31,807,040** | **지출 합계('10)** | **0** |
| | | 지출 총 합계('04~10) | 830,136,725 |
| | | **차기이월금** | **1,084,128,823** |
| | | 예산자금 | |
| | | 1) 기업은행(양도성예금)(129–037847–12–002) | 620,900,000 |
| | | 2) 기업은행(MMF)(129–037847–96–001) | 463,228,236 |
| | | 3) 보통예금통장 | 587 |
| | | 소계(보유 금액) | **1,084,128,823** |
| **합 계('04~10)** | **1,914,265,548** | **합 계** | **1,914,265,548** |

# 2010년도 회기분 재산현황 (대차대조표)

(단위 : 원)

| 자 산 | | 부채 및 자본 | |
|---|---|---|---|
| 1. 유동자산(현금과 예금) | | 1. 부채 | |
| – 현금 | 174,726 | 1) 유동부채 | |
| – 교우회 통장 | 19,417,615 | 2) 고정부채 | |
| – 장학회 통장 | 779,348,326 | 2. 기본금 | |
| – 100주년 통장 | **1,084,128,823** | – 기본재산 | 173,388,100 |
| 계 | 1,883,069,490 | – 보통재산 | 174,726 |
| 2. 유형고정자산 | | – 장학기금 | 779,348,326 |
| 1) 집기 및 비품 | 5,388,100 | – 100주년 기금 | **1,084,128,823** |
| 2) 오피스텔 | 168,000,000 | 3. 이월금 | 19,417,615 |
| 계 | 173,388,100 | | |
| **합 계** | **2,056,457,590** | **합 계** | **2,056,457,590** |

**알림**

- 교우님들의 소중한 100주년 기금은 상기 내역과 같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수입 1,914,265,548원 중에서 830,136,725원을 지출하고 잔액 1,084,128,823원을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100주년 기금 잔액은 교우회의 2010년말 대차대표상의 자산 2,056,457,590원 속에 장학기금 779,348,326와 함께 명확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 당초에 계획했던 100주년 기념관 건립은 차질이 발행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제 10대 교우회에서 100주년 기념관 건립에 준하는 교우회 사무실 매입 또는 임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가장 효율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50



# 휘마동 탄생부터 지금까지

**직능별 동호회 특집 3번째 시리즈로 휘마동(휘문 마라톤 동호회)의 산 증인인 김선기 교우(54회)와 2011년을 맞아 제 6대 회장에 취임한 김응규(67회) 회장 및 역대 회장단을 모시고 휘마동 창립 배경에 얽힌 이야기와 그 동안의 휘마동 활동 및 향후 휘마동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 편집자 –**

## 2002



4월 6일 김선기(54회), 김승기(63회)와 전두선(68회), 양권규(68회) 교우 등 13명이 여의도에서 첫 정기 모임을 가졌다. 김선기 교우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며 졸업생 모임 중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모임을 창설하였다.
의외로 졸업생들이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많아 창설 직후 회원이 50여명에 이르렀다.
9월 15일 제1회 MBC 한강 마라톤대회에 신좌성(42회) 교우 외 31명이 단체로 참가했다. 신좌성 교우(당시 71세)는 이 대회 최고령 완주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때 대부분 회원들은 10km나 하프마라톤에만 참가했고, 완주(42.195km)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김선기 교우, 안대용(61회) 교우, 김용환(67회) 교우, 전두선 교우, 권용학(71회) 교우 정도만 3시간대 완주 능력을 가졌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그 후 본 모임의 활성하기 위해서 자체 홈페이지(www. whimoonmarathon.or.kr)를 제작 완료하여 온라인상에서도 휘마동은 수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2003

3월2일 서울마라톤에 단체로 32명이 참가한 후 처음으로 메이저대회인 동아국제마라톤에 11명이 참가했다.
4월6일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자체 단축마라톤대회를 열어 20km에 안대용(61회), 10km에 안영원(65회), 5km에 김정자(김홍식[68회] 교우 부인) 님이 우승을 하였다.
그 후 일산호수 마라톤단체 26명, 경향서울마라톤 45명, 백제큰길마라톤 37명, 조선일보주최 춘천마라톤 37명 참가했고 중앙국제 마라톤대회에서는 단체 84팀 중에 36위를 했다. 어느 정도 회원들의 기량이 중간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다.
또 한국일보주최 마라톤 동호회 릴레이전에서는 148팀 중 28위에 오르는 등 실력이 날로 발전해갔다.
11월 아디다스대회에 28명이 참가한 것을 끝으로 2003년 공식 대회를 마무리 하였으며 송년 모임에서 김선기 초대회장을 만장일치로 제2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회원은 100명이 넘게 되었다.

## 2004

1월3일 처음으로 시주식을 갖고 한해 무사히 안전 달리기를 기원했다.
서울마라톤 단체 37명, 동아마라톤 18명, 청주마라톤 34명, 바다마라톤 42명, 춘천마라톤에 45명, 남한강 마라톤 37명, 한국일보 릴레이마라톤 45명이 참가해 "최다참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안타까운 일은 67회 박대호 교우가 저녁 훈련 도중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해 많은 휘마동인들은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 history

## 2005

이성오(54회) 회장을 필두로 제2기 집행부가 출범했다.
1월 8일 시주식 뒤 3월13일 동아국제마라톤 37명, 4월 24일 청주마라톤 25명 등 매달 전국대회를 단체로 참가하면서 휘마동은 개교100주년을 맞게 된다. 구 모교 자리인 원서동에서 잠실운동장 메인스타디움까지 성화 봉송에 53명이 참가해 "100주년 기념 체육대회"를 더욱 빛내기도 했다.
송년회에서 제3기 집행부인 강승욱(61회) 교우가 회장으로 선임되어 창립 4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 2006

제3기 집행부는 양보다는 질로 업적을 쌓게 되는데 그 예로 김선기 초대회장이 마라톤 풀코스 50회 완주(3월19일 팔당호를 지키는 물사랑 마라톤 대회)를 기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회원들과의 유대 관계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수락산에서 등산대회를 갖기도 했다.
9월14일 양권규 교우는 강화에서 강릉, 경포대까지 "국토횡단 308km 울트라 마라톤"을 62시간 53분에 완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1월 5일 중앙일보 주최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이상도(79회) 교우도 휘마동의 숙원인 서브3(2시간 59분 9초)를 기록하여 양권규 교우 이후로 또한번의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42회 신좌성 교우는 이 대회에서 76세로 최고령완주자로 기록되어 휘마동은 경사가 겹치게 되었다.
11월 19일 서울 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이해영(49회) 교우가 100km를 14시간 20분에 완주했으며, 이근철(62회) 교우의 부인인 왕명순 님도 12시간 43분을 기록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 2007

3월 동아마라톤에서 김성탁(71회) 교우도 2시간 58분 6초로 서브3를 기록했다.
4월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61명이 참석, 성황리에 기념식을 가졌다. 5월 인제 내린천마라톤대회에서는 이해영(49회) 교우가 마라톤완주 50회를 하게 되었다.
12월 김선기 교우는 구세군자선냄비마라톤대회에서 100회 완주의 대업을 달성하였다. 휘마동 유니폼을 입고 전국 마라톤대회에 100번을 참석하는 열정이었다.
한편 집행부는 12월로 임기를 끝내고 제4기 집행부인 이원집(65회) 회장 체제로 모습을 바꾸었다.



## 2008

3월 동아대회에서 윤수형(71회) 교우가 2시간 58분 34초로 서브3 주자가 되었다.
매월 전국대회를 단체로 참석하는 등 휘마동의 역동성은 잠시도 쉬지 않고 전국을 달려왔다.
또한 연말 김응규(67회) 교우, 단창규(74회) 교우가 새로운 임원으로 추가 선임되어 집행부는 활기를 띄면서 2009년을 맞이하였다.

## 2009

회원들의 출판기념 러시를 이루었다. 대부분 마라톤과 인생이라는 자서전이었으며 42회 신좌성(42회) 교우와 이해영(49회) 교우가 그 주인공.
한편 김선기(54회) 교우는 마라톤 100회 완주와 휘마동 창설에 산파역을 맡은 공이 인정되어 "자랑스러운 휘문인"을 수상, 휘마동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아울러 이해영 교우도 5월 바다의 날 대회에서 100회 완주를 달성하는 노익장을 뽐냈다.
이에 질세라 59회 안덕환(59회) 교우도 국제관광의날대회에서 100회를 완주했다. 휘마동 100회 주자 중 최단기간 기록을 달성하는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집행부의 책임은 강민석(63회) 회장이 맡게 됐다.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52



# 2010

처음으로 단체 무박 2일 설악산 등반을 추진하여 많은 선후배들이 좋은 추억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11월 중앙일보 국제마라톤대회에서 71회 윤수형(71회) 교우가 서브3를 달성하여 명실 공히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3개사 마라톤대회에서 서브3를 달성하는 위업을 쌓았다.(그랜드슬럼 달성) 또 하나의 경사로서 74회인 유승호(74회) 교우도 서브3를 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였다. 회원중 마라톤 입문 최단기간에 서브3를 달성하였다.
스포츠닷컴릴레이마라톤대회에 총 9개 팀이(남자4명+여자1명, 한 팀) 출전하여 오랜 만에 단축 마라톤을 즐겼다.
제6기 집행부인 김응규(67회) 회장으로 새롭게 진영을 편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정리 김응규 회장〉



## 2011년 휘마동 연간 일정 계획 〉〉

01. 01(토) 오전 6시 남산 새해맞이 달리기
01. 08(토) 오후 3시 시주식 및 정모
01. 22(토) 오후 3시 정모
02. 12(토) 오후 3시 정모
02. 20(일) 오전 9시 아! 고구려역사지키기 마라톤대회
02. 26(토) 오후 3시 정모
03. 12(토) 오후 3시 정모
03. 20(일) 오전 7시 단체대회 동아서울국제마라톤
03. 26(토) 오후 3시 정모

04. 09(토) 오후 2시 정모 겸 제9회 휘마동 창립기념대회
04. 23(토) 오후 3시 정모
04. 24(일) 오전 8시 단체대회 음성 반기문마라톤대회
05. 14(토) 오후 3시 정모
05. 28(토)~29(일)
단체산행 지리산 종주
06. 11(토) 오후 3시 정모
06. 25(토) 오후 3시 정모

7월 이후 미정된 단체대회는 추후공지 예정
07.0 9(토)~10(일)
정모 겸 하계캠프
07. 23(토) 오후 3시30분 정모
08. 13(토) 오후 3시30분 정모 겸
08. 단체대회 혹서기대회
08. 27(토) 오후 3시30분 정모
09. 10(토) 오후 3시 정모
09. 춘마(춘천마라톤) 대비 단체대회
09. 24(토) 오후 3시 정모

10. 08(토) 오후 3시 정모
10. 교우회 체육대회 성화봉송
10. 22(토) 오후 3시 정모
10. 단체대회 춘천마라톤대회
11. 12(토) 오전 3시 정모
11. 26(토) 오후 3시 정모
11. 단체대회 구간마라톤대회
12. 08(목) 오후 7시 송년회

# interview

**동장군의 위세가 아직 등등했던 지난 2월 12일(토) 오후 3시경 여의나루역 고수부지 근처에서 삼삼오오 모여 가볍게 몸을 풀고 있는 건장한 중년의 마라토너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 중 빨간색의 'W' 글자가 새겨진 하얀 모자와 '휘문'과 'OO회 XXX' 글씨가 유난히 눈에 띄이는 형광초록색의 유니폼을 입은 휘마동 회원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몸 풀기를 위한 집단 스트레칭과 약간의 줄맞춰 도로 달리기를 함께 한 후에 옆에 있는 까페에서 향기 좋은 커피를 즐겼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인터뷰에 오기 전 생각했던 단순한 동호회 수준이 아닌 프로페셔널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전문 동호인 모임의 성격이 느껴지고,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감이 교류되고 있는 독특한 성격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터뷰 내내 휘마동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회원들의 말씀을 통해 휘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표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일 시** 2011년 2월 12일(토) 16시~
**장 소** 여의도 여의나루역 까페
**참석자** 김선기(54회) 초대회장, 이성오 회원(54회 제 3대회장),
장용이(56회) 교우회 사무국장,
이승도 회원 (62회, 휘산회장 ), 김응규(67회) 현 회장,
양권규(68회) 훈련부장,
이상진 편집위원장(67회),
송윤근 편집위원(72회) , 이상 8명

사진은 좌로부터 김응규(67회) 현 회장, 김선기(54회) 초대~2대 회장, 양권규 회원(68회), 이성오(54회) 3대회장, 이승도 회원 (62회, 휘산회 회장), 이상진 편집위원장(67회)

**Q** **우선 휘마동 창립 배경 및 그 동안의 활동상을 말씀해 주시지요.**

**A** 2002년 초 취미로 마라톤을 하다가 모 대회에서 만난 김선기 교우(54회), 김승기 교우(63회), 전두선 교우(68회)가 마라톤 동호회 결성에 의기투합한 후에 몇몇 교우들을 더 설득하게 되었다. 2002년 4월 6일 10명의 교우를 더 포섭하여 13명의 발기회원이 여의도에서 첫 정기모임을 갖고, 김선기 교우(54회)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하여 휘마동을 창설하게 됨. 우리보다 먼저 2001년도에 결성되어 활약 중이었던 '용달사모'(용산고 동문 마라톤 동호회)에 자극을 받아 휘마동의 창립을 서두르게 된 점도 하나의 요인이었지요.

초기에 김선기 초대회장이 자비 500만원을 들여 전 회원의 유니폼(100벌)을 구입하고, 기수와 이름을 새겨서 나눠 주면서부터 회원 유치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환 교우(67회) 는 당시 산업은행 마라톤 동호회 회원(당시 휘마동 회원 중 최고기록인 4시간 2분 보유 중)으로서 그곳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휘마동 훈련부장을 자처한 후 전 회원의 걸음마 수준의 마라톤 실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물심양면의 희생을 통해 돈독한 선후배간 유대감이 형성되어 현재 12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메이저급 마라톤 대회 및 외국 마라톤 대회에(뉴욕, 도쿄 및 보스톤 마라톤대회 등)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적(*서브3 및 완주)을 거두고 있는 상황으로 타 학교 및 타 동호회로부터 크게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서브3 마라톤 풀 코스를 3시간 이내 완주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54



**Q** **휘마동 회원들의 실력이 상당하여 타학교 및 동호회에서 부러움을 산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자랑해 주시지요.**

**A** 워낙 뛰어난 기량을 갖춘 회원들이 많은데 그 중, 양권규 교우(68회)는 4개 대회 울트라 마라톤대회를 완주했으며(최장 거리 2006년 9월 한반도 횡단 308km : 사진의 62시간 53분) 풀코스 42.195km를 100회 이상 완주한 회원이 3명이고 (김선기 교우(54회, 69세) : 124회 완주 중, 이해영 교우(49회, 79세) : 145회 완주 중, 안덕환 교우(59회, 64세) : 149회 완주 중), 국제공인 풀코스 서브-3를 달성한 회원이 4명입니다.

**윤수형 교우(71회)** 2008년 3월~ 2010년 11월 4개 대회에서 달성(동아, 조선, 중앙일보 3개 대회 그랜드 슬램 달성, 2시간57분45초 휘마동 최고기록 보유자)
**김성탁 교우(71회)** 2007년 03월18일 동아 서울국제마라톤(2시간58분06초)
**유승호 교우(74회)** 2010년 11월07일 중앙 서울국제마라톤(2시간59분24초)
**이상도 교우(78회)** 2006년 11월05일 중앙 서울국제마라톤(2시간59분09초)
또한 신좌성 교우(42회)는 국내마라톤대회 최고령 완주자로 선정되어 휘문 마라톤을 대외에 과시하셨습니다.




**한반도횡단 308km 울트라마라톤대회 양권규 교우(68회)** 2006년 9월 14일

**Q** 대외적으로 휘문의 이름을 홍보하시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대회마다 유니폼이 따로 있으나 휘마동 회원들은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유니폼 위에 반드시 휘마동 유니폼을 추가로 입고 달리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참석하는 마라톤 애호가 및 관중들에게 휘문을 알리고 있습니다. 단체나 개인별 연습 시에도 반드시 휘마동 유니폼을 덧입고 뛰면서 휘문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Q** **모교와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2005년 10월 휘문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53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구 모교 자리인 원서동에서 성화를 채취한 후 서울 시내 주요 곳곳을 돌면서 "100주년 기념 전진대회 및 체육대회"가 열리는 잠실 주경기장까지 마라톤을 하며 성화 봉송을 하여 점화까지 함으로 많은 교우들로 하여금 큰 감동을 자아 낸 것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고, 저희들도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Q** **올해 모교의 마라톤 동아리 창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올해 휘마동은 모교 김선창 교장과 협의해 학생 마라톤동아리 창설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전교생이 명실공히 학업과 운동을 겸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명문학교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휘마동에서 훈련지원과 대회 참가비 납부 및 유니폼 지급을 하는 등 재학생 마라톤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Q** **마라톤이 건강에 좋은 점을 열거해 주신다면……**

**A** 좋은 점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으나 그 중,

- 체중 감량 – 보통 10~20Kg 감량(1년 사이에)
- 실력 향상 – 보통 1시간 ~2시간 기록 단축
  (처음 기록 5시간 – 1년 후 3시간 반)
- 폐활량 증가, 체력 향상 – 휘산회 회원을 능가할 정도로 산에서 펄펄 날고 있음.
- 질병 치료 – 마라톤 중에 질병(암 등 성인병)이 조기 발견되어 치료 및 수술을 한 결과 건강을 회복하여 지속적으로 마라톤을 하고 있음. 실제로 암이나 치명적인 병이 발견 되어 수술 후 복귀한 교우가 다수 있음.
- 행복 증진 – 가족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음. 특히 회원 부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2세가 마라톤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가정 화합의 모범이 되고 있음.

**Q** **그 외에도 자랑할 게 있다면…**

**A** 첫째, 개인적으로 일단 마라톤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평소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주말의 정기 모임이나 대회를 염두에 둔다면 평소에 스스로 체력 단련을 하게 됩니다.

# interview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 2011년 02월 12일

운동이 생활이됩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회원들 중에는 용인에서 마라톤으로 출퇴근하는 회원, 강동에서 의정부까지 뛰어서 출퇴근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둘째,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하는 정기 모임에서는 2시간 스트레칭 및 마라톤, 1시간 목욕 및 약 2시간의 저녁 식사가 10년째 패턴화되어 있고, 연회비도 5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정기 모임의 회비는 전액 더치패이라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유니폼은 신입회원에 대해 아직도 김선기 교우께서 이름을 새겨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참여하고 진입하기 참 쉬운 동호회입니다.
셋째, 휘마동에는 약 12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정모에는 약 30명, 대회에는 약 40명의 회원이 참여합니다. 회원 중에는 42회 신좌성 교우로부터 96회 이호준 회원(군인)까지 있는데 약 50년의 세월을 뛰어 넘어 폭 넓고 다양하게 참여합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자같은 차이에도 함께 목욕을 합니다.
반드시 목욕 교제를 합니다. 정모 때에 한번도 쉬지 않고 목욕을 하며 스킨십도 하고 때도 밀어 주고 몸도 보면서 사랑과 정을 나눕니다. 목욕교제는 휘마동의 또 다른 혈관입니다. 10년째 여의도의 같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합니다.
넷째, 휘마동은 전국 고교동창회 마라톤동호회로는 최고의 수준과 최상의 단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년 먼저 시작한 용달사모는 식사와 교제 위주로 운영되다가 거의 유명무실해 졌고, 중동, 서울, 경기, 경신 등 몇 개 학교도 동호회를 만들었으나 우리와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고 학교의 최고 마라톤 동호회로서 가슴 속에 살아 있는 자부심이 우리의 호흡하는 산소요 우리의 먹을 양식입니다. 전국을 누비는 휘마동의 유니폼은 휘문의 살아 움직이는 홍보 광고물입니다.

**Q** **끝으로 교우들께 한 말씀하신다면….**

**A** 마라톤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체력이 특별히 좋거나 운동을 잘 하는사람만 할 수 있는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건강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뛰고 달리며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기를 희망한다면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오후 3시에 여의나루역 고수부지에서 휘마동을 찾으세요. 초보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휘마동은 언제나 열려

## 역사를 창조한 위대한 영웅 그대들이여…
## 휘문의 자존심과 긍지로… 영~원하라!!!

42회 신좌성(교우회 고문단 단장)
48회 유동건(6대 교우회장)
50회 김병희(7대 교우회장)
50회 신기철
52회 조인휘
54회 김선기(1~2대 휘마동 회장, 자랑스런 휘문인)
55회 이남수
56회 장용이(교우회 사무국장 역임)
63회 김승기(전 런너스클럽 회장)
67회 김용환(당시 4시간 2분,최고기록 보유자)
68회 전두선
68회 양권규
75회 김진수

**13인의 휘마동 창립회원** 2002. 4. 6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56





마라톤과 목욕 후에 회원들간의 회식, 2011년 02월 12일 정기모임에서…

있습니다. 대회에 꼭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요일 대회에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허락하는 수준까지, 자신이 허용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 마라톤을 즐기면서 회원들과 얼마든지 화기애애하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휘마동은 교우님들을 기다립니다. 휘마동은 영원할 것입니다.
김응규 회장(010-9096-3640)이나 권용학 총무(71회, 010-5068-9690)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준 휘마동 김선기 명예회장님과 김응규 회장님 외 여러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휘마동의 이름으로 모든 휘문교우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및 정리: 송윤근 편집위원(72회)〉

## 자랑스러운 휘문인 선정 54회 김선기 교우

휘마동의 실질적인 창설자요 양육자로서 초대~2대 회장을 역임한 54회 김선기 교우는 사회적인 네임 밸류나 직위가 아니고, 순수하게 휘문 마라톤 동호회를 조직하고 육성한 공로와 후배 휘문인에게 보여 준 따뜻한 사랑으로 2009년에 자랑스러운 휘문인으로 선정되었다.
– [現] 의정부 성심정형외과 원장



▶ 선정 당시의 공적 (교우회 홈피)
건강증진에 활력소가 되는 유산소 운동인 마라톤을 교우들에게 적극 보급하고자 2002년 4월 휘문 마라톤 동호회를 창설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풀코스 마라톤 대회에 참가 107회 완주의 대기록을 세웠으며, 이 기간 한결같이 휘문 마라톤의 유니폼을 입고 모교사랑을 달리기로 실천하여 모교와 교우회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음.

## 휘문 교우회보 "큰사람" 65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 휘마동 임원진 및 회원일동

| | | | | | | | |
|---|---|---|---|---|---|---|---|
| 고문단 | **신좌성** (42회) | | **김선기** (54회) 1~2대 회장 | | **이성오** (54회) 3대 회장 | | |
| | **강승욱** (61회) 4대 회장 | | **이원집** (65회) 5대 회장 | | **강민석** (63회) 6대 회장 | | |
| 7대 회장 | **김응규** (67회) | 부회장 | **전두선** (68회) | 부회장 | **김흥식** (68회) | | |
| 총무 | **권용학** (71회) | 총무부 | **유승호** (74회) | 총무부 | **이성일** (79회) | | |
| 훈련부 | **서민규** (74회) | 훈련부 | **민경남** (77회) | 홍보부 | **이한구** (72회) | | |
| 홍보부 | **단창규** (74회) | 회계부 | **이성규** (74회) | 회계부 | **홍영준** (79회) | | |

● 정례모임 매월 2,4 주 토요일 오후 3시 여의나루역 한강 둔치에서…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57



## 백선회

회장 문대진(00회) 010-5231-6107
총무 김강훈(00회) 010-5265-6609

백선회는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교우들의 모임이다. 학창 시절에 쓰던 교모의 흰색 둥근 테의 아름다움을 이어가고자 하는 뜻에서 백선회라고 이름을 지었음.

**1. 단체행사**

짝수달 2째주 금요일 저녁 7시 정기모임

**2. 소그룹 행사**

희망자에 한해 부정기적으로 등산, 번개모임 등을 시행함.

**●◎ 회원 동정**

· 김종립(66회) 교우 – 광고대행사 LG AD의 지주회사인 GIIR 대표이사 취임, 현재 LG AD와 GIIR의 겸임대표
· 정진용(67회) 교우 – 동부그룹 브랜드 컨설팅 부사장 승진
· 이남석(69회) 교우 – 이코노믹 리뷰 부사장 승진(2010. 09. 03)
· 문대진(72회) 교우 – 제9대 백선회 회장 취임 (2010.12.10 송년회에서)

**●◎ 경사**

강명수(70호) 교우–차녀 결혼 (2010.09.10)

**●◎ 조사**

안영규(63회) 교우 – 뇌출혈로 입원 치료 중 (2010.09.22 장위동 온누리병원)
안영규(63회) 교우 – 모친상 (2010.10.12)

## 외휘회

회장 함형욱(65회)
사무총장 송윤근(72회) 010-3765-6497

**1. 2010년 추계산행대회**

일 시 : 2010년 10월 17일(일)
장 소 : 인왕산 ~ 북악산
참석자 : 63회 안희곤 회장 등 10명




**2. 송년의밤**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19시
장 소 : 유림낙지(종로구 서린동 129-1) 2층
참석자 : 안희곤 회장 등 20명

**3. 뮤지컬 단체 관람**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 송승환 회원 제작 (PMC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오후 8시
장 소 : COEX ARTIUM
참석자 : 함형욱 회원(65회) 등 30명

**4. 휘모리 송년모임**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19시
장 소 : 역삼동 등나무집
참석자 : 74회 하현호 회원(74회) 등 11명

**●◎ 회원 동정**

· 송승환 교우(67회)- 성신여대 융합문화예술대학 학장 취임.
· 김전산 교우(76회) - 삼성물산 철강팀에서 근무하다 10월 1일부로 CJ오쇼핑 글로벌전략담당으로 영전.
· 정운평 교우(76회, 불어과) Data Monde Inc. CEO/Town Cast Inc.CMO 취임.
· 이찬복 교우(67회, 무역학과) LG이노텍 상무에서 12월 16일 해외마케팅 부문장 전무로 승진.
· 오승우 교우(79회, 영어과) 삼성증권 강동지점에 근무하다 금년 1월부로 우리투자증권 Premier Blue 강남PB센터 부장으로 영전.
· 김태은 교우(71회, 한교과) 신한은행 본점 총무부장으로 승진

**●◎ 조사**

김만진 교우(69회, 무역학과) 부인상 : 9월 7일
유희인 교우(67회, 독일어과) 부친상 : 11월1일
이일우 교우(67회, 법학과) 본인상 : 11월 21일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58



## 우리은행 휘문교우회

회장 송명재(67회)
총무 정공흠(74회) 010-3267-1319

### ●◎ 회원 동정

– 우리은행에는 37명의 교우가 재직 중에 있으며 지난 2010년 12월 임원인사에서 2명의 교우가 임원에 발탁되었다.
66회 강원 교우 : 중소기업고객본부 부행장 (승진)
67회 김양진 교우 : 업무지원본부 부행장 (유임)
– 66회 정전환 교우 군인공제회 재무정책 이사
우리은행 기업고객본부 부행장, 벽산건설 부사장을 역임한 정전환 교우가 2010년 6월 군인공제회 재무정책이사로 취임하였다.

## 휘문 OB 합창반

회장 정재형(73회) 019-240-6448
총무 이준규(87회) 010-3897-7433

### 1. 2010년 송년회

휘문 OB합창반은 2010년 12월 17일 삼성동 공항터미널 내 중화요리 차이란(82회 이상원 교우)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3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근황을 확인하고 신년도 합창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2. 2011년 신년하례식

운영진은 2011년 1월 19일 중화요리 차이란(82회 이상원교우 운영)에서 신년 하례모임을 갖고 2년 임기의 신임회장으로 73회 정재형 교우(유한킴벌리 부장)를 선임하였다. 정재형 회장은 2011, 2012년도 역점 사업으로 최근 7년간 단절되어 있는 재학생 합창반과의 연계 및 40년 전통의 합창반 출신의 교우들을 끌어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졸업생들의 학교 방문, 휘문의 밤 찬조 출연 등의 계획을 공표하였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된 여건 하에서 효과적인 휘문합창반 재건을 위해 학교 측과 교우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앞서 무엇보다도 OB합창반 교우들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모두 입을 모았다.

### ●◎ 회원 동정

· 김민성 교우(88회) 집들이 – 2011년 2월 25일 금요일 휘문합창반 운영진은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교우의 신혼집에 초대받았다.
· 이상원 교우(82회)는 삼성동 공항터미널 내에 중화레스토랑 "차이란"을 개업했다.

### ●◎ 경사

김민성 교우 결혼(88회) – 2010년 12월 18일 강남팰리스 웨딩홀에서 결혼

## 휘건회

회장 민병직(61회) 010-9572-9963
총무 조한혁(71회) 010-2007-8962

### 1. 2010년 10월 17일 추계골프모임

프리스틴밸리 CC 이날 모임에는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중겸 교우를 비롯하여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였다.



### 2. 2010년 11월 13일 추계등산모임 – 청계산

### 3. 2010년 12월 1일 송년모임 – 프리마호텔 10층 스카이홀. 이날 모임에는 51회 이명산 교우부터 막내 기수 91회 박준규 교우까지 최대 40년 차이의 선후배 60명이 참석하였다.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59









●◎ **경사**

1. 9월 26일 이희두 교우(65회) 장녀 결혼
2. 11월 6일 문창엽교우 (61회) 장남 결혼
3. 11월 12일 이상재 교우(55회) 아들 결혼
4. 12월 4일 허　열 교우(56회) 아들 결혼
5. 12월 16일 민병직 휘건회장(61회) 장남 결혼
6. 12월 18일 김양중 교우(61회) 차녀 결혼
7. 2011년 2월 13일 박세정 교우(56회) 차남 결혼

●◎ **조사**

1. 10월 15일 최영수 감사(69) 부친상
2. 12월 31일 박현규 부총무(73회) 빙모상
3. 2011년 1월 31일 김용철 교우(61회) 부친상

## 휘당회

회장 나병웅(60회) 011-1727-7902

휘당회는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이다.
본 모임은 매월 4째주 토요일에 종로3가에 있는 국일관건물 6층 아카데미 당구장에서 오후 4시에 시작된다.

♥ 2010년 10월 23일 제1차 대회를 시작하여, 2012년 2월 26일 5차 대회까지 모임을 가졌다.
현재는 한때 1,000 당구를 자랑했던 신기철 교우(50회)를 비롯하여 조인휘 교우(52회), 영원한 응원단장 나병웅 교우(60회)등 약 3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하고 있다.

## 휘문화회

회장 백순진(60회) 간사 한동헌(69회)
총무 윤석진(80회, 010-9211-2839)



휘문화회는 휘문+문화, 즉, 휘문과 함께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우들의 모임이다. 문화라는 코드를 중심으로 휘문 사랑과 동문 연대를 실천하고자 한다.

2008년부터 소모임으로 시작하여 40회대부터 90회대까지의 다양한 연령과 직종에서 문화를 사랑하는 100여 명의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으며, 약 30 여명의 회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분기에 1회 정도의 정기 모임과 이슈에 따라 비정기 모임을 하며, 최근에 3월 7일 올 첫 모임을 가졌다.
회장인 백순진 교우는 과거 "장미"로 유명한 4월과5월의 멤버이며, 차인태 교우(55)가 고문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교우간의 경험을 나누는 친목 도모 외에, 교우들이 주축이 된 "휘문의 밤" 행사와 최근에 한글 보급을 위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후원 등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60



## 휘와회

회장 이경남 019-316-9982

**1. 휘와회 소개**

2003년, 이석재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와인을 좋아하는 65회 교우들이 모여 결성한 모임으로 2008년부터 이경남 2대회장 외 운영위원 이진경, 성규방, 류재권(71회), 이명렬(73회) 교우 등이 모임을 이끌고 있다.

정기 모임은 매월 3번째 주 목요일 저녁에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98차 모임을 갖는 동안 시음한 와인은 17개국 750종에 이른다.



휘와회 커뮤니티 는 현재 가입 교우 10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 4월에는 권혁홍 전 교우회장(8대)으로부터 커뮤니티 활성화 공로패를 수상한 바 있다.

http://www.club.kr/community/cafe/main

## WAC

회장 정현태(64회)
총무 이명호(64회)

매월 2째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도봉산 입구에서 모여 선후배들이 함께 산행을 정기적으로 하며 2011년 신년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고문: 천기철(61회)
회장: 정현태(64회)
총무이사:이명호(64회)
대외이사 : 최승기(65회)
산악대장 : 김응규(67회)

2011년 3월 12일 WAC시산제 행사를 갖고 산에 대한 감사와 안전한 산행을 기원하였다.



**●◎ 회원 동정**

성기형 교우(64회) 빙모상 3월 6일

## 휘문골프회

회장 김도연(69회)
총무 박 현(80회) 010-3792-4267)

**1. 정기 모임**

휘문골프회 정기 라운딩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장소 : 경기도 광주 소재 그린힐컨트리클럽
비용 : 그린피는 140,000원, 카트비, 캐디피 별도 부담 조건

**2. 2011년 첫 정모**

3월 3일 목요일 11시 57분에 4팀으로 시작했다.

**3. 새소식**

연회비를 대폭 줄여 10만원을 받고 있다.
연회비는 기념품 제작 비용, 하계, 동계 야유회 비용으로 활용한다.

**4. 교제의 장 : 홈페이지** www.whimoongolf.com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61



## 휘산회

회장 이승도(62회)
총대장 안영원(65회)

### 1. 시산제

3월 6일 제 18차 2011년 시산제를 북한산 절터에서 거행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제주인 이승도 휘산회장(62회)을 비롯하여 신흥우 교우회장, 민인기 이사장, 권혁홍 명예회장 및 42회 신좌성 교우부터 91회 박유영 교우까지 총 528명이 참석하였다.




모든 참가 교우들에게 고급 머프를 기념품으로 증정했으며 최상택 교우(62회)는 다이아를 포함한 60여점의 보석류를, 조태원 교우(68회)는 500병의 막걸리를, 정택선 교우(79회)는 200병씩의 소주와 생수를 협찬하여 어느 해보다 풍성한 시산제가 되었다.




### 2. 2011년 이승도 회장(62회) 취임

2010년 12월 14일 150여명이 참석한 휘산회 정기총회 (장소 : 리더스 나인) 에서 김홍일 회장(61회)에 이어, 휘문IT 회장을 역임했던 62회 이승도 교우가 제 8대 휘산회장으로 취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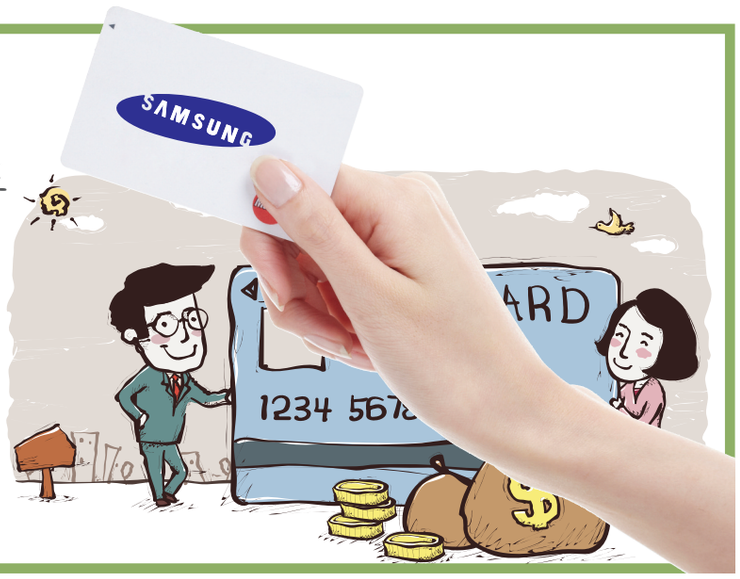
총대장에 안영원(65회) 교우, 신임 총무에 이광철 교우(70회), 이상욱 교우(74회), 박영호 교우(74회), 신임대장에 허민 교우(82회), 감사에 최재희 교우(70회)가 집행부로 추가 임명되었다.

이승도 회장은 휘산회장 직을 수락하며 2011년의 주요 계획으로 200회 산행 행사 및 설립 20주년 휘산회 백서 발간 준비와,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외연 확대 등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삼성카드 황순옥

행복을 배달하는 삼성카드
발급, 사용 도와 드려요

잠실지점 컨설턴트
**황순옥 010-9367-2596**
(67회 고 위재준 교우의 가족)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2 페이지 62



## 서울경기 남부지회

회장 최창순(63회) 010-9022-7172
총무 김학수(72회) 019-263-4624

**단체 행사**

1. 2010년 11월 24일 (수) 수원 삼풍가든에서 4/4분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참석 인원 52명)
2. 2011년 3월 중순 2011년도 1/4분기 정기총회
3. 2011년 5월 5일 5대 사립고(휘문, 양정, 배재, 중앙, 보성) 제 2회 수원지역 동문 체육대회 예정

**지회 소식**

휘남회 (등산 모임)

1. 2010.11.13 (토) 37차 정기산행 – 광교산
2. 2010.12.11 (토) 39차 정기산행 – 관악산
3. 2011.1.8 (토) 40차 정기산행 – 광교산
4. 2011.2.12 (토) 42차 정기산행 – 삼성산

**●◎ 조사**

2010년 12월 17일 63회 송인섭 교우 모친상
2011년 1월 11일 72회 김학수 교우 부친상

## 북부지역 교우회

회장 허인규(68회) 010-8856-1005
총무 신성수(71회) 010-9036-0388

**단체 행사**

1. 제18회 교우회 체육대회 안내, 12월 송년모임 안내.
   2010. 10. 5일 의정부시 옛골 쌈밥에서 25명 참석
2. 추억의 휘문의 밤
   2010. 12. 9일 의정부컨벤션센터에서 44명 참석
   휘문 야구 동영상 감상, 54회 김선기 교우 색스폰 연주, 65회 이용주 교우 명시 낭송, 65회 이종헌 교우(의정부윈드오케스트라단장) 클라리넷 연주, 69회 김인철 교우(의정부 음악지부장, 청소년오케스트라지휘자) 4중주 연주, 71회 시인 신성수 자작시 '큰사람이 되자' 낭송




**●◎ 교우 동정**




68회 성헌식 교우(안시성과 살수 출간)
71회 김운형 교우(경민대학교 교수,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71회 신성수 교우(2011 문학세계 선정, 한국문학을 빛낸 200인 선정)

**●◎ 조사**

49회 김영대 교우 별세
64회 이문택 교우 별세
54회 김선기 교우 장모상
68회 허인규 교우 모친상
70회 이계림 교우 장인상

## 대전 · 충청지역 교우회

회장 이낙영 (63회) 010-3454-5437
총무 윤 청 (65회) 018-450-4561

**1. 단체 행사**

2010년 12월 7일(화) 유성호텔에서 송년회를 부부동반으로 개최하였다. 1부는 정기총회, 2부는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하였다.




- 2010년 현재 총원은 222명으로, 대부분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또는 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며, 34회에서 88회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 정기행사로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체육대회, 등산, 나물따기 등 이 있으며, 골프, 당구, 낚시, 등산, 테니스 등의 취미별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 당구동호회에서 2월 22일 법원 앞에 있는 둔산류당구클럽에서 임시대회를 열었다. 6명 참석. 김진배 교우가 1위, 이시훈 교우가 2위를 차지했다. 우진하, 김홍수, 이철형 교우는 모두 2승 3패로 동률을 이루었고 지난 대회의 성적을 토대로 김홍수 교우가 3위, 우진하 교우가 4위, 이철형 교우가 5위를 차지하였다.
- 2010.10.30에 대전 현충원 근처의 갑하산 산행이 있었고, 뒷풀이를 거저울곤드레돌솥밥(56회 박찬우 교우)에서 가졌다.

# 지역별교우회

**교우 동정**

왕진석(56회) 교우 충남대 전자공학과에서 정년퇴임(2010.8.31)
이현구(56회) 교우 충남대 지질학과에서 정년퇴임(2011.2.28)

**경사**

이종인(61회) 교우 차남 결혼(2010.10.16)
박찬우(56회) 교우 장남 결혼(2010.12.12)

**조사**

김시달(70회) 교우 부친상(2010.10.31 발인)
김도경(59회) 교우 빙부상(2010.11.23 발인)

## 부산지역 교우회

회장 양승훈(60회) 010-3584-1244
총무 한동우(73회) 010-3875-9057

김충기(46회) 교우로부터 안상우(79회) 교우까지 3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짝수달 네번째 목요일 저녁 7시 정기모임을 가지며, 70회 이하 교우들은 별도로 번개 모임을 종종 한다.

지난 2월 25일 신흥반점에서 11명의 교우가 모임을 가졌다. 부산에서 유니온스틸(연합철강 자회사)의 공장장(전무)으로 근무하던 이주홍(58회) 교우가 서울로 영전해 가면서 마지막 자리를 했다.







## 태백정선지역 교우회

회장 박학도(61회)
총무 박도준(70회) 010-4954-7744

약 7~8년 전, 55회 이강희 교우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할 때부터 유지해 왔다. 현재는 61회 박학도 영암고속 회장이 회장이고, 70회 박도준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총무이다. 김진관 교우(80회) 와 차현수 교우( 82회)가 행정 및 연락담당 부총무이다.

**단체 행사**

1. 2010년 송년모임 2010년 12월 1일 충남실비 식당
   박학도 회장(영암고속 회장)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교우가 참석했다.
2. 행사 예정 2011년 4월 25일 1/4분기 정기모임 개최예정



## 제주지역 교우회

회장 고동희(58회)
총무 김이석(73회) 010-3699-9930

**1. 단체 행사**

2011년 1월 이취임식을 시행하였다. 작년 1년간 수고한 57회 이성근 교우와 올 한 해 수고할 58회 고동희 교우의 이취임 인사가 있었다.

**2. 제주 휘문교우회 소개**

- 회원은 40여명 되고, 두 달에 한 번씩 정규모임을 갖는다. 1월부터 11월까지 홀수 달, 셋째 주, 목요일 7시경에, 그리고 12월 송년회는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갖는다. 5월에 서귀포 중문지역에서, 7월에 함덕 해수욕장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제주시에서 모인다.
- 서울로 유학 갔다가 귀향한 제주출신 교우들과 제주도로 이사한 교우들, 그리고 직장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잠시 거주하는 교우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모임을 갖는다.



**3. 주요 연락처**

http://www.whimoonob.net/community/default.asp?cid=jeju
73회 김이석(김구식) 010-3699-9930 kimyiseok@paran.com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3 페이지 64



## 뉴질랜드 교우회

회장 양승훈(60회) 010-3584-1244
총무 한동우(73회) 010-3875-9057

· 2010년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 김완섭(63회) 교우의 자택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박치원(48회) 교우의 인사말로 시작된 송년 모임은 고국에서 전해 온 64호 교우회보 전달과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고, 살림을 맡아 운영할 신임 총무인 김용국(81회) 교우의 소개가 있었다.

· 2011년 1월 16일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무리와이 비치 골프 클럽에서 박치원(48회), 김완섭(63회), 김영걸(64회), 이천형(64회)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4가족 2팀으로 골프 모임이 있었다. 골프 모임 후 저녁 식사 자리에는 박성규(54회) 교우가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같이 하였다.

· 2011년 첫 정기 교우회 모임이 2월 12일 오후 6시 30분에 Albany에 위치한 자금성에서 있었다. 이 날은 김영걸(64회) 오클랜드 총영사의 환송연을 겸하였는데, 3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누었다.







## LA 교우회

**고국의 은사 초청**
**초청 은사** 장영준(52회) 선생님, 김수곤 선생님
**공식 일정** –
11월 29일~ 30일부터 12월3일 그랜드 캐년을 비롯한 서부지역관광. 12월 3일 오후~ 4일 저녁 LA 주요 지역 관광, 12월 4일 저녁 "남가주 휘문교우회 송년의 밤" 부부동반 행사에 참석
**비공식 일정** – 장영준 선생님
김재수 교우(68회, LA총영사) 초청으로 영사관저에서 조찬, 얼바인지역 교우들의 초청으로 얼바인에서 만찬.



왼쪽부터 2번째 장영준선생님, 5번째 김수곤선생님

### 장영준 선생님의 감사 인사!!

이번에 김수곤 선생님과 동행하였는데 김수곤 선생께서는 공식 일정 후 장남이 사는 아틀란타에 들렀다가 귀국하시고, 본인은 그곳에 더 머물며 선후배들 및 친구들과 제자들을 만나고 11일 오후 5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4일 송년의 밤 행사에는 45회 선배님들로부터 90회 후배까지 오셨었지요. 많은 분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헤어질 때 변변히 인사도 못 드린 점 또한 이 지면을 통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또 선배님이면서 학교에 같이 근무했던 김석동 선생님! 30대의 체력을 능가하는 모습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공식 일정 외에 LA 총영사로 있는 68회 김재수 교우의 초대로 함께한 영사관저에서의 조찬, 얼바인 지역 교우들의 초청으로 얼바인에서의 만찬(회장 67회 김호영 교우) 등은 특히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비공식일정을 호텔이 아닌 자기 집에 머물게 하려고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 집안 일로 서울에 왔다가 나에게 전화를 해, 우리 집에서 하루 밤 재워 달라하고, 아침에 자기가 우리 집에서 자야 선생님이 자기 집에서 편히 머무실 수 있다고 선수를 치고는, 비공식 일정 동안 자기 집 2층을 통채로 내주었던 75회 윤종열 사장, 너무 고마웠어요. 얼바인에서 나를 위해 하루를 온전히 내서 관광도 시켜 주고,

# 해외교우회

맛있는 음식도 사준 82회 전상훈 사장, 그밖에 52회 친구들, 또 69회 강정민 사장, 70회 김동욱 교우, 73회 최원식 교우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竹田閑人 張榮俊

· 칠후회(남가주지역 70회 이후 기수들의 모임) 홍성두 회장(70회), 김상철 총무(77회), 조병덕 이사장(66회) 등에게 특별히 감사한다는 말씀 있었음.
그 밖에 수고한 교우들: 김윤택 (75회), 전상훈(82회), 이경우(82회), 김희성 교우

## 뉴욕 교우회

회장 김윤상(63회)
총무 신용철(69회) 732-735-8266

**행사**

· 우명식(53회) 교우를 비롯한 12명의 뉴욕 휘문교우회 회원들은 2010년 10월 28일 저녁 7시에 18대 뉴욕 휘문교우회 이사장 선출과 회장 선출 등을 위해 포트리에 위치한 풍림식당에서 이사회를 가졌다. 이사장으로는 김재옥(62회) 교우가 선출되었고 회장으로는 김윤상(63회) 현 회장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골프회 회장으로는 박형도(66회) 교우가 선출되었다. 이 날 2010년 회계 보고와 2011년 1월에 있게 될 '휘문의 밤' 행사 준비에 대한 내용이 함께 논의 되었다.

· 2011년 1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 다이아몬드 홀에서는 뉴욕 휘문 교우들의 단결과 우정을 과시하는 '휘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차가운 날씨였지만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디너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고 휘문가족의 우정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하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



앞줄중앙 윤관호 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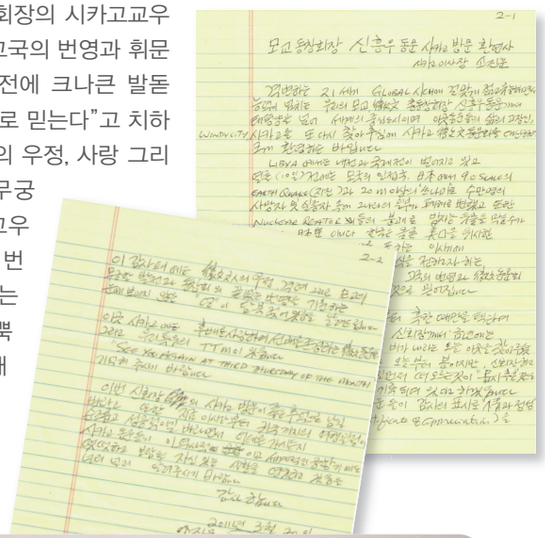
●◎ **회원 동정** 윤관호 교우(59회)

· 2011년 3월 3일 오후 7시 30분에는 같은 장소인 대동연회장 그랜드볼룸에서 봄처럼 마음이 포근해지는 '누이 이야기' 라는 시집을 출간하여 20여명의 교우들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뉴욕 한인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고 교우들뿐만 아니라 많은 친지,친척들이 참석하여 시 낭송과 성악 및 악기 연주, 축사 등을 함께 하면서, 뉴욕 밤 하늘에 휘문인의 아름다운 감성이 가득한 문화의 밤을 즐겼다.

## 시카고 교우회

회장 장보공(59회)
총무 강효흔(69회)

시카고 휘문교우회(회장 장보공)는 지난 3월 20일 우래옥에서 시카고를 방문한 신흥우 교우회장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환영회에서 소진문 시카고교우회 이사장은 친필 편지에서 신흥우 교우회장의 시카고교우회 방문은 "고국의 번영과 휘문교우회의 발전에 크나큰 발돋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치하하고 휘문인의 우정, 사랑 그리고 모교의 무궁한 발전과 교우회의 끝없는 번영을 기원하는 "얼"이 듬뿍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 왼쪽부터 조원경(58회), 임영진(51회), 소진문 이사장(50회), 신흥우 교우회장, 강효흔(69회), 장보공 회장(59회)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3 페이지 66



## 10월 14일 테마학습

버스를 대절해 멋진 여행을 떠난 반, 투덜대면서도 서울 역사박물관까지 가서 살면서도 몰랐던 서울의 역사를 알고 돌아온 반, 집 앞 양재천에 가서 풀내음 나는 공기를 마시고 온 반, 내일부터 축제인데 그 전날에도 수업이 없으니 좋지 아니한가. 일정이 끝난 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자. PC방에서 모니터만 쳐다보지 말고.



## 10월 15일~16일 한티축제

작년 신종플루로 인해 많은 것'을 빼앗겼던 2학년들. 정말이지 미친듯이 즐기자는 마음뿐이었는지 첫날 체육대회, 둘째 날 축제, 모두 정신을 놓고 즐겼다. 일상과 다른 하루하루를 즐기면서도 역시 일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는지, 축제를 즐길 생각은 없고 PC방으로 달려가는 학생들도 보였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이것저것 사 먹으랴, 고맙게도 왕림해주신 여고생들 감상(?)하랴, 강당에서 부르는 멋진 노래에 화려한 춤 구경하랴, 튼실하게 준비한 동아리들의 프로그램 경험하랴, 멋진 기억들을 남기며 우리의 고교시절 기억의 일기장에 또 한 장의 글을 써내려갔다.





## 10월 30일 휘보전 (휘문 vs 보성)

휘문 학생들의 인기 스포츠 1위 하면 역시 축구 아니겠는가? 관심이 많은 만큼 그날은 많은 동아리가 계발활동도 쉬며 휘문을 응원하러 갔다. 정말 팽팽한 경기였고 휘문인들의 응원과 함성도 대단했지만, 아쉬운 실수로 인해 결국 총점에서 1점 밀리는 안타까운 패배를 당했다. 다음에는 분명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내년을 기약하자.



# letter from whimoon

## 10월 20일 안보 강연

천안함 사건으로 국가 분위기가 긴박해진 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새 시대의 재목이 될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임은 명확하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안보 수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 그런 휘문인들을 위해 우리의 선배님이신 이상현 소장(68회 졸업생), 변형균 준장(69회 졸업), 금용백 준장(71회 졸업) 세 장성께서 1학년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을 하러 오셨다. 바쁘신 중에도 짬을 내셔서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재점검해주시고 강화시켜주신 장성이자, 동시에 휘문 선배이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휘문의 학생들이 깨달음을 얻었길 바란다.



## 5대 사립학교 연합행사 (휘문. 보성. 양정. 배재. 중앙)

2011년 1월 24일 중앙고에서 열린 5대사립 교장회의(회장-중앙고 김용균 교장)에서 다음 사항이 결정되었다.

• 5대 사립학교가 참가하는 음악회를 부활하기로 했다.
일시 : 2011년 11월 첫 토요일— 다양한 장르를 혼합하여…
장소 : 배재고 강당
내용 : 각 학교별 20분+찬조출연

• 5대 사립학교 백일장 시행 계획
일시 : 2011년 1학기 中
장소 : 올림픽 공원(각 학교 50여명 계획)
주관 : 보성고등학교



## 2011년 2월 28일 정년퇴임

정든 교정을 떠나는 과학과 정홍영 선생님. 30년 가까이 휘문에 계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명예롭게 떠나시는 선생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휘문은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 2011학년도 대입합격자명단

**서울대학교** 20명합격(작년도 20명)
구지헌 〉 자유전공학부
김동준 〉 경영대학(문과1위 교우회 장학금 300만원)
김정엽 〉 전.컴퓨터공학부
김홍룡 〉 외국어교육
문준혁 〉 경영대학
박우영 〉 재료공학부
박재희 〉 생명과학부
박정균 〉 공학계열
왕효원 〉 수학교육과
원준희 〉 의예과
이경규 〉 전.컴퓨터공학부
이동명 〉 기계항공공학부
이동준 〉 인류지리학과(문과2위 교우회 장학금 200만원)
이승준 〉 경영대학(문과3위 교우회 장학금 200만원)
이원석 〉 경영대학
이호영 〉 기계항공공학부
임국빈 〉 식물과학부
정석호 〉 수리통계학과
주권호 〉 건설환경공학부
허진우 〉 화학생물공학부

의과대학(한의대 제외) 51명 합격(작년 46명)
**자연계1,2,3위 장학금 수혜자는 연대 성대 등 醫大지원**

**고려대학교** 50명 합격(작년 48명)
**연세대학교** 75명 합격(작년 48명)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4 페이지 68



## 12월 21일 희중문학상 시상식

2일이라는 연장 기간을 거쳐, 10월 22일에 마감이 끝난 희중문학상.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응모자 수는 휘문인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말해주는 듯 했다. 심사하시는 국어과 선생님들도 열정이 담긴 작품을 보시며 행복한 고민을 하셨을 것이다.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 희중문학상 수상작들도 책으로 엮여서 발간될 예정이다.



## 12월 23일 EBS에서 방문취재

K사, S사, M사 등 다양한 공중파 방송사들 중 교육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는 EBS, 그곳에서 휘문을 촬영하러 왔다. 촬영의 주제는 교장선생님과 몇몇 학생들을 필두로 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의견 수렴. 역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교에는 그 분야 제일의 방송사가 오는 것일까. 오랜만에 방송사 차량을 보고 신선함을 느낀 휘문 학생들이여, 다음에는 인터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 선생님들의 감사의 마음으로

일부이나마 휘문고의 교사들은 매년 연수를 겸하여 해외 여행을 한다. 해외 문물을 접하는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폭 넓고 다양한 세상을 알려 주고, 스스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좋은 기회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2010년에 해외 여행을 다녀 온 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고자 그 사진을 이용하여 탁상형 학사력(칼렌다)을 만들어 전교생과 교사들에게 배포하여 학업 수행의 유익한 도구로 삼고 있다. 학사력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휘문교우회 그리고 희중회에서 매년 35분의 선생님들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선생님들께서 담아 오신 사진으로 학사력을 꾸몄습니다."




법인과 교우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화합을 통하여 휘문학교는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실력 향상을 통해 "큰사람" 을 길러 내는 모범적인 훌륭한 학교, 최고 최상의 학교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있다.

# letter from whimoon

## 2011학년도 주요 대학 입학 현황

2011학년도 서울대 입학 결과에 대해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계 학교 중에서 작년에는 휘문이 1등(2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7명으로 줄어 안산동산고, 중동고, 공주 한일고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학교에서 제시하는 실제결과는 중동이 1명 증가하여 21명으로 2위, 휘문이 3명 증가하여 3위로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금년도 SKY대 합격자(20+50+75=145명)는 전년(20+48+48=116명)보다 훨씬 더 많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서)

3년후인 2014학년부터는 대학 진학 성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자사고로 전환한 2011학년도 모교의 신입생 분석 결과 정원 523명 중 일반 전형 학생 400명의 평균 내신이 23.9%(2010학년도에는 50% 내외)로 상향되었으며, 내신 50% 이내 학생의 비율이 92%(2009~2010학년도에는 평균 46%)로 증가하였다. 재단의 과감한 결정과 지원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킨 바탕에, 그들을 더 잘 양육하여 더 훌륭한 진학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재단이사장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의 분투 노력에 뜨거운 찬사와 힘찬 박수를 보낸다.

2011학년도 신입생 중학교 내신 분포 현황

| 내 신 | 2009년 | % | 2010년 | % | 2011년 | % |
|---|---|---|---|---|---|---|
| 총원 | 578명 | | 604명 | | 523명 | |
| 5%이내 | 16 | 2.8 | 27 | 4.5 | 37 | 7.1 |
| 5~10% | 18 | 3.1 | 32 | 5.3 | 42 | 8.0 |
| 10~15% | 27 | 4.7 | 37 | 6.1 | 50 | 9.6 |
| 15~20% | 24 | 4.2 | 37 | 6.1 | 113 | 21.6 |
| 20~30% | 59 | 10.2 | 66 | 10.9 | 114 | 21.6 |
| 30~40% | 56 | 9.7 | 57 | 9.4 | 92 | 17.6 |
| 40~50% | 60 | 10.4 | 61 | 10.1 | 82 | 15.7 |
| **50%이내** | **260** | **45** | **287** | **47.5** | **480** | **91.8** |
| 50%이상 | 318 | 55 | 317 | 52.5 | 43 | 8.2 |

## 대치동 휘문高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계획

서울 대치동 휘문고 일부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선다.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휘문고 동쪽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149채를 짓는다고 12월 22일 밝혔다. 학교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882㎡ 부지에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1만3980㎡ 규모로 신축한다. 전용면적 26㎡(8평)~29㎡(9평)크기의 소형 평형이 배치된다.
일반분양 없이 149채 전량 임대로 운영한다. 1개 층을 모두 비워 학생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용지로 묶인 땅이 아니어서 개발이 가능하다"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휘문고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는 땅을 개발해 임대수익을 올리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테헤란로 업무지역과 대치동 학원가와 가깝다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 임대수요가 두터운 소형으로 계획했다" 며 "소형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지난 달 1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익사업 허가를 얻은 데 이어 이달 12월 8일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문의 (02)2057-5252 한국경제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2010-12-22

도시형 생활주택 [都市型生活住宅 ]이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그리고 기숙사형의 3종류가 있으며, 1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4 페이지 70



# 65

## 존경하는 휘문의 선후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졸업한 연도가 1973년이니까 어언 40년이 다가 옵니다. 벌써 곧 환갑이 되는 나이가 되었네요.
우리 동기들은 휘문중 시절부터 6년을 함께 한 친구들이 제법 있어서 정말 죽마고우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친구가 참 많습니다.
친구? 참 좋죠? 기쁘고 좋은 것은 주로 가족들과 나누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담 없이 만날 사람은 역시 중고등학교 친구인 것같아요. 그 중에서 휘문의 친구들… 백테 모자를 함께 쓰고, 종로와 광화문과 명동을 함께 거닐던 그 친구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걸어 갈 그 친구들…
우리 동기들은 500명 가까이 같이 졸업을 했고 아직 학계 및 의 · 약학계에서 40여명, 정관계에서 10여명 활약하고 있고, 그 밖의 친구들은 사업을 하는 등 맡은바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동기회에는 300여명이 등재되어 있어 각종 경조사에 연락이 맞닿아 있으며 휘봉회, 육오회 및 휘와회 등의 소모임을 통하여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40여명이 진출해 있어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가끔 오는 귀국길에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교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날로 웅비하는 모교와 후배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 휘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더불어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50여명의 친구들이 유명을 달리하여 애석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 후배 그리고 동기 여러분!
우리 휘문에 대한 사랑이 동기회와 교우회를 넘어, 모교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모교의 발전을 통해 휘문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더 강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댁내에도 항상 평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한 친구로 남아, 서로 아끼고 섬기고 위하는 친구로 살아가게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5회 회장 **박 현**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4 페이지 71



# 휘문 65번째 휘봉회 아름다운 산봉우리들

휘봉회는 올해 2월 10주기를 넘어선다. 10년전, 휘산회 산행에 동참한 몇몇의 동기들이 우리 65회에도 등산회가 있어야겠다고 뜻을 모은다. 드디어 2001년 2월, 수락산에서 첫 등산모임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산봉우리를 넘어오면서 동기간의 우정을 돈독히 다지고 있다.

기별 등산회 중에서 가장 먼저 브랜드와 로고와 심볼을 제정하고 깃발과 단체 구호를 만드는 등 탄생 초기부터 휘봉회의 유별난 움직임은 여러 선후배들의 주목을 끈다.
매월 1회의 정기 등산모임 정도로는 성에 안차서 주야 번개산행, 종주산행이나 원정 산행을 갖는가하면 예하에 청계산 모임인 청번회도 두고 입맛에 따라 산에 가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주말만 되면 독수공방하는 부인들을 위로(?)하는 부부동반 야유회 산행도 년1~2회 갖는다.



휘봉회 회장 **김명호**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5 페이지 72



초기엔 무슨 124군부대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던 것 같다. 종주기획단까지 발족하여 관악산–삼성산 종주, 지리산 종주, 북한산 12문 종주, 북도사–사도북 종주, 불수사도북 종주, 광교산–청계산 종주를 숨차게 치달리며 40대 후반의 넘치는 체력과 혈기를 달랬었다.

휘봉회 하면 온라인 휘봉회 게시판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2001년 4월의 '휘봉회 삼행시' 짓기 캠페인은 게시판에 불을 활활 지피게 한다. 눈팅만 하고 나가는 동기들을 협박(?)하여 독수리 타법으로 게시글과 답글을 올리게 했는데, 나중엔 답글에 답글이 주렁주렁 달려 실시간 채팅 수준까지 이른 경우도 있다. 이때 게시판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1기 '안–봉–영', 2기 '송–광–철' 이라는 인터넷 삼총사 시리즈도 등장했다.

그 시절 5년간, 1만 여건 이상의 게시글과 사진 및 자료들이 교우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모두 사라져 지금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일부 사진은 남아있지만 당시의 기록들은 우리들의 소중한 역사요 추억인 것이다. 휘봉회 게시판은 애경사와 동정, 공지사항, 모임, 사진, 산행기, 개인글, 펌글,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친목을 교류하는 온라인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지금 교우회 홈피에서도 활동이 가장 왕성한 게시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온–오프라인에서 사흘만 얼굴이 안보여도 '오랜만이네' 라는 인사를 들을 정도인데, 이렇듯 65회 동기들은 휘봉회라는 매개체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휘봉회 정기산행일은 매월 3째주 일요일이다. 정기산행에는 대개 20명 이상 참가하고, 시산제와 송년산행, 야유산행 때는 40명 넘게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룬다. 집행부로는 회장, 총무, 온라인 총무



를 두고 있고, 수년전부터 차기 회장은 현재의 총무가 자동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휘봉회 집행부로 1기 안영원 회장, 이봉훈 총무가 3년을 연임하고, 이후 1년을 주기로 2기 함형욱 회장, 임영규 총무, 3기 이봉훈 회장, 신완식 총무, 4기 김덕중 회장, 박기구 총무, 5기 박기구 회장, 이종철 총무, 6기 이종철 회장, 김영률 총무, 7기 김영률 회장, 심도철 총무, 8기 심도철 회장, 김명호 총무로 이어져 왔다. 현재 9기는 김명호 회장, 양한남 총무가 맡고 있으며, 홍성천 온라인 총무는 수년째 계속 수고 중이다.

어느덧 휘봉회도 가파른 능선을 겁없이 오르던 40대 후반 청년기를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한층 여유롭게 산행을 즐기는 50대 후반 장년기에 접어든다. 많은 친구들이 휘봉회를 통해서 좋은 친구들을 얻었다고 말한다. 통풍을 고치고, 암도 이겨내고 자신의 건강을 되찾았다고도 말한다. 건강과 우정은 휘봉회의 변함없는 가치이고 약속이다. 우리 휘문 65회의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휘봉, 휘봉, 아자!

## 65회 업종별 분류

### 학계

김현기 수원대 대학원장
김병기 숭실대 콤퓨터학부
이종태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백광기 한림대 경영
고영술 무한증권경영연구소
김기영 기술교육대 신소재공학과
김봉기 휘문중
최황규 단대부고
박장서 동국대학교
신완식 명지대학교 미대
유강희 충주대 전자통신 공학과
윤청 충남대 컴퓨터 과학과
윤치호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이종철 도전과미래연구소
정광수 산본고교장
조항용 신목고

### 의료계

양한남 안과
심도철 대성병원 진단 방사선과
남석호 신경외과
김영호 한대 구리병원 부원장
장준동 한강성심병원 신경외과
현승일 치과
김준탁 약사
박승훈 이비인후과
우건 약사
이상호 성형외과
이석일 안기부 의사
이성로 동보한의원
지문표 보훈병원 신경외과
홍석찬 건대병원 이비인후과

### 재계

강석원 에스오일 상무
김봉수 일신건축사무소
김영호(큰) 동아알미늄
김종수 한국야쿠르트 고문
문동준 금호그룹 전무
백순석 샵항공 대표이사
신광섭 에너지관리공단
신광열 태극당 대표이사
윤국노 기장건설 대표
이영기 제네랄일렉트릭 전무
이충희 듀오 대표이사
이홍규 아텍 대표이사
임진모 투아이시스 부사장
장창진 한앤김 건축
차순창 한진해운 상무
한호석 청탑산업 대표이사

### 개인사업

강계성 FRJ대표
권순모 빌리튼코리아 대표
김기영 삼인정보통신 대표
김덕중 미림실업 대표
김우영 세미텍 대표
김재한 파 랑통상 대표
노양수 칠보대리석 대표
서태일 요꼬가와전기
안영원 덕인양행 대표
유종현 나라정보기술 대표
윤덕로 유원이앤씨 대표
이봉훈 리버셀 고문
이호진 쿡앤북 대표
최성헌 동광상사 대표
최승기 후지테크 대표
최승민 디에스교역 대표
함형욱 동부해운항공 대표

### 관계

강한배 국회입법전자정보실
김성동 국회의원
김지천 국방과학연구소
배재현 터키 대사
장준오 형사정책연구원

### 금융계

김영율 대한생명 경동법인
이세림 연합인슈어 보험
장홍범 한국은행
전지영 한국은행

### 기타

박병준 유피여행사상무
이진경 서울예술단
홍성천 이현디자인 전무

### 법조계

신태영 법무법인 춘추
안원모 법무법인 한길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5 페이지 74



소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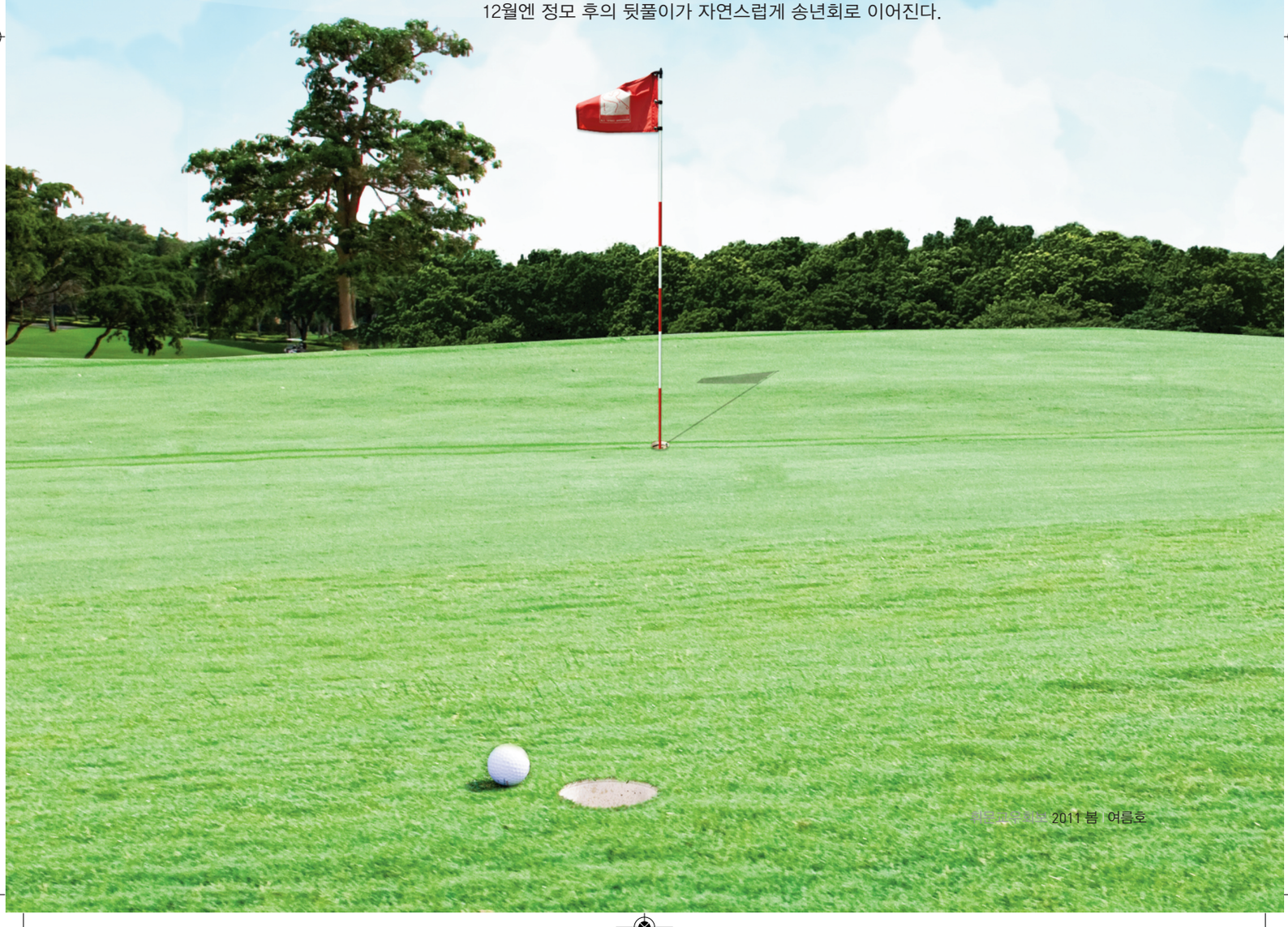
# 육오회

휘문 65회 골프 동호회



육오회 회장 **김현기**

2000년 어느날 오랜만에 65회 동기들 몇명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휘문골프회 회장이기도 한 최성헌 군의 발의로 휘문 65회 골프모임인 육오회가 결성되었다.
지금은 65회에 등산, 와인, 당구 모임 등이 있지만 육오회가 휘문 65회에서 가장 먼저 생긴 동호회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라 하면 별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서 시작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유익하며 자연을 벗할 수 있고,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장점에 회원이 하나 둘씩 늘어 갔다.
주로 태영CC, 시그너스CC, 가산노블리제CC, 파인리즈CC 등에서 연간 부킹 또는 원정라운드를 하며 12년째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정모를 하고, 12월엔 정모 후의 뒷풀이가 자연스럽게 송년회로 이어진다.





그동안 최성헌, 최승기, 변규식, 김삼성, 이호진, 성규방, 한영태, 한원석, 박기구, 이종원, 박승철, 윤국노, 윤덕노, 유종현, 김병기, 최황규, 이취우, 서태일, 이홍규, 문정균, 김광은, 김남하, 문동준, 김현기 교우 등이 회원으로서 상부상조하고, 애경사도 같이 나누며 활동해 왔다.

지금은 서로 비즈니스에 바쁘다 보니 월례회에 여러 팀이 나가지 못하지만 결국 회원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는 징조이므로 향후 육오회도 더욱 활성화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휘문 교우회보 "큰사람" 65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 | |
|---|---|
| 회장 | 박 현 |
| 총무 | 한영태 |
| 부회장 | 최승기, 김 병기, 박기구, 한호석, 이경남, 김명호 |
| 감사 | 안영원, 진찬희 |
| 이사진 | 김덕중, 김성동, 김의환, 김재환, 문동준, 안원모, 안철관, 연동철, 윤승현, 윤 청, 윤치호, 이용주, 이종철, 임영규, 함형욱, 최홍규, 홍성천, 윤덕로, 신완식, 서태일, 신광섭, 양선하, 노양수, 양한남, 심도철 |

**65회 동기회 임원진 및 회원 일동**

## 동기회별 소식

### 51

회장 **이명산** | 총무 **윤중열**

**연락처** 총무 | 010-6357-3280

● **행 사**

1) 가을 단풍놀이

일시 : 2010년 11월 11일

장소 : 청평 아침고요 수목원

참석인원 : 24명

2)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일시 : 2010년 12월 14일

장소 : 모교 글로벌룸

참석인원 : 38명




충북 증평에서 참석한 정성화 교우, 청주의 김창환 교우 등 모두 51명(가족 8명 포함)이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분당 새마을 연수원 앞 한정식집 "마실"에서 앞으로 "1000회" 까지의 산행에 모두 동참하도록 결의하고, 막걸리와 웰빙 한정식을 즐기며 덕담을 나누었다.

당일 찬조자 * 길형보 교우 200,000원 / 박정웅 교우 100,000원 / 김창환 교우 100,000원 / 휘금회 200,000원.

### 52

회장 **김현수** | 총무 **오세갑**

**연락처** 총무 | 010-8311-2931

● **행 사**

2010년 송년회 압구정 뷔페 2010.12.7

산악회

52회 산악회 회장 선임

김형규 : ☎ 011-9727-6301

추계산행 : 강릉 정동진 괴방산 2010.10.2

●◎ **경사**

이응덕 딸 결혼(미국)

●◎ **조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영선 타계 : 서울 순천향 병원 2010. 12. 8

김승진 타계 : 대전장례예식장 2011. 2. 5

이창남 타계 : 분당 서울대 병원 2011. 2. 12

정필영 타계 : 청구 성심 병원 2011. 2. 21

이계순 모친 별세 : 서울 강남 성모병원 2011. 2. 26

### 54

회장 **민병소** | 총무 **오덕복**

**연락처** 총무 | 019-242-3304

● **행 사**

2010년도 부부동반 송년산행 및 54산악회

600회 기념산행 개최

지난 2010년11월27일(토), 부부동반 송년산행 겸 54산악회 600회 기념산행"을 개최했다. 영하의 날씨와 새벽부터 눈이 내려 미끄러운 도로 사정으로 약 30분 늦게 산행을 시작했다.

제1회 휘문 야구후원회의 밤" 참가

2010년12월27일(월) 오후 6시30분-9시30분까지 모교 대강당에서 개최한 "휘문 야구후원회의 밤" 행사에 김광욱 교우 등 총 14명이 참가하여 모교 야구 선수들을 격려해 주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

2011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2011년 4월6일 오후 6시, 강남구 대치동 "샹제리제 웨딩 부폐"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도 54회 동기회 정기총회 개최 예정

2011년 5월4일(수) 오후 5시30분, 강남구 대치동 "샹제리제 웨딩 부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예정.

● **소그룹 행사**

54회 산악회

2010년5월7일-5월11일(4박5일) 장현익 등 7명의 교우들이 중국의 그랜드캐년으로 불리는 태항산대협곡/ 만선산/ 구련산 산행 및 중국 최초의 문자인 갑골문자와 차마갱도기 등의 국보급 유물이 전시되어 유네스코에 세계 유적지로 지정된 " 은허박물관"을 관광하고 돌아왔다.

2011년 1월 6일(목)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마다 북한산 둘레길 총12개 코스를 1회에 3개코스씩(평균9.5Km, 약 4시간30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5 페이지 77

# 휘문인 廣場

분 소요) 4회에 걸쳐 하얀 눈길을 걸으며 완주하였다

**분당회**

2010년 12월 16일(목) 오후 6시30분 분당구 이매동 한정식 집에서 "송년회 겸 정기월례회" 를 가졌다. 그간 분당회 모임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온 고영일 회장과 김윤규 총무의 임기가 만료되어, 신임 회장에 김윤규 전 총무를, 총무에는 정강홍 교우를 선출하였다.

**휘금회**

지난 2010년 12월 10 일(금), 월례회에서 지난 2년동안 "휘금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회장 김건 교우와 총무 이휘영 교우가 임기 만료로 사임하고, 향후 2년간 모임을 이끌어 갈 신임 회장에 최농식 교우, 총무에 강건삼 교우가 선출되었다.

**캐나다 김종소 교우 고국 방문**

지난 2010년10월 1일 고국을 방문한 캐나다 밴쿠버 거주 김종소 교우가 바쁜 일정에도 10월6일(수), 54회 동기회의 10월 행사 중 하나인 "대부도 조개구이" 에 참석해 권순명 등 21명의 교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뉴욕 거주 이종상 교우 고국 방문**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이종상 교우는 평소 고국을 방문하면 교우들의 산행에 꼭 참석했으면 하던 차에 지난 2010년 11월 11일(목) 김기후 등 13명의 교우들과 즐거운 목요산행을 한 후 논현동 "48번 골목집"에서 푸짐한 조개찜 파티를 가졌으며 11월18일(목), 아차산 산행 후 맥주 파티를 끝으로 출국하였다.

●◎ **경사** –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홍고 아들 2010. 7. 31
이영호 아들 2010. 10. 2
이용대 아들 2010. 11. 6
박성욱 아들 2011. 2. 12
이영호 아들 2011. 3. 13
길형보 아들 2010. 10. 2
김 건 딸 2010. 10. 30
백승순 딸 2010. 11. 25
김종완 딸 2011. 3. 5

●◎ **조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진석(모친상, 2010년 6월 2일)
조원기(모친상, 2010년 8월 1일)
이왕훈(타계, 2010년12월27일)
이규원(타계, 2011년 2월18일)

## 55

회장 **송명근** | 총무 **김홍규**
**연락처** 총무 | 010-3267-2676

● **행 사**

2010. 10. 9. 제18회 휘문체육대회 참석 (27명)
2010. 12. 9.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장소 : 포에버리더스클럽(역삼점) 59명 참석 (가족 포함)
내용 : 결산보고,전임 회장단 감사패 수여 및 만찬

● **소그룹 행사**

– 2010. 8. 28–29 서부회 옹진군 장봉도 1박2일
– 2010. 10. 17. 55 산우회 가을 야유회
속리산 법주사 및 청남대 관광 (참석 교우 66명–가족 포함)
– 2010. 11. 25. 중부회 송년모임 (이문동 금강산 식당)
– 2010. 12. 19. 55 산우회 송년 산행 청계산(옛골) 참석 교우 27명
– 2010. 12. 30. 서부회 송년모임 하이마트부페(삼일로빌딩)
– 2011. 1. 16. 55 산우회 신년 산행 인능산
55회 산우회는 매주 화요일 정기 산행으로 1월말 현재 132차 산행을 했음
– 2011.1.17. 중부회 신년모임(이문동 금강산 식당)

●◎ **경사** –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정국 자녀 2010. 8. 28
김규택 딸(현정) 2010. 10. 23
이상재 아들(재욱) 2010. 11. 12
이진근 딸 2010. 10. 2
박범훈 아들(정호) 2010. 10. 31
김종남딸(주연) 2010. 12. 11.

●◎ **조사** – 명복을 빕니다

이용구 부친상 2010. 11.17
정상호 타계 2010. 12. 14

## 56

회장 **이종성** | 총무 **김세웅 / 서갑수**
**연락처** 총무 | 010-503-2764 / 010-8670-9922

● **단체행사**

2010年 秋季 野遊會

2010년 11월 13일 교우 29명, 가족 7명 참가.

2010年 送年會 盛況裡에 終了

12월 9일 역삼역 「포에버 리더스 클럽」 교우 64명, 가족 12명

56棋友會 夏季 친선 바둑대회 開催(회장 : 조기웅)

11월 6일 「을지로기원」 25명 참석

## 동기회별 소식




山友會(회장:임영선)
– 제188차(10월 17일) : 17명, 성남시 영장산 (413.5M)
– 제189차(11월 21일) : 19명, 북한산 둘레길(우이동방면)
– 제190차(12월 19일) : 20명, 북한산 형제봉(462m)

土曜山行(대장 : 서갑수)
– 제75~77차(10월~12월) 과천 서울동물원, 10~17명 참가

56사랑방 庚寅年 송년회 12월 18일, 20명

● **소그룹 행사**

江南支會(회장 : 송한철)
11월 1일, 사물놀이, 15명

基督信友會(회장 : 한경희)
12월 13일, 광림교회, 25명

南部支會(회장 : 박병진)
10월 21일, 12월 16일 모임

東部支會(회장 : 노준부)
11월 12일, 마루갈비, 17명

北極星會(회장 : 강영준)
11월 13일, 늘봄공원, 19명

분당/용인지회(회장 : 홍석린)
10월 28일, 소담 8명

사사회(회장 : 이종성)
4/4분기 중 일정이 바빠서 모임을 신년도에 갖기로 하였음.


하나투어 모두투어 세중투어몰 롯데관광 한진관광

명 동 예 약 센 터



휘(W) 투어
모든 여행사 상품을 5~9% 할인해 드립니다.
수학여행 해외연수 단체여행 맞춤여행

라 병 웅(60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12-6, 4층
H/P : 011-1727-7902 Tel : (02)771-8238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5 페이지 79

# 휘문인 廣場

**西部支會**(회장 : 윤기중)
10월 14일 : 4/4분기중 10월에「미각」에서 8명의 회원들이 모여 정기모임

**진달래會**(회장 : 문광남)
10월 23일 : 을지로 3가 「우촌」에서 회원 7명 및 부인 4명 등 총 11명 참석.

**徽建會**(회장 : 강항남)
– 9월 17일 : 회원 10명이 「늘봄가든」에서 정기모임
– 11월 19일 : 「미가 참치」에서 회원 11명이 정기모임.

**B.S.會**(회장 : 이호종)
– 10월 25일 : 서초동「소들녘」에서 14명이 모임.
– 11월 24일 : 포천 고모리「691레스토랑」에서 정기모임. 회원 9명과 부인 5명 및 우정 참석 교우 2명 등 총 16명이 참석.

**골프會**(회장 : 허 열)
2010년 4/4분기 모임 연기, 2011년 1월 중 모임.

### ●◎ 교우 동정

최복규 교우 정년퇴임식(2011.2.26, 춘천 베어스 관광호텔)
국립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사단법인 강원 고고학 연구소장

### ●◎ 경사 – 결혼을 祝賀합니다

朴炳振 딸 소연 10. 23
李漢珪 딸 정현 10. 23
李勇勳 아들 진규 11. 28
許 洌 아들 진훈12. 4
崔日淳 장남 성훈 12. 4
李正吉 장녀 한나 2011. 1. 22
黃善周 차남 상훈 10. 23
朴廣春 아들 용진 11. 20
鄭潤亨 차남 창윤 11. 20
李昌雨 차남 인수 12. 4
朴贊禹 장남 진우12. 12

### ●◎ 조사 –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李英徽 교우: 10. 27 빙모 소천
洪王善 교우: 11. 29 빙모 소천
鄭潤亨 교우: 심근경색으로 입원 중 12. 24 영면
徐甲辰 교우: 12. 25 빙모 소천
朴炳振 교우: 12. 31 모친 소천

## 58

회장 **조현행** | 총무 **남기화**
**연락처** 총무 | 011-9944-0058

### ● 행 사

**와병 중인 교우 문병**

2011년 1월 22일(토) 와병 중인 교우를 위로 차 방문하였다. 58회 조현행 회장, 남기화 총무와 이충용 교우(58회 신우회 회장), 채희병 교우(신우회 총무) , 박윤식 목사 5인이 마포 용강동의 주수남 교우를 시작으로 신도림동의 김경식 교우, 개포동의 김명수 교우 순으로 가정 방문을 했다.



주수남 교우

### ●◎ 회원 동정

**조태일 교우**(58회 명예회장)

한국과 몽골 수교 20주년을 맞아 몽골대통령이 수여하는 수교훈장을 받았다. 한남동 몽골대사관에서 열린 수교훈장 수여식에는 도를렉 쟈보 대통령 비서실장, 게렐 몽골대사를 비롯 성애의료재단 김윤광 이사장, 김석호 상임이사, 장석일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조태일 교우, 중앙 도를렉 쟈보 대통령 비서실장

## 동기회별 소식

박형재 교우(58회 명예회장)

부천문화원(원장 박형재)은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예능을 갈고 닦아온 동아리들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함께 즐기는 〈제13회 부천문화가족예술축제〉를 12월 10일 저녁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문화원 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왼쪽부터 양정필 교장, 박형재원장

부일중학교 양정필 교장은 부천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향토역사 자료수집에 소중한 물품을 기증해 준 공으로 박형재 부천문화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글 / 사진 2010. 12. 12 부천타임즈)

## 59

회장 **변동철** | 총무 **강왕희 / 김동철**

**연락처** 총무 | 010-2221-8016 / 011-708-5656

### ● 행 사

2010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12월 8일(수) 역삼동 〈포에버리더스 클럽〉 65명 참석

59산악회 정기산행(매월 셋째 토요일)

12/18일 검단산(김영욱, 박민수 교수 포함 26명 산행)

최항교 회장 후임으로 방갑철 신임 회장 취임식 거행

휘돌회 바둑 정기모임(매월 넷째 토요일)

-12/25일 선능 생태명가(이경수 포함 13명 참가 성탄절 대국 후 정기총회에서 이주명 교수를 휘돌회 신임 회장으로, 총무는 고군직, 김광중 교수 선임)

### ●◎ 회원 동정

- 이 원형 교우(Won Lee) Panzi Hospital 기금 마련 조각 전시회
  지난 6월 서울에서의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한 자선 전시회 이후 재차 시행.
  Nov.20– Dec.11 캐나다 토론토 Muse Gallery 1230 Yonge ST.
- 남해복 교우 경북통상대표 연임
  2010년 10월5일자 열린 경북통상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재선임.
- 이종수 교우 개업
  교직 은퇴후 〈장수숯불갈비〉 개업, 인천시 북구 부개동 정병원 옆
- 윤연표 교우 개업(전화 213-427-9897)
  LA거주 윤연표 교우가 Wilshire Blvd. 한인우체국 옆에 한식당 〈Red Pepper〉 개업
- 頑石 李文希 교우 2010년도 제24회 대한민국 새천년 書藝. 文人畵大公募展에서 특선 입상
  2010년 제23회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작품전은 인사동 한국 미술관 10.13 ~ 10.19
- 윤관호 교우 출판기념회 (시집 ,누이 이야기)
  2011년 3월 3일 뉴욕 대동연회장 그랜드볼룸
- 신흥우 교우가 9대 교우회장을 4년간 (2007. 3~2011. 3) 훌륭하게 수행하고 사임.

### ●◎ 경사 – 결혼 축하

金亨源 장남 2010. 10. 3
이장훈 차녀 2010. 10. 3
문덕진 차남 2010. 11. 28
방세훈 장녀 2011. 1. 23
김이기 장남 2010. 10. 30
권중량 장녀 2010. 11. 6
이광철 장녀 2010. 12. 12

### ●◎ 조사

김도경 빙모상 2010. 8. 29
金亨源 모친상 2010. 10. 8
장동권 喪配 2010. 9. 4
김성수 부친상 2010. 11. 20

김필겸 교우 2010.11. 20. 59회 산악회 정기 등산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던 중 아침 9시 경전철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갔으나 소생하지 못하였다.

## 60

회장 **육동수** | 총무 **김영철**

**연락처** 총무 | 019-538-1105

### ● 행 사

2010년 송년회

2010년 11월 26일(금) 18시, 서울팰리스호텔 12층 sky ballroom에서 70명의 교우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5 페이지 81

# 휘문인 廣場

임을 진행하였다.
2부 만찬에 이어 3부에서는 만담을 곁들인 전문MC 진행 하에 노래자랑, 행운권추첨 등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 ● 소그룹 행사

**휘우회**(골프–회장 박정신, 총무 백남수)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뉴서울CC에서 4개 팀을 구성하여 경기.

**휘산회**(산행–회장 임정국, 총무 최동주)
매월 첫째 주일 휘산회 산행과 셋째 주 정기산행을 포함,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모두 25회 산행에 연인원 322명이 참석하여 건강을 다졌다. 2월 청계산 시산제에는 40여명이 참석.

**휘석회**(바둑–회장 이관찬, 총무 선우철)
총35명의 회원이 매주 토요일(정기모임 : 둘째주) 종로3가 바둑세계에서 기력 대결. 9월에는 야외대국을 실시, 2011년 1월에는 하반기 리그 입상자(최동주 교우 외 3인) 및 공로자(선우철 교우)에 대해 시상.

**휘당회**(당구–회장 한규복, 총무 김영철)
매월 셋째 목요일 정기모임, 20여명의 교우참석. 12월 정기당구대회에서는 제3대 참피온이었던 류장수 교우가 다시 제8대 참피온으로 등극하여 실력을 과시.

### ●◎ 교우 동정

– 미국의 정건조 교우가 2010년 12월 잠시 귀국, 휘당회와 연말 송년회에 참석.
– 미국 워싱턴에서 안경점을 경영하는 한만수 교우가 2011년 2월 잠시 귀국, 휘당회에 참석.
– 나영길 교우는 현대중공업 은퇴 후 2010년 12월에 환웅정공(창원)과 PANKOREA 중공업(함안) 양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영전.
– 남서울대 노시춘 교우가 2011년 1월 24일 "클린사이버네트워크" 창립 기념 포럼 및 서울청 누리캅스 정기 간담회에서 '스마트 시대와 정보보호 침해사고'라는 주제로 사이버네트워크 환경의 현안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

### ●◎ 경사 – 결혼 축하

호문환 장남 2010. 9. 4
정현기 장남 2010. 9. 12
윤돈영 장남 2010. 10. 2
이양환 장남 2010. 11. 6
정 철 장남 2010. 11. 13
김영철 장녀 2010. 9. 11
박희철 딸 2010. 9. 12
진인섭 장녀 2010. 10. 9
구본국 장남 2010. 11. 6
엄정권 장녀 2010. 11. 27
김창윤 장남 2011. 1. 8
정태성 딸 2011. 2. 13
류동윤 차남 2011. 2. 12
김종찬 차녀 2011. 2. 19

### ●◎ 조사 –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백충기 교우 본인 타계 2010. 8. 12
임동원 교우 부친상 2010. 8. 26
권순우 교우 빙부상 2010. 9. 12
나영길 교우 모친상 2010. 10. 3
김준언 교우 빙모상 2010. 10. 6
진인섭 교우 부친상 2010. 11. 3
서성호 교우 모친상 2010. 11. 11
심재권 교우 모친상 2011. 2. 15

**61** 회장 **이재백** | 총무 **고욱환 / 김호원**
**연락처** 총무 김호원 | 011–394–5551

### ● 행 사

**2010년도 송년 환갑잔치**

2010년 송년회 겸 환갑잔치가 12월 3일 삼정호텔에서 회원 93명, 부부 35쌍(70명) 등 사상최대인 163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2010년도 자랑스런 61회 휘문인상은 이승권 전 볼재산악회장 겸 부회장(사진)에게 수여되었다.






**김홍일 휘산회장 무사히 마쳐**

12월 14일 치러진 휘산회 송년회에서 김홍일 회장은 연임을 포함, 임기 2년의 7대 회장직을 마감하고 62회 이승도 교우에게 바톤을 넘겼다.

**볼재산악회, 영장산 가을 산행 및 신년 한라산 등반**

볼재산악회(회장 조원석)는 2010년도 하반기 등산을 성남–용인지부의 맹사모(회장 김종관) 후원으로 10월 16일 분당의 영

2011휘문교우회보_봄여름내지 2011-04-04 오후 1:15 페이지 82



장산(일명 맹산 413m)에서 실시했다. 42명 참석. 또한 1월 21–23, 2박3일간 연례 제주도 한라산 눈꽃산행을 실시했다. 회원 17명, 부부동반 8쌍(16명) 등 모두 33명이 참가했다.



김홍일 교우 휘산회기 인계



볼재산악회 한라산 등반

● **소그룹 행사**

**북사모 신임회장에 강대현교우**

강동북지부는 8월 14일 지부내 등산모임인 북사모(북한산을 사랑하는 모임)의 제 2대회장에 강대현 교우(사진) 를 선출.

**청사모 조직 쇄신**

강남지부 등산모임인 청사모(회장 최성규)는 1월 16일 북사모(회장 강대현)와 청계산 통합산행을 실시 후 중식 자리에서 원영희 교우(사진)를 후임 회장에, 김대걸 교우를 총무, 박경수 교우를 등반대장으로 선출하고, 퇴임하는 최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조병호,백정기 전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했으며, 매월 둘째주 일요일 11시 원터골에 집결하는 월례등반을 확정했다.

●◎ **교우 동정**

– 최성규 선희상사 대표 : 양재동 사무실을 분당 삼평동 708 에메트타운 605호로 이전 (Tel: 070–4027–4120)

– 이광섭 성심치과 원장 : 병원을 근처 건물로 3배로 확장, 이전

– 이해선 교우(일본 오사카 천리대 국제문화학부 조선어학부 교수) : 8. 1 – 8. 21 제자들과 한국 수학여행

– 곽한정 SPP해양조선 사장 : SPP그룹 계열사인 SPP조선은 2011년 1월 1일자로 SPP해양조선과 SPP정공을 흡수,합병 SPP조선, SPP해양조선으로 출범했고 통합 법인 대표이사에 취임

– 조영호 (주)대한B케미컬 사장 : 자동차용 철제 Body용 도료를 생산하는 직원 200명의 (주)노루오토 코딩스 대표이사에 겸직 발령.

●◎ **경사** – 결혼 축하

이기철 장남 승호 8. 28
이재백 장녀 정진 9. 10
이창우 아들 상훈 9. 12
이종인 차남 상진 10. 9
유관희 장녀 10. 23
박종성 차녀 수현 10. 30
문창엽 장남 지원 11. 6
이덕상 차남 철희 11. 28
김양중 차녀 희진 12. 18
서흥진 장녀 은영 12. 4
민병직 장남 승기 12. 16
윤국로 차녀 혜원 12. 18
박완선 장녀 선형 2011. 1. 8
신남옥 장녀 혜정 1. 22
한승환 장남 기종 9. 5
이병무 아들 길환 9. 11
강승욱 장녀 윤진 10. 2
김세경 장녀 민지 10. 23
박영서 장녀 해리 10. 30
정원조 장녀 의정 11. 6
유영철 차남 석훈 11. 14
이재백 장남 영행 12. 11
윤국로 차녀 혜원 12. 18
유성현 장남 호석 12. 4
김양중 차녀 희진 12. 18
최승호 차남 12. 28
유상호 장녀 혜승 1. 8
장창순 장남 동준 2. 26

●◎ **조사**

임준영 교우(본인타계) : 9월 6일
김화중 교우 부친상 : 8월 3일
남기현 교우 모친상 : 8월 4일
이경희 교우 모친상 : 8월 12일
황정호 교우 (LA 거주) 부친상 : 8월 16일
이진영 교우 (뉴질랜드 거주) 모친상 : 8월 28일
오광섭 교우 부친상 : 11월 6일
이덕상 교우 빙부상 : 11월 14일
김학봉 교우 빙모상 : 11월 15일
장철환 교우 빙모상 : 12월 27일
한상용 교우 부친상 : 2011년 1월 3일
안용환 교우 빙부상 : 2011년 1월 4일
최용은 교우 모친상 : 2011년 1월 5일
송덕환 교우 부친상 : 2011년 1월 24일

# 휘문인 廣場

## 62

회장 **최상택** | 총무 **이영환**

**연락처** 총무 | 010-6249-4080

### ● 행 사

2010년도 62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12/7)

– 장소 : 서교호텔

– 참석인원 : 70명 (부부동반 15명)

– 2011년 제13대 회장 추대 (최상택 교우)



2011년 62회 신년 단배식

– 전임 회장단 및 교우 41명 참석

– 원서동 북촌면옥

### ● 소그룹 행사

**휘마루** 회장 박범규, 총무 손명수

매월 3번째 일요일



**회수회** 회장 강장국

매월 4째주 수요일 뉴스프링스빌CC 4팀 라운딩

**휘건회** 회장 채영수, 총무 강장국

분기별 4째주 목요일 40명 모임

### ●◎ 교우 동정

– 김재찬 교우 : 중앙대학교 안과 교수, 11/26 EBS 명의탐방 프로 출연

– 조준형 교우(목사) : 제 11차 인도차이나 한인 선교사 방콕대회 (11/1–5) 선교활동

– 이수열 교우 : 현대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부사장 승진 (12/31)

– 김호상 교우 : 현대건설 해외영업본부장, 부사장 승진 (12/31)

– 이율영 교우 : 산림청에서 "숲사랑 지도원" 임명 (12/23)

– 문규영 교우 : 제 10대 교우회장 추대를 수락하여, 2011년 교우회 정기총회에서 교우회장으로 취임.

### ●◎ 경사 – 결혼을 축하합니다

| | |
|---|---|
| 홍기성 장녀 5. 11 | 정길영 장녀 10. 30 |
| 민진홍 장남 10. 10 | 안무용 장남 12. 4 |
| 안동준 장남 10. 23 | 최수현 장녀 12. 12 |
| 이재훈 장녀 11. 7 미국 | 권기형 차녀 2011. 1. 30 |
| 이호일 장남 2011. 1. 30 | |

### ●◎ 조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
|---|---|
| 조만희 교우 부친상 9. 23 | 정석재 교우 부친상 10. 14 |
| 김영조 교우 빙모상 9. 27 | 홍성노 교우 모친상 11. 21 |
| 임종한 교우 빙모상 10. 4 | 이향근 교우 부친상 12. 12 |

### ●◎ 자녀소식

임재영 교우 : 차녀 임단비(독일 퀼른대학, 최고연주자 박사과정 수료) 귀국,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10/25), 햇불 선교센터.

## 63

회장 **이원근** | 총무 **김창겸**

**연락처** 총무 | 016-372-6884

### ● 행 사

동기회 사무실 개소식

2010년 12월 11일 동대문구 용두동 118-58 3층, 50명이 참석

**졸업 40주년 행사 성대하게 거행**

3월 10일(목) 동기 108명과 가족 및 내빈까지 총 220명 참석하여 졸업 4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가졌다. 미국에서 김덕중 교우 부부, 신중식 교우 부부, 정종환 교우 부부, 정혁채 교우 등이 참석하였다.

6시부터 7시까지는 와인과 위스키, 음료 등으로 칵테일파티를 하였고, 7시부터 7시 50분까지 공식행사, 7시 50분부터 8시

## 동기회별 소식







30분까지 식사, 8시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가수(유열, 김혜림, 정수라, 민혜경, 신효범, 이용, 사회 김종국(코메디언)) 공연 및 행운권 추첨을 하였다. 식사 시간 중에 김종연 교우의 섹스폰 공연이 있었고, 고지홍 교우 부부의 댄스공연이 있었다.
또한 모든 동기들이 교복과 모자를 쓰고 행사에 참여하여 옛날 추억에 잠길 수 있었다.
은사님 4분 초대 : 이준상 선생님, 정치모 선생님, 조동제 선생님, 황진락 선생님






### ●◎ 교우 동정

– 김연중 교우 : 10. 1 중앙영상의학과 이전 (CT,MRI,MRA) 031–748–7172.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228 줄리엣빌딩 5층
– 심재엽 교우 : 11.16 스크린 골프장 개업 (KT 수 스크린 골프) 02–856–5500. 서울 구로구 구로동 46 쌍용플레티넘 노블 지하 105
– 한동헌 교우 : 12.15(주) 성신시멘트 판매 개업 (시멘트, 몰타르,특수시멘트 레미콘) 서울 중구 수표동 56–9 대동빌딩 301호. 02–2275–7763.
– 권진봉 교우 : 2011. 1. 5 13대 한국감정원장 취임.

### ●◎ 경사 – 결혼을 축하합니다

| | |
|---|---|
| 이 성 장녀 8. 21 | 김제명 장남 9. 4 |
| 최정길 장녀 10. 2 | 김주연 장녀 10. 16 |
| 이유식 장녀 12. 25 | |
| 목철수 장남 2011. 1. 8 | 박윤석 장녀 1. 8 |

### ●◎ 조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종민 모친상 2010. 8. 9 정종구 모친상 8. 18

| | |
|---|---|
| 김종원 본인 타계 8. 27 | 정영진 모친상 9. 1 |
| 황의민 부친상 9. 10 | 안영규 모친상 10. 11 |
| 김영준 모친상 10. 13 | 최윤진 장인상 10. 16 |
| 이근우 부친상 10. 25 | 신명길 모친상 11. 30 |
| 송인섭 모친상 12. 17 | |
| 손창남 장모상 2011. 2 5 | 진종열 장인상 2. 14 |
| 박태영 부친상 2. 17 | |

# 휘문인 廣場

## 64 회장 박상호 | 총무 박상원

**연락처** 총무 | 016-372-6884

### ● 행 사

6월 계룡산 야유회겸 볼재 산우회 등반대회



64회 정기총회및 송년회




### ● 소그룹 행사

**볼재산우회** 회장 허영수, 총무 최희복, 등반대장 송원호

**늘 벗 회** 회장 이명호, 총무 지원복

**W64골프회** 회장 김홍식, 총무 이대노, 박상원

**분당 모임** 회장 문운학

**당구모임** 회장 김창우

**맑음회** 회장 박종한

● **모금 활동** 고 이문택 교우 유가족돕기 성금전달

지난 3월 7일 화요일에 허영수 볼재산우회 회장, 최희복 볼재산우회 총무, 이용주교우, 박상원 64회 총무가 고 이문택 교우댁을 방문하여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권수영 등 42명, 총 6백만원)

### ●◎ 교우 동정

- 신현석 교우 : 8월 요르단 대사 부임
- 임형민 교우 : 8월 충북대학교 공학박사 학위 취득
- 김중헌 교우 : 이라이콤(주) 대표이사 회장, 스마트기기 갤럭시탭, 아이폰4G, BLU(백라이트유닛) 국내단독공급
- 조준래 교우 : 비트플렉스 회장으로서 경인TV 〈경제스페셜〉 코너 출연
- 이근영 교우 : 한림대학교 의료원 부의료원장 임명

### ●◎ 경사 – 결혼을 축하합니다

| | |
|---|---|
| 박영인 장남(3월) | 김종은 장녀(3월) |
| 손병락 장녀(5월) | 정숭호 장녀(6월) |
| 이원선 장녀(11월) | 김학범 장녀(12월) |
| 장건식 장녀(12월) | 장건식 차녀(11년 2월) |

### ●◎ 조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
|---|---|
| 황선일 교우 모친상(1월) | 정문용 교우 빙모상(2월) |
| 박준열 교우 모친상(4월) | 하기용 교우 모친상(5월) |
| 홍헌표 교우 빙모상(5월) | 허영수 교우 모친상(5월) |
| 장기선 교우 부친상(5월) | 김재훈 교우 모친상(5월) |
| 박수익 교우 빙부상(7월) | 이승배 교우 부친상(7월) |
| 이 건 교우 모친상(8월) | 현창진 교우 타 계(8월) |
| 민태홍 교우 모친상(10월) | 지원복 교우 부친상(11월) |
| 이천우 교우 빙모상(11월) | 송명환 교우 빙모상(12월) |
| 이문택 교우 타 계(12월) | 박영덕 교우 빙부상(12월) |
| 원창환 교우 빙부상(11년 2월) | 정문용 교우 빙부상(11년 2월) |

## 66 회장 홍승표 | 총무 이병무

**연락처** 총무 | 018-373-9440

### ● 행 사

**송년의 밤** 12월 16일 (역삼동 리더스클럽)

### ●◎ 교우 동정

- 강 원 교우 : 우리은행 부행장(중소기업본부장) 취임
- 정전환 교우 : 군인공제회 CFO 취임

### ●◎ 경사 – 결혼을 축하합니다

| | |
|---|---|
| 이경렬 장녀(10월) | 박노억 차녀(11월) |

정찬욱 장녀(12월)

●◎ **조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황성재 교우 빙부상(8월)　　고영균 교우 본인 타계(9월)
이윤상 교우 모친상(10월)　　김선호 교우 부친상(10월)
박기량 교우 모친상(11월)　　조경묵 교우 부친상(11월)
도기활 교우 본인 타계(12월)　　연기준 교우 부친상(12월)
정창화 교우 모친상(12월)
김종협 교우 빙부상(2011년 1월)
추용호 교우 모친상(2011년 1월)

## 67

회장 **김연수** | 총무 **윤석남 / 주승빈**

**연락처** 02-3452-0067

### ● 행 사

**정기총회 및 송년회**

12.10(金) 강남문화센터에 동기 76명과 가족24명 참석, 가수 우순실(잃어버린 우산)과 개그맨 송준근(개콘, 곤잘레스)을 초대하여 재미있게 보냈다.

멀리 LA에서 황병호 교우, 미얀마에서 윤헌섭 교우가 찾아와 주었고, 강릉,대전 등 지방에서도 올라와 주었다.

– 결정 사항 : 회장단을 반별로 돌아가며 맡기로 하되 순서는 나중에 의논하기로 함.







### ● 소그룹 행사

**광화문포럼** (회장 함영준, 간사 전영옥)

짝수 달 두 번째 수요일의 정기모임을 8월 북촌면옥(16명), 10월 진미식당(12명), 12월 진미식당(12명), 2월 유림낙지(12명) 등에서 빠짐없이 시행하였음. 시사성 사회문제를 토론하면서 교제를 나눈다. 음식 맛으로 소문난 광화문 인근 식당을 순회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거쳐간 동기는 40여명.

**휘공회** (등산, 회장 이종신, 총무 오세헌)

8월, 10월을 건너 뛰어, 9월(101회–북한산 둘레길), 11월(102회–삼각산),12월(103회–청계산), 1월(104회–북한산), 2월(105회–관악산,) 에 지속적으로 등산을 실시하였음. 매월 두 번째 토요일. 10여명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음.



**휘공당구회**(회장 김동식, 간사 김기국)

9월 18일(4차, 9명), 12월 18일(5차, 13명)에 분기별 모임을 시행하였으며, 12월 송년 모임에서 김동식 교우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음.



**대전지회**(간사 김홍수)

1월 11일(화) 둔산동 명가돌구이에서 오랜만에 모임을 하였음. 특별히 O2저축은행장으로 임명되어 대전으로 온 안형준 교우를 환영하는 자리가 있었음.

# 휘문인 廣場

**여의도시대**
(공동회장 김양수,이상진/ 재정총무 오홍조 / 기획총무 박두원)
9월(3회–석정)에 6명, 11월(4회–석정)에 17명이 참석하였음. 교제를 하면서도 건강과 재테크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나누는 보람이 있었음. 11월 송연회시에는 푸짐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증정하여 훈훈하게 연말을 맞이하였음.



**67 골프회**(회장 장도형 , 경기간사 이규남, 총무 김석현)
전통을 이어 금년에도 용인군 백암면 소재 비에이비스타 골프장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주 수요일 13시부터 4팀(16명)이 게임을 하며 12월에는 월 우승자끼리 왕중왕전을 할 예정이고, 송년회를 하면서 다음 해의 간부를 선출한다. 경기 간사가 다음 해에 회장을 맡는다.

**바둑 동호회** (간사 김기국)
간사 김기국 교우의 발의로 5월 15일(토)에 발족한 모임으로 제2차 모임이 11월 20일(토) 한일기원에서 열렸다.

### ●◎ 교우 동정

– 정진영 교우: (주)동부 부사장 승진 (2010.09.01)
– 이민유 교우: 동부제철(주) 상무 승진 (09.01)
– 송승환 교우: 성신여대 융합문화예술대학 학장 임용 (09.06)
– 최정훈 교우: 한국환경과학회 14대 회장 선임 (11.05)
– 민영도 교우: 하나은행 강남지역 본부장 승진 (12. )
– 이찬복 교우: LG이노텍 전무 승진 (12.16)
– 이의택 교우: 대전대 경영대학장 선임 (12.16)
– 임진묵 교우: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장 영전 (01. 07)
– 이종규 교우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영전 (01. 03)
– 신동욱 교우 : 한국은행 감사실장으로 영전 (01. 03)
– 조승형 교우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장(홍콩)으로 영전(01. 03)

### ●◎ 경사 – 결혼을 축하합니다

백경택 장녀 민주(08. 21)　　김무범 장녀 다인(09. 18)
최병천 장녀 진아(10. 17)　　문상영 장녀 희진양(01. 08)

### ●◎ 조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두원 교우 부친상(08. 07)　　이흥규 교우 부인상(09. 20)
이상일 교우 장인상(09. 26)　　김의철 교우 장인상(10. 02)
최희석 교우 타계(10. 11)　　유희인 교우 부친상(11. 01)
이규남 교우 장모상(11. 20)　　이일우 교우 타계(11. 21)
조우형 교우 장인상(12. 26)　　오홍조 교우 모친상(01. 04)
임진묵 교우 장모상(01. 04)　　장동수 교우 모친상(01. 24)

## 68

회장 **이인경** | 총무 **박찬규**
**연락처** 총무 | 010–2764–6399

### ● 행 사

**'68회 송년모임'**
2010년 12월 17일 포에버리더스클럽 역삼점에서 68회의 힘을 보여주듯 90명의 동기가 모여 거행되었다. 이인경 회장은 재임 3년이 된 지금에는 연락이 끊긴 회원 발굴에 더욱 힘 쓰고, 동기 모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남은 1년간을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일목회**(일산지부 회장 한근호 총무 정용인)
2010년 11월 4일과 2011년 1월 21일에 정기 모임을 가졌다. 2월 9일에는 지난 번 빙모상을 치르기 위해서 중국서 일시 귀국한 이성계 교우를 위한 번개 모임도 가졌다.

**분당지부**(회장 박찬규 총무 정헌태)
1월 21일에 신년모임을 단골 모임 장소인 삼초삼겹살에서 올해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정기 모임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였고, 2011년도 분당지부의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눴다.

## 동기회별 소식

**강서지부**(회장 남석우 총무 고익환)
11월 19일에 강서 양천 영등포 관할에서 마포, 동작, 종로까지 세를 넓혀서 송년모임을 거행했다.



**북부지부**(회장 우창하 총무 김태성)
10월 19일 성헌식 교우의 저서인 '천년 만에 밝혀진 안시성과 살수'의 조촐한 출판기념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강남서초지부**(회장 곽노걸 총무 전상배)
10월 11일 강남서초지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수가 늘어 30여명의 동기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해오름지부**(회장 김영모 총무 김영덕)
10월 27일과 2월 23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해가 지지 않는 해오름지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휘슬회**(회장 이인경 총무 이영환)(정기산행 & 토요부부산행)
이인경 교우가 회장직을 연임하기로 하였다. 정기산행은 10월 17일(청계산) 11월 21일(북한산) 12월 20일(청계산) 1월 23일(아차산 용마산) 2월 20일(북한산). 2월 산행 뒤엔 30년 만에 미국서 귀국한 아이스하키선수 출신 오철호 교우 환영 모임을 하였다.

토요부부산행은 10월은 1박2일로 강원도 고성인근을 12월은 2일부터 4일간 앙코르와트를 다녀왔고, 2월은 26일부터 1박2일 전주 진안 부근 여행을 했다.

**휘조회**(회장 신승열 총무 이규황)
2011년부터 장소를 용인군 백암면 소재 BA비스타CC로 옮겨 3월 4일(매달 첫째 금요일)부터 5개조로 라운딩을 시작했다. 작년 전체 우승자는 백창수 교우, 준우승자는 김영덕 교우가 차지하여 1월 7일 신년하례 모임에서 신승열 회장과 우승, 준우승자들이 회원들을 초청하여 풍성히 베풀어 주었다.

**68회 cell 모임 발족**
1월 12일 카톨릭대학교 교수이자 영성신학원장인 김진태 신부를 모시고 김명현, 조태원, 이의수, 양종희, 김승재 교우가 첫 모임을 하고 년 4회 정기모임을 갖기로 하고 년 1회 일일 피정을 가는 것으로 했다. 불참한 원동준, 조신, 이호중, 허인규 교우는 다음 모임인 4월 13일에 합류키로 했다.

**3학년 7반 반창회**
2월 25일 역삼역 남원추어탕에서 열렸다.

### ●◎ 교우 동정

- 장영재 교우 : ㈜와이케이커머스 대표이사 취임
- 설창현 교우 : 한국석유공사 석유공학실 실장으로 영전
- 이호성 교우 : 글로벌투자자문회사 ㈜필루씨아트 대표이사 취임
- 박연수 교우 : MBC스튜어디스아카데미 개원
- 김현우 교우 : '느티나무' '소나무' '매화나무'라는 제목의 저서 3권 발간
- 김정학 교우 : 광고회사 ㈜효천 대표이사 취임
- 박찬규 교우 : KT휴대폰 매장 오픈(숭실대 정문 앞 02-813-0100)
- 김명현 교우 : 항공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장 취임
- 채문병 교우 :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한국식품점 오픈
- 김진태 교우 : 천주교 영성신학원장 취임
- 류호일 교우 : GS칼텍스 부사장으로 승진
- 임재정 교우 : ㈜삼탄 부사장으로 승진
- 이재창 교우 : 의정부시 신곡동에 나래정형외과 이전 개업 (031-851-7553)
- 박청권 교우 : 31사단 부사단장으로 부임
- 윤기목 교우 : 포스코 STS원료실장 상무로 영전
- 김홍식 교우 :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교감 승진
- 조태원 교우 : ㈜일야하이텍 대표이사 취임
- 안총기 교우 : 상해총영사로 부임

# 휘문인 廣場

– 홍순영 교우 :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에서 경기도 경기개발원장으로 영전.
– 신제윤 교우 :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으로 영전

●◎ **경사** – 결혼을 축하합니다
유지환 장남(10월 17일)
김승언 장녀(3월 26일)

●◎ **조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형진 교우 빙모상(9. 1)
김성찬 교우 부친상(9. 4)
허인규 교우 모친상(10. 1)
배형택 교우 여동생상(10. 3)
허원회 교우 빙부상(11. 14)
차재룡 교우 빙모상(11. 24)
조신 교우 빙부상(11. 27)
김철희 교우 부친상(12. 5)
김창진 교우 부친상(12. 6)
이상현 교우 빙모상(12. 6)
황준연 교우 부친상(2011. 1. 1)
남형진 교우 부친상(1. 22)
이성계 교우 빙모상(1. 27)
박태선 교우 부친상(2. 17)
조덕연 교우 모친상(3. 16)

## 69

회장 **김상동** | 총무 **송승범**
**연락처** 총무 | 010-3245-9333

●◎ **교우 동정**
– 김세형 교우: 2월 22일 제주도로 이사를 하여 둥지를 틀고 있다. 펜션 준비중. (전화 010-2365-0797)



## 70

회장 **정재호** | 총무 **주신종 / 노정민**
**연락처** 총무 노정민 | 017-230-3943

● **행 사**

정기총회 및 송년회〉
2010년 12월 2일 포에버리더스크럽 역삼점. 동기 및 가족 65명 참석. 현 회장단이 1년 더 연임하기로 하고 차기 회장에 유희명 교우가 추대되었음.



● **소그룹 행사**

**휘솔회(등산회)** 회장 : 이광철, 총무 : 정성균, 서동영
8월 수리산(20명), 9월 수락산(27명), 10월 도명산(40명), 11월 북한산(18명), 12월 남한산성(27명), 2011년 1월 청계산(29명) 산행 시행. 2011년도 신임 회장에 이경욱 교우, 총무에 임두묵 교우, 이병훈 교우가 선출.




**공칠공회(당구회)** 회장 : 서호원, 총무 : 손인선
10월 창립, 11월 모임 18명 참석, 12월 송년모임, 1월 모임 17명 참석

**북부지부 모임**(지부장 : 이명수, 총무 : 박종훈)

8월 모임 21명 참석, 12월 송년모임 21명 참석




**동부지부 모임**(지부장 서부광, 총무 최은철)
11월 송년모임 17명 참석

**경기남부 모임**(지부장 윤인덕, 총무 김근석)
11월 송년모임 15명 참석

### ●◎ 교우 동정

– 홍완훈 교우 : 삼성전자 부사장 승진
– 배영창 교우 : 삼성전자 전무 승진
– 12월21일 서부광 동부지부장 심장마비로 인한 뇌손상으로 강동경희대병원 입원 치료 중,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치료 요함. 동기들의 후원금을 8회에 걸쳐 9,000,000원 지원
– 교우회 사무국장인 안영규 교우 후원금 40만원 모금 전달.

### ●◎ 경사

강명수 차녀(9월 10일)
이학연 장녀(11월7일)

### ●◎ 조사

심재춘 교우 타계(8. 4)
이계림 교우 빙부상(10. 3)
엄호순 교우 부친상(10. 19)
전무태 교우 모친상(12. 2)
임승광 교우 모친상(1. 30)
남화섭 교우 부친상(8. 17)
하경식 교우 모친상(10. 6)
이의종 교우 부친상(11. 4)
이기덕 교우 모친상(2011. 1. 7)

## 71

회장 **장원근** | 총무 **진 성 / 유재권 / 양승현 / 김황봉**
**연락처** 총무 양승현 | 011-239-0308

### ● 행 사

**71회 동기회장 선출**(장원근 교우)
작년 12월 정기총회 시 전임 양희봉 회장의 후임을 선출하지 못하여 그동안 회장이 공석으로 있었는데 이번 2011년 2월 17일 (목) 모교 글로벌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장원근 교우를 신임 동기회장으로 선출하였다.(53명 참석)

### ● 소그룹 행사

**한티산악회**(회장 양승현, 총무 조한혁)
2010년 12월 102차 송년산행 북한산
**칠일회**(골프) 신임 회장 이종산, 총무 신동인



### ●◎ 교우 동정

– 경민대 교수(소방학과) 김운형 교우 : 평생교육원장으로 취임
– 신동범 교우(010-9028-6387) : 방이칼국수 개업 2010년 9월 1일
위치 : 성신여대입구역 1번출구 직진 200M 전방 우측뒤골목
– 이덕상 교우 : 평촌 워터프런트에서 시집출판기념회 개최. 2011년 1월 14일. 또한 2010년 월간문예사조 11월호 평론 부문신인상을 수상.
– 정흥순 교우(영화감독) : 가칭 "톰과 재길"(주연 : 정준호, 신현준)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가 완성 단계에 들어가 곧 제작에 들어갈 예정임.

### ●◎ 조사

박기현 교우 부친상(9. 2)
이정식 교우 부친상(9. 8)
유춘화 교우 부친상(12. 2)
전항배 교우 부친상(2011. 1. 12)
김종원 교우 부친상(2011. 2. 5)
안병의 교우 빙부상(9. 7)
신동인 교우 모친상(10. 31)

# 휘문인 廣場

## 72

회장 **윤철한** | 총무 **백종우, 이문수**

**연락처** 총무 이문수 | 010-4231-3901

### ● 행 사

졸업 30주년기념 및 사은회 행사

2010. 12. 2. 모교체육관 에서 15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성대히 행사



### ● 소그룹 행사

**휘나래(등산회)** 회장 : 이덕우, 이한구

산행일자 : 매 4째주 토요일

2010년 8월:삼악산, 9월:관악산, 10월:지리산, 11월:도봉산 산행 실시, 2011년 1월:대모산, 2월 : 아차산 산행 실시



## 문규영 교우의 제 10대 교우회장 취임 및 65호 휘문교우회보 "큰사람"의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초대회장

**이진강** (54회, 전 대한변협회장,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장

**신태영** (65회, 법무법인 춘추 대표변호사, 3478-9333)

총무

**이진영** (77회,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3452-7300)

**그리고 모든 휘법회 회원 일동**



# 廣場

72골프회 회장 : 허원회
한성cc에서 매월 1째주 수요일에 모임 변경 실시

고양파주지회 송년모임
2010. 12. 15일 일산 진국이네

동부지회 송년모임
2010. 12. 22일 잠실 카스톡스

72장학회 운영보고
기간 : 2010. 1 ~ 2011. 3
대상 : 모교 재학생, 동기 유자녀
후원금액 : 재학생(₩8,488,950), 동기 유자녀(₩3,900,000)

● **알림** 72회 홈페이지를 교우회 홈페이지로 이전

●◎ **교우 동정**
홍재영 교우 : 장어집 개업
일시 : 2010. 10. 10(일), 상호 : 불국산 장어
TEL : 031)836-9597, H/P : 011-443-9597

●◎ **조사**
윤경화 교우 부친상(9. 7) 최기선 교우 부친상(9. 18)
김동섭 교우 빙부상(2011. 1. 4) 김학수 교우 부친상(1. 11)
박철환 교우 빙모상(2. 18) 손은혁 교우 부친상(3. 21)

## 79

회장 **민진오**
**연락처** | 019-363-9971

2011년 2월26일(토) 79회 친구산악회는 2010년 2월 창립 1년만에 관악산에서시산제를 가졌다.




## 80

회장 **이상민** | 총무 **홍성민**
**연락처** 총무 | 010-5399-1115

● **행 사**

2010년 11월 22일 상반기 전체모임 개최
청담동 학동사거리 베니건스에서 2011년 상반기 전체모임 일자 논의 – 4월 25일 장소 동일, 참석자 59명

2010년 3월 11일 운영위원 회의 개최
청담동 학동사거리 베니건스에서 이상민 회장 포함 12명.

가. 상반기 모임 4월 25일 월요일 청담동 학동사거리 베니건스로 확정.
나. 하반기 모임 때 차기 회장 선출문제 논의 – 문과 아닌 이과에서 선출하기로 결정

●◎ **교우 동정**
2반 윤대영 교우 – 서강대 동아연구소 조교수 임용
7반 이명수 교우 – 미국 뉴욕 연수 마치고 귀국
14반 김준동 교우 – 덕성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조교수 임용




여초 김응현(39회)
2006년 5월 개교 100주년 기념

# 연회비 납부현황 _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평생회비는 누적 납부교우 명단임)

| | |
|---|---|
| 32회 | 박창서, 이종근 (2명) |
| 37회 | 안화영 (1명) |
| 38회 | 평생회비 유명국 (1명) |
| | 노융희, 신국재 (2명) |
| 39회 | 평생회비 송기항 (1명) |
| 41회 | 서태규 (1명) |
| 42회 | 구기환,김준진,신좌성,이봉준,한동근 (5명) |
| 43회 | 평생회비 채희병 (1명) |
| | 김병희,김재식,심명식,조완기,최두형 (5명) |
| 44회 | 평생회비 윤종상,장충식 (2명) |
| | 노인환,박중응,서정욱,윤종상,홍기동 (5명) |
| 45회 | 평생회비 윤기로,최필균 (2명) |
| | 심정구,유태길,이범홍,최태원,한청수 (5명) |
| 46회 | 평생회비 황상재(1명) |
| | 민경배,박형석,윤강열 (3명) |
| 47회 | 평생회비 민병돈 (1명) |
| | 곽창선,오윤택,윤용석,한정호 (4명) |
| 48회 | 평생회비 유동건,조창원 (2명) |
| | 고덕규,김점식,민병소,심영섭,유흥규,이만수 (6명) |
| 49회 | 평생회비 공진식,김재헌,양성국 (3명) |
| | 김동신,김윤식,김철영,나종호,송오복,안태경,엄규종,유재근,유희용,윤창배,이종대,이종복,임승춘,조병학,차기원,하낙순,하영규,허 동 (18명) |
| 50회 | 평생회비 김병희,김정만,백욱용,이춘섭,이태준 (5명) |
| | 김기충,김성조,두봉완,변유식,안병한,이범호,임재일,최복천,최원복,황현우 (10명) |
| 51회 | 평생회비 권재원,김종환,문창관,안명근 (4명) |
| | 김제욱,박부섭,박항균,배구섭,서재진,윤중열,이명산,이원희,정문영,정해륜,조규웅 (11명) |
| 52회 | 평생회비 김화영,민길우,오승일,이재욱,이진하,장영준 (6명) |
| | 김성열,박종국,백남식,신지현,심재규,오세갑,이덕준,이범수,이종덕,정상모,지정철 (11명) |
| 53회 | 평생회비 강인철,권혁홍,성정헌,신호철,윤석구,윤충일,이강우,정성호 (8명) |
| | 김의환,유호선 (2명) |
| 54회 | 평생회비 길형보,김종소,김창환,민병소,이근무,이병관,이광호,이재일,장현익,최성용 (10명) |
| | 김 건,김경균,김기후,김선기,김용해,내영선,박개석,박래윤,박인규,윤정의,오덕복,오천식,이재호,이종해,장봉국,정시영,조동호,조복연,하병규,한두현,황수연 (21명) |
| 55회 | 평생회비 이상재,장호성,차인태 (3명) |
| | 김상찬,김석태,김홍규,박범훈,박재현,신현준,윤용선,이남수,이승우,임일순,조완호,한영호 (12명) |
| 56회 | 평생회비 강명구,김인현,김종갑,김종열,박준일,박찬우,신진영,윤기동,윤홍섭,이원용,이종성,이창원,이호종,이희원,임수진,장용이,조기웅,허 열,황선주,황영호(20명) |
| | 김문재,김신일,김원택,김정덕,방계련,서갑수,송재경,유재홍,이병웅,이병철,이한규,최규상,한경희,홍성택 (14명) |
| 57회 | 평생회비 박찬호,박항구,심영경,안효섭,이무훤,차동석 (6명) |
| | 김영순,도윤주,민갑식,이성근,이정길,정석균,조태연 (7명) |

| | |
|---|---|
| 58회 | 평생회비 김윤일,김응래,민병걸,설상희,윤재호,여장수,이경한,이문원,이선욱,이장근,최희유,한홍구 (12명) |
| | 강신일,김영렬,남기문,남기화,문병철,마성준,민승기,박형재,설상희,신덕길,신동태,신종태,안성식,윤홍섭,이경순,이덕우,이용상,인태평,임명렬,조전호,조정환,조현행 (22명) |
| 59회 | 평생회비 구자선,김충식,김형원,남해복,노세훈,문덕진,박대순,박영환,방갑철,방세훈,변동철,신흥우,이상규,이양우,이찬신,이헌구,임성빈,임종식,장보공,장봉용,정 |
| | 연정,최재우,최은수,최향교,한동인 (25명) |
| | 강태현,김승익,김익환,김준환,이순영,장봉용,한상웅 (7명) |
| 60회 | 평생회비 김익원,김종국,김종관,김창윤,박환규,임형재,정상욱 (7명) |
| | 육동수,이인호,임광욱,정병열,채을석,최재만,최태경 (7명) |
| 61회 | 평생회비 김용성,노재순,박학도,신동진,이승권 (5명) |
| | 고욱환,김명일,김장안,김용성,박학도,서우택,임현경,정주영,조원석 (9명) |
| 62회 | 평생회비 곽노혁,김종일,김창배,소재숙,송기동,안재규,양재호,이규열,임종한,허 은 (10명) |
| | 곽암부,김명호,김영회,김재철,김태형,박장경,안무용,임평재,조흥기,최광성,허 봉 (11명) |
| 63회 | 평생회비 김광덕,김선욱,김용석,김홍길,류천열,박재웅,안영규,오임환,윤영한,윤진영,정종구,제진주,조봉호,최창순 (14명) |
| | 곽용주,고지홍,김정일,김종진,김주연,김진길,성기훈,윤정희,윤형규,신중식,이성주,이영남,이희철,장지헌,정찬교,최원규,허완욱 (17명) |
| 64회 | 평생회비 강태희,강학수,권수영,권진규,권혁수,김문기,김왕식,김원정,김중헌,김지영,나 진,박상호,박상원,서욱배,오대환,윤형모,이근영,이대노,이동용,이원선,이성 |
| | 주,이원선,이종식,이태호,임병용,정숭호,조상완,조창현,하기용,허형호,황선일 (31명) |
| | 박성호,신동수,신주섭,지원복,최승욱 (5명) |
| 65회 | 평생회비 고영술,김광은,김성동,김재한,김현기,박중배,안영원,안종훈,연동철,유상현,윤치호,이상호,이원집,이재환,이충희,전지영,최성헌,최승기,황낙연 (19명) |
| | 김봉기,신광철,안희철,이호진,홍성천 (5명) |
| 66회 | 평생회비 김영진,김주환,박효식,신동천,이경국,이승헌,정명철 (7명) |
| | 목현균,박동호,유광섭,이병무,이호근,정승근,정진환 (7명) |
| 67회 | 평생회비 강성신,김기국,김응구,김응규,김학주,김현경,송승환,안병오,윤석길,이광호,이영호,이일우,전영옥,조명하,조영훈,황대규 (16명) |
| | 김석태,김창석,방태철,유종수,이상진,이영우,이정기,임한근,임창호,장도형,장원식,조우형,주춘화,최광서,한승석 (15명) |
| 68회 | 평생회비 김성원,양종희,오수혁,우창하,유종균,이남진,이민호,이인경,이호중,전두선,정인권,정일남,정한영,조석일,조태원,진호석,최원민,황선욱 (18명) |
| | 고 용,고익환,도정수,박 인,범순배,이원광,이재영,이재원 (8명) |
| 69회 | 평생회비 김상동,김완용,우종환,이경상 (4명) |
| | 박용순,송승범,이송호,정재욱 (4명) |
| 70회 | 평생회비 김시달,김재선,나경우,이혁모,임두묵,전중익,정성균,최정진,최승욱 (9명) |
| | 송병목,이하근,정흥용,홍성권 (4명) |
| 71회 | 평생회비 김요섭,김태영,류재권,민병휘,박경양,양승현,양희봉,어덕준,이상명,이상봉,이흥호,장영민,장원근,위성운 (14명) |
| | 고재홍,위성운 (2명) |
| 72회 | 평생회비 김현수,권관중,김선덕,김학수,문상철,박상흠,박성현,박영렬,안병구,윤경화,윤철한,이응렬,조남권,최영호,허원회 (15명) |
| | 고경석,문대진,민경모,박증원,백승호,송윤근,안성기,안세동,이금석,이원욱 (10명) |
| 73회 | 평생회비 김성우,김평윤,박운진,손영호,염장원,유동화,이재황 (7명) |
| | 김승욱,김진부,이영인 (3명) |
| 74회 | 평생회비 양한수,이상욱 (2명) |
| | 정공흠 (1명) |
| 75회 | 평생회비 강형준,김동수,김상영,문병훈,윤종열,정귀범,한 용 (7명) |
| | 이형호,진윤섭 (2명) |
| 76회 | 평생회비 김용호,김주태,임윤석 (3명) |

| | |
|---|---|
| 77회 | 평생회비 김기훈,이주헌,조태희,한원일 (4명) |
| 78회 | 평생회비 이상빈,최상원 (2명) |
| 79회 | 평생회비 박성식,최성락,황광원 (3명) |
| | 강봉준,장 성,한정엽 (3명) |
| 80회 | 평생회비 김민석,김승원,안태준,오인환,오재혁,장우진 (6명) |
| | 송영수,이석호,전석재 (3명) |
| 81회 | 평생회비 강태진,전성호,최홍섭 (3명) |
| 82회 | 평생회비 김정오,이경연,허 민 (3명) |
| 83회 | 평생회비 강신우,고영승,고장석,김상현,김세권,김재명,남동완,두충헌,박성진,박형민,방형진,신한승,심보형,유동한,이면형,이무룡,이성규,이재신,이정석,이학성,정 |
| | 재행,진필중,최원혁,최장현,한지석,허석우,홍윤수 (27명)——대단한 일정임. |
| | 강승우,민경호 (2명) |
| 84회 | 평생회비 윤경로,윤성로 (2명) |
| | 정해욱 (1명) |
| 85회 | 평생회비 최동석 (1명) |
| | 허준원 (1명) |
| 87회 | 평생회비 이준규 (1명) |
| | 김준구 (1명) |
| 90회 | 평생회비 임정호 (1명) |
| 95회 | 최성훈,최성휘 (2명) |

## 교우회 회비 납부자 현황분석

(단위 : 천원)

| 구분 | 9대 교우회 | | | | | | 8대 교우회 | | | | |
|---|---|---|---|---|---|---|---|---|---|---|---|
| 연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합계 | 8대대비증가율(%) | 2006년 | 2005년 | 2004년 | 2003년 | 합계 |
| 평생회비 | 10,470 | 6,878 | 6,600 | 15,300 | 39,248 | 117 | 900 | 3,000 | 3,900 | 10,300 | 18,100 |
| 연회비 | 27,977 | 12,309 | 18,926 | 21,742 | 80,954 | 12 | 10,894 | 19,718 | 21,381 | 20,514 | 72,507 |
| 합계 | 38,447 | 19,187 | 25,526 | 37,042 | 120,202 | 33 | 11,794 | 22,718 | 25,281 | 30,814 | 90,607 |
| 전년대비 증가율(%) | 100.3 | | | | | | 100주년 | 전진대회 | | | |

| 구분 | 9대 교우회 | | | | | | 8대 교우회 | | | | |
|---|---|---|---|---|---|---|---|---|---|---|---|
| 연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합계 | 8대대비증가율(%) | 2006년 | 2005년 | 2004년 | 2003년 | 합계 |
| 특별회비(원) | 56,867 | 28,523 | 24,984 | 26,360 | 136,734 | 69 | 15,900 | 28,500 | 17,150 | 19,450 | 81,000 |
| 전년대비 증가율(%) | 99.4 | | | | | | 100주년 | 전진대회 | | | |

9대 교우회에서 회비 납부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는 교우회보에 대한 호응 증대와 안사무국장 유고로 인한 교우회 운영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교우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전년대비 2배의 회비를 납부해 주셨습니다. 많은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회의 활동 및 발전과 교우들을 위한 행사에 유용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0년도 지로 납부액 중 기수, 성함 쓰지 않은 교우 (1) 평생회비 – 6명 (2) 연회비 – 53명
※ 지로용지에 성함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교우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486-6735~6)

**▶ 총 교우 30,000여명 ■ 평생회비 누적 납부자 358명 ■ 연회비 2010년 납부자 350명**
**※ 합계 708명 납부(특별회비, 기별회비 제외) 교우회보 발송자 약 7,000명 대비 10% 납부**

### ◉ 교우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www.whimoonob.net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교우소식"등 다양한 제공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교우회 회비 납부 방법 안내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 **특별후원금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회비납부 은행 계좌 _ 예금주명 휘문교우회 | 대표계좌 | **국민은행 : 532001-01-070524**

우리은행 169-528463-13-101 기업은행 064-060262-01-011
신한은행 438-01-015276 하나은행 256-910003-24605
NH 농협 096-01-276990 우체국 013383-01-005020

### ◉ 지로용지신청 _

휘문교우회 Fax 02-3486-6737

**휘문교우회 주소** (우)137-072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5-8 중앙로얄오피스텔 702호

■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회비납부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 휘문장학회 후원금 납부 계좌 안내

기업은행 : 129-037907-96-001 / 재단법인 휘문장학회

### ◉ 야구후원회 후원금 납부 계좌 안내

하나은행 : 224-910040-92204 / 휘문교우회 야구후원회

### ● 교우회보 광고 단가표 (단위 : 천원, VAT 별도)

| 종 류 | 면배치 | 규 격 | 광고료 |
|---|---|---|---|
| 전면광고 | 표4 | A4 | 3,000 |
| | 표2, 표3 | A4 | 2,000 |
| | 내지 | A4 | 1,500 |
| 하단광고 | 내지 | A4×1/2 | 700 |
| | 내지 | A4×1/3 | 500 |
| 돌출광고 | 내지 | A4×1/6(=1/3×1/2) | 300 |
| 한줄광고 | 내지 | A4×1/30 | 100 |
| 전단 삽입 | 내지삽입 | A4 | 300 |
| 동기회, 동호회별 특집기사 | 내지2~3면 | A4×2 | 3,000 |

· 한줄광고는 단체별 회원광고로 10명 이상 시 게재하고, 교우회에서 광고료의 20%를 해당 동기회, 동호회 및 단체에 기부함.
· 휘문교우회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함.

### ◉ 2011년 봄 · 여름 65호 교우회보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67회 이상진 **사무국장 직무대행** 56회 장용이

□ 위원 68회 김헌영 □ 위원 70회 서호원 □ 위원 72회 송윤근 □ 위원 73회 정성문
□ 위원 73회 이철배 □ 자문 78회 전완식 □ 위원 80회 민병호
□ 사무차장 80회 안태준

### ● 교우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큰사람 – 휘문교우회보〉는 교우 여러분의 원고와 진솔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수필, 시, 기행문, 회상기, 추억의 사진과 따가운 질책 등 모두 환영합니다. 소개하고 싶은 교우가족이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우회 홈페이지의 교우회보 – 기사접수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고를 보내 주신 교우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편집실에서…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교우회 관련 업무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날아 든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이틀 전까지 함께 원고를 정리하고, 편집 교정을 봤던 사무국장이 추석날 쓰러진 채로 발견되다니… 수술을 통해 생명을 건지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면서, 비상시스템을 발족, 가동하여 64호 교우회보 발행과 18회 체육대회 및 제 1회 야구후원의 밤 행사 준비를 위해 종전보다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는 교우들의 책임감과 뜨거운 동료애에 다시 한번 눈물 짓는 기회가 있었으니… 편집위원들도 더욱 애뜻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사무국장의 업무까지 도맡아 가며… 사무국장의 책임과 역할까지 대신해 가며… 봄에 전하는 이 의리와 사랑, 또한 사무국장의 쾌유를 위해 전하는 많은 교우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촌지, 이번 교우회보 65호에 다 담지 못한 뜨거운 감동을 봄바람에 날려 드려요.

다음 66호에서는 더욱 예쁜 모습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집자 주〉 마감일까지 기사접수를 못한 동기회 및 단체는 다음호에는 꼭 기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사람–휘문교우회보〉에 실린 내용은 교우회 홈페이지 – 교우회보 – 회보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whimoonob.net**